

정책연구(현장) 2025-08

2025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경상북도 영덕군 소규모 중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방안 연구

책임 연구원

김유리(축산중학교)

공동 연구원

이성희(축산중학교) 이재현(축산중학교)

김종남(남정중학교) 최가영(남정중학교)

권예진(병곡중학교) 권정혁(영해고등학교)

자문 위원

김종태(축산중학교)

박태연(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이정림(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25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경상북도 영덕군 소규모 중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방안 연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 요약

학령인구 급감과 농산어촌 인구 유출로 경상북도에서는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중학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 중심의 대응은 교육격차와 지역 공동체 약화를 초래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하는 학생 참여, 지역 연계, 교과 융합은 소규모학교의 강점을 살릴 기회이지만, 인력과 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근 학교가 교사·학생·시설을 공유하며 교과 중심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함께자람 교육허브」 기반 경북형 공동운영 모델을 설계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4년 창의적체험활동의 공동 운영의 성과를 토대로 교과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으로 확대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형 소규모 중학교 교과 중심 공동운영 모델의 설계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 간 연계를 위한 「함께자람 교육허브」 구축 및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개정 교육과정의 학생 중심·지역 연계·교과 융합을 소규모학교에서 구현할 절차는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덕교육지원청 관내 네 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집단 비교를 병행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북교육청의 정책을 분석하고, 면담 및 자료 검토로 공동운영 모델의 구성요소와 여건을 종합 검토했다.

연구 결과, 교육공동체는 공동운영의 교육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나 인지도와 참여도는 낮았다. 만족 요인은 소인수 맞춤형 수업과 체험·진로활동이었고, 불만 요인은 교사의 업무 과중과 프로그램 부족이었다. 공동운영 확대 영

역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교과 영역에서는 체육·영어·진로 과목 선호가 높았다. 통폐합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학습권 보장과 지역 유지 측면에서 공동운영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함께자람 교육허브」 기반의 교과 중심 공동운영 모델을 제안한다. 학교 간 교육과정을 공동 편성·통합하고, 원격수업과 소규모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 질을 높인다. 교원·시설의 공동 활용과 이동 지원, 통합 행정·예산 체계, 표준화된 품질관리 절차를 마련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로 학교와 마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운영 지원 방안으로는 공동 설계 시간 보장, 순회 근무 시수 제한, 공통 평가 도구 도입, 원격수업 인프라 강화, 지역 학습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자료 플랫폼 제공과 학부모 소통 강화로 인지도를 높이고, 초미니학교에는 광역 원격수업 및 거점 연계 모델을 제시했다.

교과 공동운영과 원격·대면 수업 융합을 통해 학습권 보장과 과목 선택권 확대가 이루어지고, 교사 협력으로 수업 질이 향상된다. 표준화된 운영 체계로 업무 부담이 줄고, 지역 연계 교육이 활성화되어 농산어촌 교육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 이러한 경북형 모델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인 학생 중심·지역 연계·교과 융합을 실천하는 전국 확산형 모형으로서 교육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내용 및 절차	2
4. 문헌 분석	5
5. 연구의 의의	6
II.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의 변화 연구	8
1. 경상북도 소규모학교 현황 및 관련 정책	8
2. 중앙정부의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 흐름	9
3.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 중학교 지원 정책 및 대응	11
4. 시사점	13
III. 설문 조사	15
1. 설문 개요	15
2. 응답 현황 및 분석	16
3. 설문조사 응답 전체에 대한 종합 분석	45
IV. 소규모학교 환경 여건 분석	47
1. 농산어촌 소규모 중학교의 일반 현황	47
2.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51
V.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61
1.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철학과 구성 분석	61
2. 창의적 체험활동·교과융합·학생참여형 수업 등의 핵심 요소 분석	62
3.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64
4.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모델 제안	65

VI. 영덕군의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사례	68
1.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68
2. 영덕군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69
3. 시사점	74
VII.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75
1.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75
2. 마을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84
VIII. 결론	96
1. 결론	96
2. 제언	97
3.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98
< 참고 문헌 >	103
< 부록 >	105

〈 표 목 차 〉

〈표 1〉 사례 연구의 일반적 절차	4
〈표 2〉 문헌분석	5
〈표 3〉 경북의 소규모 중학교 현황	8
〈표 4〉 중앙정부 차원의 소규모 학교 정책 흐름	9
〈표 5〉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정책 흐름	11
〈표 6〉 설문 문항 구성	15
〈표 7〉 응답자 일반 현황(교직원)	16
〈표 8〉 교육 여건 및 업무 환경(교직원)	16
〈표 9〉 교육 여건 및 업무 환경(교직원)	17
〈표 1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교직원)	18
〈표 11〉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이해 기술통계표(교직원)	18
〈표 12〉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인지도 및 참여도(교직원)	18
〈표 1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기술통계표(교직원)	19
〈표 14〉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교직원)	19
〈표 15〉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 여부(교직원)	20
〈표 16〉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기술통계표(교직원)	20
〈표 17〉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만족/불만족(교직원)	20
〈표 18〉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한 불만족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교직원) ..	21
〈표 1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교직원)	21
〈표 2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확대 방향 및 확대 과목(교직원)	21
〈표 21〉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교직원)	22
〈표 22〉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교직원)	23
〈표 23〉 응답자 일반 현황(학부모)	23
〈표 24〉 교육 여건 및 학교 환경(학부모)	24
〈표 25〉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기술통계표(학부모)	24
〈표 26〉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인지도 및 참여도(학부모)	24
〈표 27〉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기술통계표(학부모)	25
〈표 28〉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학부모)	25
〈표 2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 비교	26
〈표 30〉 자녀의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 또는 진학 예정 여부(학부모)	26
〈표 31〉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기술통계표(학부모)	27

〈표 32〉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비교	27
〈표 3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불만족스러운 부분(학부모)	27
〈표 34〉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비교	28
〈표 35〉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비교	28
〈표 36〉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한 불만족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학부모)	29
〈표 37〉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학부모)	29
〈표 38〉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확대 방향 및 확대 과목(학부모)	30
〈표 3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 비교	30
〈표 4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과목 비교	31
〈표 41〉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학부모)	31
〈표 42〉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 비교	32
〈표 43〉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단점 비교	32
〈표 44〉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학부모)	33
〈표 45〉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비교	33
〈표 46〉	응답자 일반 현황(학생)	34
〈표 47〉	교육 여건 및 학교 환경(학생)	34
〈표 48〉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기술통계표(학생)	35
〈표 4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인지도 및 참여도(학생)	35
〈표 5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기술통계표(학생)	36
〈표 51〉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비교	36
〈표 52〉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학생)	36
〈표 5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 비교	37
〈표 54〉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 또는 진학 예정 여부(학생)	37
〈표 55〉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기술통계표	37
〈표 56〉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비교	38
〈표 57〉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불만족스러운 부분(학생)	38
〈표 58〉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비교	39
〈표 5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비교	39
〈표 6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한 불만족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학생)	40
〈표 61〉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학생)	40
〈표 62〉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확대 방향 및 확대 과목(학생)	41
〈표 6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 비교	42

〈표 64〉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과목 비교	42
〈표 65〉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학생)	42
〈표 66〉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 비교	43
〈표 67〉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단점 비교	44
〈표 68〉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학생)	44
〈표 69〉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비교	45
〈표 70〉 영덕군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변화 추이	47
〈표 71〉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효과	59
〈표 72〉 교육과정 프로그램 설계 예시	66
〈표 73〉 영덕군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69
〈표 74〉 「함께자람 교육허브」 유형별 장단점 비교	77
〈표 75〉 「함께자람 교육허브」 구성 및 협업 체계	79
〈표 76〉 「함께자람 교육허브」 공간 구성	80
〈표 77〉 영덕군 마을공동체 교육자원 분석	85
〈표 78〉 교과 영역별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예시	86
〈표 79〉 자유학기제와 마을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예시	88
〈표 80〉 영덕군 자원 활용 창체 프로그램 운영 방안	90
〈표 81〉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	92

〈 그림 목 차 〉

〈그림 1〉 국어과 글쓰기 프로젝트 ‘숲바다 백일장’	70
〈그림 2〉 과학·사회 연계 ‘발명체험교실 & 경제교육’	71
〈그림 3〉 영어 공동캠프 ‘한동대학교 글로벌 체험학습’	71
〈그림 4〉 「함께자람 교육허브」 기반 교과중심 공동수업	72
〈그림 5〉 숲속학교 작은 음악회	73
〈그림 6〉 역사 프로젝트 ‘아! 문산호, 호국의 길’	73
〈그림 7〉 「함께자람 교육허브」 활용 공동 수업의 흐름	7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전국 소규모학교(60명 이하)는 계속 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3년 11.2%에서 2022년 23.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농촌이 많은 경북은 2022년 초등학교의 43.8%가 작은 학교였다. 학령인구는 2029년까지 16.7% 더 줄어들 전망이며, 농산어촌 중학교도 늘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통폐합으로 대응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5천5백여 개 학교가 사라지며 지역 반발이 커졌다. 주민들은 “통폐합은 삶의 붕괴”라며 반대했고,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확산됐다. 한 마을은 이 운동으로 학생 수를 12명에서 102명으로 늘렸다.

지역사회는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공동체의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학교 존치와 교육공동체 회복이 농촌 지속가능성의 핵심으로 인식된다.

농산어촌 소규모 중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복식학급 운영과 교원 부족 등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 수가 적어 행정 부담이 크고, 상담·수업 연구에 소홀해지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농촌 학생들은 도시보다 다양한 과목과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어렵다. 경북도의회는 “소규모학교 증가는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단순 통폐합만으로는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유출을 막기 어려워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소규모학교를 폐교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보고,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 연계형 「함께자람 교육허브」는 여러 학교가 학생과 교원을 공유하며 수업과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공동수업, 도시-농촌 교류, 초·중 연계, 원격수업 등 다양한 모델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24개 중학교가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를 공동 운영하며 성과를 거뒀고, 2025년에는 정규 교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사들은 공동 운영이 교육력 향상과 학생 성장에 필수적이라 평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참여형 수업, 지역 연계 활동, 교과 융합을 강조하며, 소규모학교의 강점을 부각시킨다. 학생 수가 적어 토론·프로젝트형 수업이 용이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촌 소규모학교는 전교생 참여 활동과 마을 연계 교육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 교육력으로 전환하려면 학교 간 협력망과 외부 자원 연계가 필수다. 선택과목 개설이나 특색 프로그램도 교육협력 허브를 통해 공동 운영하면 가능해진다. 따라서 학교 간, 지역 간 연계 기반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모델 개발과 지원이 절실하다.

결국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연구는 시급한 과제다. 학령인구 감소, 통폐합 정책의 한계, 지역사회의 학교 존치 요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이 맞물린 지금이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경북의 소규모 중학교들이 ‘함께 자람’의 가치 아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작은 학교도 풍부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 운영 모델을 설계·지원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성장권 보장의 핵심 과제이며, “작은 학교에서도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의 실현 기반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 증가와 통폐합 정책의 현실, 이에 따른 지역사회 요구와 교육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소규모학교를 폐교 대상이 아닌 교육적 잠재력을 지닌 기관으로 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학교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상북도 영덕교육지원청 관내 지품중·축산중·병곡중·남정중 등 4개 소규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효과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교과 운영 제약, 복식학급으로 인한 교육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소규모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학교 간 및 학교-지역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 경험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산어촌 학생도 도시에 버금가는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셋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생 중심 수업, 지역 연계 활동, 교과 융합교육을 소규모학교 실정에 맞게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소규모학교가 학생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로 발전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델은 경상북도뿐 아니라 전국 소규모학교에도 적용 가능한 사례가 될 것이다.

3. 연구의 내용 및 절차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함께자람 교육허브」 기반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모델을 개발·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품중, 축산중, 병곡중, 남정중을 대상으로

공동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운영 가능성을 검증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의 내용

첫째, 소규모학교 간 공동 프로젝트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각 학교는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실천적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며, 주제는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학교 간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이해를 높이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을 수행한다.

둘째, 지역 기반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구축하여 소규모학교 간 공동 학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허브는 정기적 만남, 공동 수업, 지역 연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며, 학생과 교사가 경험과 성과를 공유·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방과후 동아리, 봉사활동 등과 연계해 효과를 높인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성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나. 연구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학교 현황을 파악해 기본 틀을 마련한다.

둘째, 교육과정 구성 단계로, 연구위원과 교사들이 참여해 소규모학교 특성을 반영한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교과 연계·통합 방안, 프로젝트 주제,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다.

셋째,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요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설계와 운영에 반영한다.

넷째, 설문 결과를 분석해 정책을 수립하고, 대상 학교에 시범 적용해 현장 반응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섯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검증·평가해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이 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각 단계의 결과를 반영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성적 사례분석과 정량적 설문조사를 결합한 혼합 연구로, 문서·

현장 기록과 교사·학생·학부모·행정 담당자 면담을 통해 실제 공동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다.

<표 1> 사례 연구의 일반적 절차(Arya & Priya, 2020)

단계	내용
연구 설계 단계 (Design Ph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를 사용할 이론적·철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연구의 목적과 질문을 “어떻게” “왜” 중심으로 설정 ■ 연구의 단위와 사례의 경계 정의 ■ 시간적·공간적 범위, 사건의 범위 명시 ■ 사례연구의 유형 결정 ■ 단일 사례 vs 다중 사례 ■ 기술적 / 탐색적 / 설명적
사례 선정 및 맥락 정의 (Case Selection & Cont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선정 기준을 명확히 기술 (이론적, 실용적 타당성 근거 포함) ■ 사례의 맥락을 상세히 기술하여 배경 이해 제공 ■ 연구자가 “왜 이 사례인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 ■ 연구자의 입장과 관점을 초기부터 인식
자료 수집 단계 (Data Col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료원 활용 ■ 심층면담, 관찰, 문서분석 등 ■ 삼각검증을 통해 신뢰도 강화 ■ 현장의 자연스러운 맥락을 유지하며 자료 수집 ■ 사례 내 하위단위들 간의 상호작용도 함께 탐색
자료 분석 단계 (Data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코딩 → 범주화 → 주제 도출 ■ 사례 간 또는 사례 내 비교 수행 ■ 자료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해석 ■ 이론적 제안을 점진적으로 도출 ■ 결과를 단순 기술이 아니라 설명적·해석적 분석으로 발전시킴
신뢰도·타당성 확보 단계 (Validity & Reli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적 타당도 확보: 논리적 일관성과 근거 제시 ■ 외적 타당도 확보: 분석적 일반화 적용 ■ 신뢰성 확보: 연구 과정의 투명성, 절차적 일관성 유지 ■ 참여자 검토, 동료 검토, 자료 다각화 활용
결과 보고 및 해석 단계 (Reporting & Interpre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의 맥락, 과정, 의미를 서술적·이야기체로 제시 ■ 연구 질문과 연계된 핵심 발견 명확히 제시 ■ 결과를 기존 이론과 연결하여 이론적 시사점 제시 ■ 실제 적용 가능성 및 실천적 함의 논의 ■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안
연구 전반의 반성적 성찰 (Reflex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의 가정, 편견, 입장을 지속적으로 성찰 ■ 연구 참여자 및 맥락과의 관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고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현상을 조작하지 않은 자연적 맥락에서 ‘왜’와 ‘어떻게’를 탐색하는 전략으로, 인터뷰·관찰·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과정 중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 과목 개설, 시설 공유, 교사 협력 구조와 의사결정 절차가 맞물리는 지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으며, 그 중심에서 학교·지역·지원기관을 연결하는 허브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허브의 주요 기능(공동 편성·시간표 통합, 원격수업 지원, 시설 공유 조정, 행정·예산 지원, 품질관리)을 구체화했다.

추출된 구성 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7점 리커트 척도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은 소규모학교의 실태, 만족도, 허브 구축 필요성과 기대 효과, 장애요인 및 지원 요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가 검토로 내용 타당도를 확보했다. 응답은 결측 처리 후 기술통계와 요인분석, 집단 비교로 분석했다. 정성·정량 연구는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정성 결과는 설문 문항과 해석의 틀이 되었고 정량

결과는 사례 해석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연구 전 과정에서 삼각검증, 참여자 확인, 연구자 반성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목적과 익명성, 자발적 참여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정성적 통찰과 정량적 근거를 종합해 허브 기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모델의 적용 조건과 절차,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4. 문헌 분석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헌 분석은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의 실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 아래는 관련 주제를 다룬 대표 문헌과 기사 10편의 핵심 요약이다.

<표 2> 문헌분석

연구자/연도	연구 주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Termaat (2023)	작은 중등학교의 학제 간 수업	교과 간 협력 수업을 통해 학생 참여도와 교사 협력도 증가, 인적 자원 부족 극복
Ye & Xu (2023)	학제 간 주제 중심 학습	21세기 핵심역량(4C) 함양에 효과적,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으로 상호작용·심화 학습 경험 증진
Mammadova (2021)	일본 지역사회 참여형 지속가능성 교육	지역사회 자원 활용 → 학생의 지역 이해·환경 책임감 강화, 학교 위상 제고
Bjork (2009)	일본 종합학습 (Integrated Studies) 개혁	지역 맞춤형 학습 경험 제공, 교육 성취 향상 및 지역 지속가능 발전 기여
Smith & Sobel (2010)	장소기반·지역사회 교육	학교-지역사회 상호작용 증진, 학습 동기 강화, 특히 작은 학교에서 효과 큼
조금주 (2022)	충북 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 사례	교사·주민 협력 → 학생 수 증가, 교육활동 질 향상
김상곤 외 (2013)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	통폐합 최소화·공동 교육과정·교사 순환 배치·지역 참여 강화 → 소규모학교 존속에 효과적
황혜정 (2015)	장소기반교육(PBE)의 효과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 긍정적,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2024)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간 협력으로 공동수업·프로젝트 운영 성공, 학습 경험 다양화 및 도시-농촌 격차 완화

첫째, Termaat(2023)은 작은 중등학교에서 학제 간 수업 운영 효과를 분석했다. 소규모 학교가 교과 협력을 통해 창의적 융합 수업을 실시하며, 학생 참여도와 교사 협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둘째, Ye와 Xu(2023)는 주제 중심 학제 간 학습이 학생의 21세기 핵심역량(창의력·

협력·의사소통·비판적 사고)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특히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이 작은 학교에서 활발한 상호작용과 깊은 학습을 이끈다고 했다.

셋째, Mammadova(2021)는 일본의 지역사회 참여형 지속가능성 교육 사례를 분석했다. 지역 자원 활용이 학생의 지역 이해와 환경 의식을 높이고, 학교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함을 확인했다.

넷째, Bjork(2009)는 일본 종합학습 개혁을 통해 지역 중심 교육이 학생의 실천적 학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제시했다.

다섯째, Smith와 Sobel(2010)은 장소기반 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학생의 학습 동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섯째, 조금주(2022)는 교사와 주민 협력으로 작은 학교를 활성화한 충북 사례를 소개하며, 협력이 학생 수 증가와 교육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일곱째, 김상곤 외(2013)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교사 순환 배치, 지역 참여 강화의 효과를 확인했다.

여덟째, 황혜정(2015)은 장소기반교육이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촉진하고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늘린다고 분석했다.

아홉째, 경상북도교육청(2024)의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은 소규모학교 협력 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확장하고 도시-농촌 교육격차를 완화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 문헌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학교 간 협력, 지역 연계,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 융합적·창의적 교육활동을 핵심 원리로 한 실천적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모델을 제안한다.

5.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가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소규모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교원 수급이 제한된 학교에서도 학교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과와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여 도시 학교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해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면 교육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공동체 결속도 향상된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인다. 공동 운영을 통해 교사들은 협력 수업과 공동 설계를 경험하며 전문성이 향상되고, 행정 부담이 줄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

중할 수 있다.

넷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구현하는 실천 모델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기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교육과정의 방향과 부합하며, 전국 확산 가능성도 크다.

다섯째, 소규모학교를 지역 교육공동체의 거점으로 인식하게 하여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잠재력을 실현하고, 학교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Ⅱ.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의 변화 연구

1. 경상북도 소규모학교 현황 및 관련 정책

경상북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농촌 인구 유출로 소규모 중학교(전교생 60명 이하)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율이 낮았으나, 2010년대 들어 중학생 수 감소로 급증하였다. 전국적으로 60명 이하 학교는 2001년 약 700교에서 2015년 2,030교로 세 배 늘었으며, 이는 농촌 출생률 저하와 도시 집중화의 결과다. 경북 역시 2019년 기준 전체 초·중·고 961교 중 47.6%가 소규모학교였다. 특히 2020년 경북 중학교 266교 중 137교(51.5%)가 교육부 통폐합 권고 기준 이하였으며, 전교생 60명 이하로 보면 약 40~45%가 해당된다. 2023년에는 약 120교로 추산된다. 아래 표는 경북 소규모 중학교 수의 시기별 변화를 보여준다.

<표 3> 경북의 소규모 중학교 현황

연도	경북 중학교 수 (전체)	전교생 ≤60명 중학교 수 (비율)	주요 동향 및 사건
2001년	약 280여 교 추정	50교 미만(17.8%)	농어촌 인구 감소 시작; 1980~90년대 통폐합 지속
2010년	약 270교	80~100교(29.6%)	저출산 가속화, 교원 정원 산정기준 변경으로 복식학급 증가
2015년	약 268교	120교 내외(44.7%)	전국 소규모학교 급증 (2015년 전국 2,030교)
2020년	266교	~130교(51.5%)	학령인구 절벽, 통폐합 기준 해당 중학교 137교 (51.5%)
2023년	262교(추정)	~120교(약 45%)	일부 학교 통폐합·학생 전입으로 소규모학교 수 소폭 감소

경북의 소규모 중학교는 2010년대 중반까지 증가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60명 이하가 되었다. 주요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로, 경북 출생아 수는 1970년대 연 10만 명 이상에서 2018년 3만 2천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농촌 고령화와 도시로의 학생 이동으로 면 단위 학교들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교원 정원 기준이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뀌며 교사 감축이 진행되어 복식학급 운영이 확산되고 교육 여건이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소규모학교의 교육 품질 문제가 부각되며 통폐합 논의가 가속되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증가세는 완화되었다. 일부 학교의 통폐합(예: 2019년 영천·울릉 지역 5교)과 함께, 2019년 도입된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로 학생 전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경북교육청은 학구를 확대해 주소 이전 없이 작은학교로 전입할 수 있게 했

고, 2019년 29개교(134명)에서 2020년 108개교(460명)로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일부 학교는 60명 이하에서 벗어났으며, 코로나19 이후 통폐합이 주춤하면서 2020년대 초반에는 소규모학교 수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다. 결국 출생률 저하와 인구 유출이 근본 원인이지만, 학생 유입 정책과 학교 통합 조치가 결합해 최근의 증감 추이가 결정되고 있다.

2. 중앙정부의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 흐름 (연도별 개관)

중앙정부 차원의 소규모학교 정책은 2000년대부터 통폐합 기조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해왔다. 다음은 주요 연도별 정책 동향의 개요이다.

<표 4> 중앙정부 차원의 소규모 학교 정책 흐름

시기	주요 정책 기조	핵심 내용 및 특징
2000년대 초반	농어촌 학교 통폐합 지속	학생 100명 미만 학교 통합·분교화, 경북만 700여 교 통폐합, 지원 미흡 → 교육격차 심화 시작
2010년 전후	구조조정·경쟁력 강화	교원 정원 축소(학생 수 기준), 복식학급 증가, 「통폐합 효과 분석」 연구 실시, ICT 원격수업 시범 도입(효과 제한적)
2013~2015년	교육 활성화 시도·통폐합 논의 병행	농어촌 지원 특별교부금 증액, 기숙형 중학교 대안 제시, 신설 억제·적정규모 기준 논의, 소규모학교 2,000교 돌파
2016년	적정규모 기준 마련(전환점)	교육부 권고기준 제시, 시·도별 자율 기준 허용(예: 전북 20명, 강원 15명, 전남 50명, 경북 60명), 일률적 강요 → 자율적 추진
2017~2019년	통폐합, 질적 지원 병행	작은 학교 교육력 제고, 공동교육과정 시범사업, ICT 인프라 구축 등 지원 확대, 극소규모학교는 여전히 통폐합·복식학급 운영
2020년 이후	“살리기” 중심 패러다임	디지털 교육·원격 공동수업·마을결합 교육과정 지원, AI 튜터·온라인 공동수업 확대(2023), 폐교 활용 및 거점학교 전환 논의, 초미니학교(10명 이하)는 조건부 통폐합 추진

가. 2000년대 초반: 농어촌 학교 통폐합 지속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농어촌 학교의 규모 적정화를 지속 추진했다. 1980년대 이후 학생 수 100명 미만 농촌학교를 인근 학교와 통합하거나 분교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이어졌다. 그러나 지역 반발과 교육 여건 악화 우려로 통폐합은 자율 희망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82년부터 2000년대까지 경북에서 약 700여 개 초·중·고가 통폐합되었고, 전국 농촌지역에서도 폐교가 늘었다. 당시 농산어촌 학교 지원은 부족해, 작은 학

교는 재정과 시설이 열악하고 교육격차 문제가 두드러졌다.

나. 2010년 전후: 구조조정·경쟁력 강화

2008~2012년 이명박 정부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했다. 2010년 교육부는 교원 수급 기준을 학생 수 중심으로 바꾸어 작은 학교의 교원 정원을 줄였고, 그 결과 복식학급이 늘고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같은 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을 실시해 통폐합의 비용·편익을 검토하며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 학생을 위해 ICT 기반 원격수업을 시범 도입했으나, 지원 규모가 작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 2013~2015년: 교육 활성화 시도·통폐합 논의 병행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이전 정부의 성과주의 기조에서 벗어나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 농어촌 학교 지원 특별교부금이 증액되고, 작은 학교 학생을 위한 기숙형 중학교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면서 신설학교 억제와 학교 적정규모 기준 마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전국 소규모학교 수는 꾸준히 늘어 2015년 2,000교를 넘어섰고,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게 되었다.

라. 2016년: 적정규모 기준 마련

2016년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 제정은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교육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급감에 대응해 시·도교육청에 통폐합 기준 상향안을 통보했다. 기존 기준(농어촌 초·중 60명 이하, 읍지역 초 120명·중 180명 이하, 도시 초 240명·중 300명 이하)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체 기준 수립을 허용했다. 이에 전북 20명 미만, 강원 15명 이하, 전남 50명 이하, 경북 60명 이하 등 차등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는 일률적 통폐합에서 벗어나 지역 자율에 맡긴 정책으로 평가된다.

마. 2017~2019년: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지원, 두 트랙 병행

문재인 정부는 농산어촌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중앙정부는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지역 협력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방안」(2021)을 통해 지원정책을 모색했고, 교육부도 교실 ICT 인프라 확충과 공동 교육과정 시범사업 등 여건 개선을 확대했다. 그러나 학생 수 10~20명대 극소규모학교는 여전히 통폐합이나 복식학급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결국 이 시기 정책은 통폐합 권고와 소규모

학교 지원이 병행된 구조였다.

바. 2020년 이후: “살리기” 중심 패러다임

소규모학교 정책은 최근 ‘살리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생 수 급감에 대응해 교육부는 2021년 이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교육·원격 공동수업·마을결합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AI 튜터와 온라인 공동수업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2022년부터는 폐교 활용과 작은학교 → 거점학교 전환 등 지역 소멸 대응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학생 수 10명 이하 초미니학교는 2024년부터 학부모 60% 이상 찬성 시 통폐합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정부는 일방적 통폐합에서 벗어나 규모 축소 시대에 맞는 학교 모델 개발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으로 정책을 전환했지만, 재정 한계로 소규모학교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 중학교 지원 정책 및 대응

경상북도교육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다양한 맞춤형 대응책을 모색해왔다. 변천을 주요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정책 흐름

시기	주요 정책 기조	핵심 내용 및 특징
2000년대	통폐합 중심	40여 년간 790교 통폐합, 버스 통학 지원·폐교 활용(문화센터 등) 모색, 별도 활성화 대책 미비
2010년 전후	미시적 지원 시도	농산어촌 혁신지구 참여, 기간제·순회교사 투입, 원격수업 시범 운영(제한적 효과)
2019년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도입	읍면지역 60명 이하 학교 지정, 전입학 허용(주소 이전 불필요), 2023년 135개교 운영, 학생 유치·과밀학급 해소 성과, 타시도 벤치마킹
2020년	강제 통폐합 지양 → 자율 지원	소규모학교를 혁신 주체로 규정 공동교육과정·원격수업·마을교육 연계 추진
2021~2022년	공동교육과정 시범	유·초·중 통합운영학교 연구, 중학교 연합교육과정(「따로 또 같이 학교」) 시범 도입,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2023년	공동교육과정 확대·지역연계	13개 팀·37개 중학교 참여, 원격 공동수업 본격화, 지역 주민 참여 방과후·동아리·스포츠클럽 지원, 농촌형 혁신학교 실험
2024~2025년	확산·미래형 모델 구축	자유학구제 지속 운영, 광역 연계 원격수업(전남과 협력), AI 학습보조 도입, 소인수 맞춤형 수업 확산, 단 10명 이하 학교는 조건부 통합·재편

가. 2000년대: 통폐합 중심

경북교육청은 중앙 정책에 따라 농어촌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며 1980년대 이후 약

790교를 통폐합했다. 이 시기에는 부실학교 정리와 학생 통학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폐교를 지역문화센터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지원이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없어, 작은 학교는 감소하는 학생 수 속에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

나. 2010년 전후: 미시적 지원 시도

2010년대 초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문제에 대응해 농산어촌 교육 혁신지구 사업 등에 참여하며 복식학급 해소를 추진했다. 기간제 교원 추가 배치와 순회 전담교사 투입으로 교과 미개설 문제를 보완하고, 2012년부터는 북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기반 원격수업을 도입해 교과 선택권을 넓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개별 학교 단위에 그쳐 체계적인 정책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다. 2019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도입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교육감 취임 후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2019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시행했다. 읍면 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또는 6학급 이하) 학교를 작은학교로 지정하고, 학구를 인근 큰 학교까지 확대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9년 초·중 43교에서 시작해 전입 100여 명을 유치했으며, 2020년 101교(460명), 2021년 179교로 확대됐다. 2023년에는 초 121교, 중 14교 등 135교가 운영 중이다. 이 정책은 과밀학급 해소와 농촌학교 학생 증가를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 일부 중학교는 도시 학생 전입으로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다만 기숙사 제공과 통학비 지원(전입생당 연 150만~450만 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 2023년부터는 도시 작은학교(동지역 9학급 이하)까지 확대해 도·농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경북형 자유학구제는 성과를 보여 전남·경기 등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생 수 증가와 만족도 제고 효과가 보고되었다.

라. 2020년: 강제 통폐합 지양 → 자율 지원

2020년 경북에서는 통폐합 대상학교가 전체의 48.1%에 달했으나, 학부모 동의를 얻은 학교는 없었다. 경북교육청은 강제 통폐합 대신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로 방향을 전환해, 소규모학교를 ‘교육 혁신의 주체’로 규정하고 자발적 희망이 없는 한 폐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2020년 수립된 활성화 대책에서 교육과정 공동 운영, 원격수업 지원, 마을교육 연계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 15명 이하 초미니학교는 학부모 협의로 통합 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신규 교사 발령도 정상적으로 유지했다.

마. 2021~2022년: 교육과정 공동 운영 시범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러 학교가 하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2021년 영덕 지품초·지품중을 정책연구학교로 지정해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실험했고, 이를 토대로 「따로 또 같이 학교」 모델을 구체화했다. 2022년부터는 인근 2~4개 중학교가 교과·자유학기·창체 활동을 공동 운영하는 연합교육과정을 시범 적용했다. 초기엔 비교과 중심이었으나, 주요 교과까지 확대 중이며, 이를 위해 원격수업 인프라와 교사 공동계획 시간을 지원했다.

바. 2023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확대·지역 연계

「따로 또 같이 학교」는 2023년 12개 지역 13개 팀, 37개 중학교로 확대되었다. 실시간 원격 공동수업으로 과목 개설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 기회를 넓혔다. 학생들은 온라인 교실에서 협동학습을 하며, 교사들은 대면·원격을 병행하는 혼합형 수업을 운영했다. 경북교육청은 지역사회 연계 사업도 추진해 마을 단위 방과후·동아리 활동, 학교 간 스포츠클럽 교류전 등을 지원했다. 또한 유·초·중 통합운영학교, 초중 연계 모델 등 혁신학교 형태를 실험하며 ‘작고 강한 학교’ 구축을 지향했다.

사. 2024~2025년: 확산·미래형 모델 구축

2024년 이후 경북교육청은 자유학기제를 유지·조정하고, 공동 운영팀을 확대해 전남 등 타 시도와 광역 원격수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3월에는 경북·전남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차 원격수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소인수 학급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수업 확산, 교사 연수, AI 학습 보조 시스템 도입으로 농어촌 학생에게 도시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반면 학생 수 10명 이하 학교는 학부모 동의 시 통합 또는 거점학교로 전환 가능하다. 결국 경북교육청은 “가능한 학교는 살리고, 어려운 학교는 묶는다”는 투트랙 방식을 유지하며, 향후 학령인구 추이에 따라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4. 시사점

본 분석은 경상북도 소규모 중학교의 현황 변화와 정책 대응을 살펴본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2025년까지 경북의 소규모 중학교는 학령인구 급감의 영향으로 급증해 현재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그 배경에는 농촌 인구소멸과 교육 여건 악화가 있다. 중앙 정부는 초기 통폐합 중심에서 최근에는 교육력 강화와 학생 유입 지원으로 방향을 전

환했으며, 경북교육청도 자유학구제·공동 교육과정·원격수업 인프라 등으로 소규모학교를 지역 교육의 거점으로 재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일부 학교는 학생 수가 늘고 폐교 없이 유지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소규모 중학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학생 전입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따로 또 같이 학교」 모델은 농촌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협력과 기술을 통해 소규모학교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학생 수 5~10명 이하의 극소학교는 여전히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어렵고, 지역사회는 학교 존속과 교육의 질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거점중학교 설립, 분교 통합, 통학 지원 강화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거점학교 모델 연구를 시작했고, 중앙정부도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KEDI, KOSIS, 교육청 통계를 활용해 전국 단위로 소규모학교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 맞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북의 사례는 학교 간 연대와 개방성, 지역사회 협력, 디지털 기술 활용이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향이 지속된다면 소규모 중학교도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설문 조사

1. 설문 개요

가. 설문조사 목적

- 1) 경상북도 소규모 중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
- 2) 효율적인 경상북도 소규모 중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방안 마련

나. 설문 내용

- 1) 교직원용: 32문항(배경 질문 8문항 포함)
- 2) 학부모용: 23문항(배경 질문 5문항 포함)
- 3) 학생용: 23문항(배경 질문 5문항 포함)

<표 6> 설문 문항 구성

주제	내용		
	교직원	학부모	학생
응답자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대, 학교급, 학교 소재지, 교직 경력, 전체 학급 수, 전체 학생 수, 담당 직무, 소규모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학교급, 학교 소재지, 전체 학급 수, 전체 학생 수 	
교육 여건 및 업무[학교] 환경			
교육 여건 및 업무 환경 (교과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임 여부, 겸임(순회) 여부, 주당 겸임(순회) 일수, 주당 겸임(순회) 시수, 담당 수업 학년 수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인지도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인지도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참여도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장점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학교 근무·재학 경험 여부 또는 진학 예정 여부 ■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만족하는 정도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만족스러운 부분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 ■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과목 		
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통폐합의 장점 ■ 학교 통폐합의 단점 ■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중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의견 		

다. 설문 대상: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근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라. 설문 기간: 2025. 7. 14.(월) ~ 9. 1.(월) [50일간]

마. 설문 방법: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2. 응답 현황 및 분석

가. 교직원

1) 응답자 일반 현황 및 교육 여건 및 업무 환경 (공통)

<표 7> 응답자 일반 현황(공통, 교직원) (조사)

문항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297	38.1
	여성	483	61.9
연령	10대 이하	0	0.0
	20대	74	9.5
	30대	197	25.3
	40대	230	29.5
	50대	224	28.7
	60대 이상	55	7.1
소속 학교급	초등학교	274	35.1
	중학교	370	47.4
	고등학교	136	17.4
학교 소재지	도시 지역	248	31.8
	읍면 지역(농산어촌 포함)	531	68.1
	기타	1	0.1
교직 경력	5년 미만	142	18.2
	5년 이상 10년 미만	111	14.2
	10년 이상 15년 미만	101	13.0
	15년 이상 20년 미만	102	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126	16.2
	25년 이상	198	25.4

<표 8> 교육 여건 및 업무 환경(공통, 교직원)(조사)

문항		사례수	비율(%)
학급 수	3학급 이하	155	19.9
	4~6학급	214	27.4
	7~12학급	140	18.0
	13~24학급	155	19.9
	25학급 이상	116	14.9
학생 수	15명 이하	62	8.0
	16~60명	241	30.9
	61~120명	73	9.4
	121~240명	115	14.7
	241명 이상	289	37.1
담당 업무	관리직	93	11.9
	교과 교사	602	77.2
	보건 교사	21	2.7
	영양 교사	10	1.3
	교육행정직	13	1.7
	기타	41	5.3

연령은 40대 29.5%(230명)가 가장 많았고, 50대 28.7%(224명), 30대 25.3%(197명), 20대 9.5%(74명), 60대 이상 7.1%(55명) 순이었다. 학교급은 중학교 47.4%(370명), 초등학교 35.1%(274명), 고등학교 17.4%(136명)였다. 학교 소재지는 읍·면 지역이

68.1%(531명)로 가장 많았고, 도시 지역은 31.8%(248명)였다. 교직 경력은 25년 이상이 25.4%(198명)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 18.2%(142명), 20~25년 미만 16.2%(126명), 5~10년 미만 14.2%(111명), 15~20년 미만 13.1%(102명), 10~15년 미만 13.0%(101명) 순이었다.

소속 학교 현황을 보면, 학급 수는 4~6학급이 27.4%(214명)로 가장 많았고, 3학급 이하와 13~24학급이 각각 19.9%(155명), 7~12학급 18.0%(140명), 25학급 이상 14.9%(116명) 순이었다. 학생 수는 241명 이상이 37.1%(289명)로 가장 많았으며, 16~60명 30.9%(241명), 121~240명 14.7%(115명), 61~120명 9.4%(73명), 15명 이하 8.0%(62명)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 직무는 교과 교사 77.2%(602명)가 가장 많았고, 관리직 11.9%(93명), 기타 5.3%(41명), 보건 교사 2.7%(21명), 교육행정직 1.7%(13명), 영양 교사 1.3%(10명) 순이었다.

2) 교육 여건 및 업무 환경 (교과 교사)

<표 9> 교육 여건 및 업무 환경 (교과 교사)(좌)

문항		사례수	비율(%)
담임 여부	예	280	46.5
	아니오	322	53.5
겸임 여부	예	121	20.1
	아니오	481	79.9
겸임 일수	주 1일	49	40.5
	주 2일	52	43.0
	주 3일	12	9.9
	주 4일 이상	8	6.6
겸임 시수	주 1~2시간	21	17.4
	주 3~4시간	52	43.0
	주 5~6시간	22	18.2
	주 7시간 이상	26	21.5
수업 학년 수	1개 학년	200	33.2
	2개 학년	179	29.7
	3개 학년	153	25.4
	4개 학년 이상	70	11.6

교과 교사 602명의 교육 여건과 업무 환경을 분석한 결과, 담임 여부는 ‘아니오’ 53.5%(322명), ‘예’ 46.5%(280명)였다. 겸임(순회) 여부는 ‘아니오’ 79.9%(481명), ‘예’ 20.1%(121명)로, 겸임 교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겸임 교사 121명의 주당 순회일수는 주 1일 40.5%(49명), 주 2일 43.0%(52명), 주 3일 9.9%(12명), 주 4일 이상 6.6%(8명)였다. 주당 순회 시수는 3~4시간 43.0%(52명)로 가장 많았고, 7시간 이상 21.5%(26명), 5~6시간 18.2%(22명), 1~2시간 17.4%(21명) 순이었다. 담당 학년 수는 1개 학년 33.2%(200명), 2개 학년

29.7%(179명), 3개 학년 25.4%(153명), 4개 학년 이상 11.6%(70명)로 나타났다.

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인식

<표 1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 (공통, 교직원)(조사)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	다 과목·다 학년 수업, 상치 수업, 복식학급 수업	253	32.4
	평가 문항 출제 부담 (학기당 많게는 200문항 출제)	71	9.1
	적은 학생 수로 인한 모둠·협동 수업 등의 어려움	85	10.9
	교사별 담당업무의 종류와 양의 과다	352	45.1
	기타 의견	19	2.4

전체 교직원 응답에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교사별 업무 과중’이 45.1%(35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과목·다학년·복식학급 수업’ 32.4%(253명),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토론수업 등 어려움’ 10.9%(85명), ‘평가 문항 출제 부담’ 9.1%(71명), 기타 2.4%(19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모든 항목이 해당됨(5명), 과도한 점임 시수(4명),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2명), 잦은 출장으로 인한 수업 교체(1명), 교사 티오 축소로 인한 교과 공백(1명), 특정 교과 부재로 인한 진학 지도 어려움(1명) 등이 있었다.

<표 11>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이해 기술통계표 (조사 , 공통, 교직원)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4.03	2.05

전체 교직원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7점 척도 질문에 대해 평균은 4.03점(표준편차 2.05)으로 응답자들이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인지도 및 참여도 (공통, 교직원)(조사)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알고 있는 행사 수	0개	153	19.6
	1~2개	237	30.4
	3~4개	180	23.1
	5~6개	96	12.3
	7개 모두	114	14.6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참여한 행사 수	0개	407	52.2
	1~2개	201	25.8
	3~4개	115	14.7
	5~6개	33	4.2
	7개 모두	24	3.1

전체 교직원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에 관한

인지도 및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합 스포츠 한마당(체육대회)
- 연합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축제)
- 연합 영어 캠프
- 연합 스포츠 체험활동(야구 관람 등)
- 연합 진로 체험학습(부산국립과학관 관람, 딸기농장 체험 등)
- 연합 예술 문화 체험활동(간송미술관, 숲속 작은 음악회, 오페라 관람 등)
- 교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교과 연계 백일장 등)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인지 여부를 보면, 알고 있는 행사 수는 1~2개가 30.4%(237명)로 가장 많았고, 3~4개 23.1%(180명), 0개 19.6%(153명), 7개 모두 14.6%(114명), 5~6개 12.3%(96명) 순이었다.

참여한 행사 수는 0개가 52.2%(407명)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1~2개 25.8%(201명), 3~4개 14.7%(115명), 5~6개 4.2%(33명), 7개 모두 3.1%(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기술통계표 (조사 , 공통, 교직원)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4.56	1.72

전체 교직원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은 4.56점(표준편차 1.72)으로 나타났다. 이는 7점 척도에서 응답자들이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교육적으로 보통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4>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 (조사 , 공통, 교직원)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의 가장 큰 장점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	222	28.5
	학생 교류망의 확대	211	27.1
	교사 상치,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96	12.3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235	30.1
	기타 의견	16	2.1

전체 교직원 응답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근거리 통학 보장 등)’이 30.1%(23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에 따른 학습 효과 증진(토론·체험·프로젝트 수업 등)’ 28.5%(222명), ‘학생 교류망 확대(타학교 교류를 통한 사회성 함양)’ 27.1%(211명), ‘교사 상치 및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12.3%(96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은 2.1%(16명)으로, ‘장점이 없다’, ‘교사 업무 경감 효과 미흡’, ‘행사 운영 가능’ 등의 응답이 있었다.

4)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표 15>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 여부 (표 , 공통, 교직원)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 여부	예	523	67.1
	아니오	257	33.0

전체 교직원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직원은 67.1%(523명)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직원은 33.0%(257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16>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기술통계표 (표 ;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자, 교직원)

문항	평균	표준편차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4.44	1.73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은 4.44점(표준편차 1.73)으로 나타났다. 이는 7점 척도에서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응답자 간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17>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만족/불만족 (표 ;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자, 교직원)

문항		사례수	비율(%)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 체험활동	149	28.5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과 수업	116	22.2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생활 지도	58	11.1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학생별 실습, 실험 기회 최대 제공	161	30.8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32	6.1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기타 의견	7	1.3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37	7.1
	한정된 수업 방법	73	14.0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한정된 교우 관계	124	23.7
	교사의 겸임 시수 증가 및 담당 업무의 종류와 양 부담	239	45.7
	불균등한 교육 기회 (장거리 통학 등)	14	2.7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24	4.6
	기타 의견	12	2.3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교육과정의 만족·불만족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 요인으로는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학생별 실습·실험 기회 확대’가 30.8%(161명)로 가장 많았고, ‘현장체험 및 진로활동’ 28.5%(149명), ‘맞춤형 개별 수업’ 22.2%(116명), ‘심리상담·생활지도’ 11.1%(58명) 순이었다. 만족 없음은 6.1%(32명)였다. 불만 요인은 ‘교사의 겸임 시수 증가와 업무 부담’이 45.7%(239명)로 가장 많았으며,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한정된 교우 관계’ 23.7%(124명), ‘한정된 수업

방법’ 14.0%(73명),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7.1%(37명), ‘불만 없음’ 4.6%(24명) 순이었다. 기타로는 교과 교사 부족, 학생 성취 의욕 저하, 통제할 불안, 다문화·특수반 지도 어려움 등이 제시되었다.

<표 18>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한 불만족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 (조사 ;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자 중 불만족 응답자, 교직원)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한 불만족 개선	4.14	1.81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교직원 중 ‘불만족이 있다’고 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한 불만족 개선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4.14점(표준편차 1.81)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 기준 보통(4점)보다 약간 높아, 공동 운영 확대가 일정 부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교직원이 많았다. 다만 표준편차가 커(1.81) 의견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

<표 1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 (조사 ;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자, 교직원)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에 대한 인식	4.61	1.70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4.61점(표준편차 1.70)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 기준 보통(4점)보다 높아, 교직원들은 전반적으로 공동 운영 확대 필요성에 긍정적이었다. 다만 불만족 요인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긍정적” 수준으로, 일부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결국 교직원들은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개선 효과에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확대 방향 및 확대 과목 (조사 ;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자, 교직원)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확대 방향	학교 간 공동 교과 교육과정 운영 (이웃 학교 방문)	96	18.46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227	43.4
	지역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94	18.0
	마을교사 활용 교육과정 공동 운영	31	5.9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75	14.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과목

구분	국어	영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음악	미술	체육	한문	진로와 직업	기타 교양 과목
사례수	46	37	29	8	5	34	30	9	15	22	9	166	3	84	26
비율(%)	8.8	7.1	5.5	1.5	1.0	6.5	5.7	1.7	2.9	4.2	1.7	31.7	0.6	16.1	5.0

소규모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과

과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확대 방향으로는 ‘학교 간 창의적 체험활동 공동 운영(연합행사, 체험학습 등)’이 43.4%(22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과 공동 운영’ 18.4%(96명), ‘지역 연계 교육과정’ 18.0%(94명),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14.3%(75명), ‘마을교사 활용’ 5.9%(31명) 순이었다.

확대 과목으로는 ‘체육’이 31.7%(16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진로와 직업’ 16.1%(84명), ‘국어’ 8.8%(46명), ‘영어’ 7.1%(37명), ‘수학’ 6.5%(34명), ‘과학’ 5.7%(30명), ‘사회’ 5.5%(29명), ‘음악’ 4.2%(22명) 순이었다. 기타로는 ‘심리·상담’, ‘외국어’, ‘명상’ 등이 있었다.

6) 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

<표 21>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 (조사대상: 일반교사, 공통, 교직원)

문항		사례수	비율(%)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	관내 학생을 2~3개의 거점 학교에서 관리 가능	122	15.6
	학교급 확대 및 이에 따른 학습 효과 증진	126	16.2
	수업 규모 확대로 모둠, 협동, 토의·토론 수업 등 운영 가능	114	14.6
	폐교된 학교를 지역의 문화·체육·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운영 가능	43	5.5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156	20.0
	다 학년·상차·복식 수업 등 해소 및 교사별 담당업무의 종류와 양 경감	174	22.3
	기타 의견	45	5.8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단점	지역사회 소멸 가속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박탈	604	77.4
	맞춤형 교육 기회 최소화	44	5.6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체험활동 횟수 감소	19	2.4
	체험활동 운영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13	1.7
	교사의 인사이동 지역 협소화 및 교육공무원 고용 불안	88	11.3
	기타 의견	12	1.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의 장단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점으로는 ‘복식수업 해소 및 교사 업무 경감’이 22.3%(17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20.0%(156명), ‘학교급 확대에 따른 학습 효과 증진’ 16.2%(126명), ‘거점학교를 통한 학생 관리 용이’ 15.6%(122명), ‘수업 규모 확대에 따른 협동·토의 수업 가능’ 14.6%(114명), ‘폐교 시설의 지역 활용’ 5.5%(43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은 5.8%(45명)로 ‘장점이 없다’ 등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지역사회 소멸 및 교육기회 불균등’이 77.4%(604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교사 인사이동 및 고용 불안’ 11.3%(88명),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축소’ 5.6%(44명), ‘체험학습 감소’ 2.4%(19명), ‘학부모 부담 증가’ 1.7%(13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은 1.5%(12명)로, ‘큰 학교 부적응 학생 문제’ 등이 포함됐다.

종합하면, 교직원들은 통폐합의 장점으로 업무 경감과 운영 효율성을 인식했지만, 지

역 공동체 붕괴와 교육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훨씬 컸다.

<표 22>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 (조사대상: , 공통, 교직원)

문항	평균	표준편차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중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4.68	2.03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한 소규모학교의 거점 학교로의 통폐합 필요성	4.37	2.10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중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4.68점(표준편차 2.03)으로 보통(4점)보다 높았다. 교직원들은 전반적으로 공동 운영 확대가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으나, 의견 차이도 컸다.

또한 ‘소규모학교의 거점학교 통폐합 필요성’에 대한 평균은 4.37점(표준편차 2.10)으로, 통폐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약간 우세했다. 다만 표준편차가 커 찬반이 크게 갈렸다.

즉, 교직원들은 교육적으로는 공동 운영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평균 4.68점), 통폐합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평균 4.37점).

나. 학부모

1) 응답자 일반 현황

<표 23> 응답자 일반 현황 (조사대상: , 학부모)

문항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138	12.2
	여성	995	87.8
학교급	초등학교	379	33.5
	중학교	682	60.2
	고등학교	72	6.4
학교 소재지	도시 지역	547	48.3
	읍면 지역(농산어촌 포함)	551	48.6
	기타	35	3.1

전체 학부모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 학교 소재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87.8%(99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성은 12.2%(138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은 중학교가 60.2%(682명)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가 33.5%(379명), 고등학교가 6.4%(7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소재지는 읍면 지역(농산어촌 포함)이 48.6%(551명), 도시 지역이 48.3%(547명)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기타는 3.1%(35명)으로 나타났다.

2) 교육 여건 및 학교 환경

<표 24> 교육 여건 및 학교 환경 (좌 ; 공통, 학부모)

문항		사례수	비율(%)	문항	사례수	비율(%)
전체 학급 수	3학급 이하	219	19.3	13~24학급	156	13.8
	4~6학급	325	28.7	25학급 이상	127	11.2
	7~12학급	306	27.0			
전체 학생 수	15명 이하	40	3.5	121~240명	248	21.9
	16~60명	189	16.7	241명 이상	522	46.1
	61~120명	134	11.8			

전체 학부모 응답자의 학교 전체 학급 수, 전체 학생 수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학급 수는 4~6학급이 28.7%(325명)로 가장 많았고, 7~12학급이 27.0%(306명), 3학급 이하가 19.3%(219명), 13~24학급이 13.8%(156명), 25학급 이상이 11.2%(1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수는 241명 이상이 46.1%(5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1~240명이 21.9%(248명), 16~60명이 16.7%(189명), 61~120명이 11.8%(134명), 15명 이하가 3.5%(4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인식

<표 25>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기술통계표 (좌 ; 공통, 학부모)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2.57	1.85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2.57점(표준편차 1.85)으로 나타났다. 이는 7점 척도 기준 보통(4점)보다 낮아, 학부모들이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잘 모른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표준편차가 커 응답자 간 인식 차이도 있었다.

교직원은 평균 4.03점으로 보통 수준의 이해를 보였으나, 학부모는 2.57점으로 크게 낮아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났다.

<표 26>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인지도 및 참여도(좌 ; 공통, 학부모)

문항		사례수	비율(%)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알고 있는 행사 수	0개	392	34.6	5~6개	78	6.9
	1~2개	336	29.7	7개 모두	65	5.7
	3~4개	262	23.1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참여한 행사 수	0개	650	57.4	5~6개	29	2.6
	1~2개	296	26.1	7개 모두	25	2.2
	3~4개	133	11.7			

전체 학부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에 관한 인지도 및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합 스포츠 한마당(체육대회)
- 연합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축제)
- 연합 영어 캠프
- 연합 스포츠 체험활동(야구 관람 등)
- 연합 진로 체험학습(부산국립과학관 관람, 딸기농장 체험 등)
- 연합 예술 문화 체험활동(대구 간송미술관, 숲속 작은 음악회, 오페라 관람 등)
- 교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교과 연계 백일장 등)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알고 있는 행사 수는 ‘0개’가 34.6%(3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개’ 29.7%(336명), ‘3~4개’ 23.1%(262명), ‘5~6개’ 6.9%(78명), ‘7개 모두’ 5.7%(65명) 순이었다. 즉, 다수의 학부모가 공동 운영 행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참여한 행사 수는 ‘0개’가 57.4%(650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은 ‘1~2개’ 26.1%(296명), ‘3~4개’ 11.7%(133명), ‘5~6개’ 2.6%(29명), ‘7개 모두’ 2.2%(25명) 순이었다. 이는 상당수 학부모가 실제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 27>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기술통계표 (표 '1', 공통, 학부모)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4.70	1.88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4.70점(표준편차 1.88)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 기준 보통(4점)보다 높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표준편차가 커 응답자 간 인식 차이는 존재했다. 교직원과 비교하면, 학부모(평균 4.70점)는 교직원(평균 4.56점)보다 다소 높게 평가했으며, 표준편차(1.88)가 더 커 의견 분산도 큰 편이었다. 요약하면, 학부모는 교직원보다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실효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내부 의견 차이도 더 다양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8>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 (표 '1', 공통, 학부모)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	560	49.4
학생 교류망의 확대	208	18.4
교사 상치,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65	5.7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근거리 통학 보장 등)	270	23.8
기타 의견	30	2.6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인한 학습 효과 증진(토론 수업, 체육 단체 종목 가능 등)’이 49.4%(56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근거리 통학 보장 등)’ 23.8%(270명), ‘타학교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함양' 18.4%(208명), '교사 상치 및 시수 경감으로 인한 교육 질 향상' 5.7%(65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은 2.6%(30명)으로, '모르겠음', '장점이 없음' 등이 있었다.

<표 2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 비교 (교직원-학부모, 공통)

구분	교직원 (공통)	학부모 (공통)
1순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30.1%)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 (49.4%)
2순위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 (28.5%)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23.8%)
3순위	학생 교류망의 확대 (27.1%)	학생 교류망의 확대 (18.4%)
4순위	교사 상치,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12.3%)	교사 상치,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5.7%)
5순위	기타 의견 (2.1%)	기타 의견 (2.6%)

교직원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교직원은 1순위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근거리 통학 보장 등)' 30.1%(235명), 2순위가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토론·체험·프로젝트 수업 등)' 28.5%(222명)이고, 학부모는 1순위가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토론 수업, 체육 단체 종목 가능 등)' 49.4%(560명)', 2순위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근거리 통학 보장 등)' 23.8%(270명)이었다. 즉, 교직원은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장점을 제도적·지역적 효과(통폐합 방지·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부분에서, 학부모는 교육적·학습 효과(수업 방법 다양화·학습 효과 증진) 부분에서 가장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4)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표 30> 자녀의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 또는 진학 예정 여부 (좌 '예'; 공통, 학부모)

문항		사례수	비율(%)
자녀의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 또는 진학 예정 여부	예	426	37.6
	아니오	707	62.4

분석 결과,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4%(707명)로 가장 많았으며,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37.6%(426명)으로 나타나 응답자 중 다수의 자녀가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이나 진학 예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기술통계표 (조사 대상자, 자녀가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진학 예정자, 학부모)

문항	평균	표준편차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4.83	1.72

자녀가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이 있거나 진학 예정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은 4.83점(표준편차 1.72)으로 나타났다. 이는 7점 척도에서 학부모들이 전반적으로 보통(4점)보다 분명히 높은 수준에서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을 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1.72로 나타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32>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비교 (교직원-학부모, 소규모)

구분	교직원		학부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4.44	1.73	4.83	1.72

교직원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보통보다 높은 수준에서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학부모(4.83점)가 교직원(4.44점)보다 높아,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현재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불만족스러운 부분 (조사 대상자, 자녀가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진학 예정자, 학부모)

문항	사례수	비율(%)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 체험활동	215	50.5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과 수업	42	9.9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생활 지도	30	7.0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학생별 실습, 실험 기회 최대 제공	85	20.0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45	10.6
기타 의견	9	2.1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103	24.2
	한정된 수업 방법	54	12.7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한정된 교우 관계	130	30.5
	불균등한 교육 기회 (장거리 통학 등)	27	6.3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101	23.7
기타 의견	11	2.6	

만족 요인으로는 ‘다양한 현장체험 및 진로활동’이 50.5%(215명)로 가장 많았고, ‘소인수 학급으로 인한 실습·실험 기회 확대’ 20.0%(85명), ‘학생 맞춤형 수업’ 9.9%(42명), ‘심리 상담 및 생활지도’ 7.0%(30명), ‘만족 없음’ 10.6%(45명) 순이었다. 기타 의

견(2.1%)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적다” 등이 포함되었다. 불만 요인으로는 ‘한정된 교우 관계’ 30.5%(130명)가 가장 많았으며, ‘제한된 교육·활동 프로그램’ 24.2%(103명), ‘불만 없음’ 23.7%(101명), ‘제한된 수업 방법’ 12.7%(54명), ‘불균등한 교육기회’ 6.3%(27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2.6%)으로는 “교사 책임감 부족”, “프로그램 노후화”, “겸임 교사 과다” 등이 있었다. 종합하면 학부모들은 체험 중심 활동과 소인수 수업에는 만족하지만, 교우 관계 제한과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을 주요 불만으로 인식했다.

<표 34>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비교 (교직원-학부모, 소규모)

구분	교직원 (소규모학교)	학부모 (소규모학교)
만족 1순위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학생별 실습, 실험 기회 최대 제공 (30.8%)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 체험활동 (50.5%)
만족 2순위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 체험활동 (28.5%)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학생별 실습, 실험 기회 최대 제공 (20.0%)
만족 3순위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과 수업 (22.2%)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10.6%)
만족 4순위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생활지도 (11.1%)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과 수업 (9.9%)
만족 5순위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6.1%)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생활지도 (7.0%)
만족 6순위	기타 의견 (1.3%)	기타 의견 (2.1%)

교직원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교직원은 만족 요인으로 교육 운영 여건을, 학부모는 체험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현장체험학습·진로 체험활동, 개별화 교육 등을 만족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부모는 ‘만족스러운 부분 없음’ 응답이 10.6%로 교직원 (6.1%)보다 많아, 일부는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도 확인된다.

<표 35>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비교 (교직원-학부모, 소규모)

구분	교직원 (소규모학교)	학부모 (소규모학교)
불만족 1순위	교사의 겸임(순회) 시수 증가 및 담당 업무의 종류와 양 부담 (45.7%)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한정된 교우 관계 (30.5%)
불만족 2순위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한정된 교우 관계 (23.7%)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동아리 등 선택 불가) (24.2%)
불만족 3순위	한정된 수업 방법 (토의·토론 수업, 체육 단체 종목, 밴드 합주 수업 등 운영 불가) (14.0%)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23.7%)
불만족 4순위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동아리 등 선택 불가) (7.1%)	한정된 수업 방법 (토의·토론 수업, 체육 단체 종목, 밴드 합주 수업 등 운영 불가) (12.7%)
불만족 5순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4.6%)	불균등한 교육 기회 (장거리 통학 등) (6.3%)
불만족 6순위	불균등한 교육 기회 (장거리 통학 등) (2.7%)	기타 의견 (2.6%)
불만족 7순위	기타 의견 (2.3%)	.

교직원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교직원은 불만족 요인으로 업무 부담을, 학부모는 교우 관계를 핵심 문제로 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한정된 수업 방법’과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응답이 23.7%로 교직원(4.6%)보다 훨씬 높아, 전반적으로 교직원보다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6>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한 불만족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 (조사 대상, 자녀가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진학 예정자 중 불만족 응답자, 학부모)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운영 확대를 통한 불만족 개선	4.49	1.81

소규모학교에 자녀가 다니거나 진학 예정인 학부모 중 ‘불만족이 있다’고 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가 불만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은 4.49점(표준편차 1.81)이었다. 7점 척도 기준 보통(4점)보다 높아,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표준편차가 커 의견 차이도 존재했다.

교직원과 비교하면 교직원 평균 4.14점(표준편차 1.81)보다 학부모(4.49점)가 다소 높았다. 두 집단 모두 보통 이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가 불만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며,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5)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

<표 37>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 (조사 대상, 자녀가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진학 예정자, 학부모)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에 대한 인식	5.38	1.68

소규모학교에 자녀가 다니거나 진학 예정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5.38점(표준편차 1.68)이었다. 7점 척도 기준 보통(4점)보다 높아, 학부모들이 전반적으로 확대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준편차가 다소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교직원과 비교하면 교직원 평균 4.61점(표준편차 1.70)보다 학부모 평균 5.38점이 확연히 높았다. 즉, 두 집단 모두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 38>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확대 방향 및 확대 과목 (조사 대상자, 자녀가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진학 예정자, 학부모)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	학교 간 공동 교과 교육과정 운영	48	11.3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175	41.1
	지역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56	13.2
	마을교사 활용 교육과정 공동 운영	25	5.9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122	28.6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과목	국어	20	4.7
	영어	114	26.8
	사회	5	1.2
	역사	14	3.3
	도덕	9	2.1
	수학	36	8.5
	과학	12	2.8
	기술·가정	8	1.9
	정보	12	2.8
	음악	12	2.8
	미술	2	0.5
	체육	39	9.1
	한문	6	1.4
진로와 직업	112	26.3	
기타 교양과목	25	5.9	

소규모학교에 자녀가 다니거나 진학 예정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과 과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확대 방향으로는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41.1%(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28.6%(122명),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13.2%(56명), ‘학교 간 공동 교과 운영’ 11.3%(48명), ‘마을교사 활용’ 5.9%(25명) 순이었다.

확대 희망 과목은 ‘영어’ 26.8%(114명), ‘진로와 직업’ 26.3%(112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체육’ 9.1%(39명), ‘수학’ 8.5%(36명), ‘국어’ 4.7%(20명), ‘과학·정보·음악’ 각 2.8%(12명), ‘도덕’ 2.1%(9명), ‘기술·가정’ 1.9%(8명), ‘사회’ 1.2%(5명), ‘미술’ 0.5%(2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성교육, 모든 과목 등이 제시되었다.

<표 3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 비교 (교직원-학부모, 소규모)

구분	교직원 (소규모학교)	학부모 (소규모학교)
1순위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43.4%)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41.1%)
2순위	학교 간 공동 교과 교육과정 운영 (18.4%)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28.6%)
3순위	지역 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18.0%)	지역 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13.2%)
4순위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14.3%)	학교 간 공동 교과 교육과정 운영 (11.3%)
5순위	마을교사 활용 교육과정 공동 운영 (5.9%)	마을교사 활용 교육과정 공동 운영 (5.9%)

교직원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으로 교직원

과 학부모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교직원도 교육과정 운영을 중시하는 반면 학부모는 학습센터 운영과 같은 인프라적 접근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4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과목 비교 (교직원-학부모, 소규모)

구분	교직원 (소규모학교)	학부모 (소규모학교)
1순위	체육 (31.7%)	영어 (26.8%)
2순위	진로와 직업 (16.1%)	진로와 직업 (26.3%)
3순위	국어 (8.8%)	체육 (9.1%)
4순위	영어 (7.1%)	수학 (8.5%)
5순위	수학 (6.5%)	기타 교양과목 (5.9%)

교직원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과목으로 교직원은 체육(31.7%)을 압도적으로 1순위로 꼽은 반면, 학부모는 영어(26.8%)와 진로와 직업(26.3%)을 거의 비슷하게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공통적으로 진로와 직업은 교직원과 학부모 응답 모두에서 최상위권에 포함되었다.

6) 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

<표 41>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 (표 ' ', 공통, 학부모)

문항		사례수	비율(%)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	관내 학생을 2~3개의 거점 학교에서 관리 가능	116	10.2
	학교급 확대 및 이에 따른 학습 효과 증진	226	19.9
	수업 규모 확대로 모둠, 협동, 토의·토론 수업 등 운영 가능	276	24.4
	폐교된 학교를 지역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으로 운영 가능	217	19.2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190	16.8
	다 학년·상차·복식 수업 등 해소 및 교사별 담당업무의 종류와 양 경감	68	6.0
	기타 의견	40	3.5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단점	지역사회 소멸 가속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박탈	719	63.5
	맞춤형 교육 기회 최소화	161	14.2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체험활동 횟수 감소	143	12.6
	체험활동 운영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85	7.5
	기타 의견	25	2.2

학교 통폐합의 주요 장점으로는 ‘수업 규모 확대에 따른 협동·토의수업 가능’이 24.4%(27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급 확대 및 학습 효과 증진’ 19.9%(226명), ‘폐교의 지역 문화·체육·복지시설 활용’ 19.2%(217명), ‘교육재정 효율화’ 16.8%(190명),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학생 관리 용이’ 10.2%(116명), ‘교사 업무 경감 및 수업 질 향상’ 6.0%(68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 3.5%(40명)에는 ‘장점이 없다’, ‘통폐합 반대’ 등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지역사회 소멸 및 교육기회 불균등’이 63.5%(719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맞춤형 교육기회 축소’ 14.2%(161명), ‘현장·진로체험 감소’ 12.6%(143명), ‘학부모 경제 부담 증가’ 7.5%(85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 2.2%(25명)에는 ‘수업 분위기 저하’, ‘원거리 통학 부담’ 등이 포함됐다.

종합하면, 학부모들은 수업 규모 확대와 학습 효과 증진 등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지역공동체 약화와 교육 형평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나타냈다. 이는 통합 폐합 정책 추진 시 지역 유지와 교육 기회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42> 학교 통합폐합의 가장 큰 장점 비교 (교직원-학부모, 공통)

구분	교직원 (공통)	학부모 (공통)
장점 1순위	다 학년·상차·복식 수업 등 해소 및 교사별 담당업무의 종류와 양 경감 (22.3%)	수업 규모 확대로 모둠, 협동, 토의·토론 수업 등 운영 가능 (24.4%)
장점 2순위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20.0%)	학교급 확대 및 이에 따른 학습 효과 증진 (19.9%)
장점 3순위	학교급 확대 및 이에 따른 학습 효과 증진 (16.2%)	폐교된 학교를 지역의 문화체육·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운영 가능 (19.2%)
장점 4순위	관내 학생을 2~3개의 거점학교에서 관리 가능 (15.6%)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16.8%)
장점 5순위	수업 규모 확대로 모둠, 협동, 토의·토론 수업 등 운영 가능 (14.6%)	관내 학생을 2~3개의 거점학교에서 관리 가능 (10.2%)
장점 6순위	기타 의견 (5.8%)	교사 상차,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6.0%)
장점 7순위	폐교된 학교를 지역 문화·체육·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운영 가능 (5.5%)	기타 의견 (3.5%)

교직원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학교 통합폐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직원은 ‘교사 업무 경감’을, 학부모는 ‘수업 규모 확대’를 꼽았으며, 학부모는 지역 자원 활용(폐교 활용)을 높게 평가했으나 교직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표 43>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단점 비교 (교직원-학부모, 공통)

구분	교직원 (공통)	학부모 (공통)
단점 1순위	지역사회 소멸 가속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박탈 (77.4%)	지역사회 소멸 가속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박탈 (63.5%)
단점 2순위	교사의 인사이동 및 교육공무직원 고용 불안 (11.3%)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최소화 (14.2%)
단점 3순위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최소화 (5.6%)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체험학습 횟수 감소 (12.6%)
단점 4순위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체험활동 횟수 감소 (2.4%)	체험학습 운영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7.5%)
단점 5순위	체험활동 운영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1.7%)	기타 의견 (2.2%)
단점 6순위	기타 의견 (1.5%)	.

교직원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단점으로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지역사회 소멸과 교육 기회 불균등’을 압도적인 1순위로 꼽았다.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학교 통폐합의 장점은 존재하지만, 단점이 훨씬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지역사회 소멸과 교육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두 집단 모두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 (값 ' ', 공통, 학부모)

문항	평균	표준편차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중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4.77	1.97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한 소규모학교의 거점 학교로의 통폐합 필요성	4.34	2.04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중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4.77점(표준편차 1.97)이었다. 7점 척도 기준 보통(4점)보다 높아, 학부모들은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가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 다만 표준편차가 커 의견 차이가 컸다.

‘소규모학교의 거점학교 통폐합 필요성’에 대한 평균은 4.34점(표준편차 2.04)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으나 찬반이 뚜렷하게 갈렸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은 공동 운영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평균 4.77점), 통폐합 추진에는 신중하거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비교 (교직원-학부모, 공통)

구분	교직원		학부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중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4.68	2.03	4.77	1.97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한 소규모학교의 거점 학교로의 통폐합 필요성	4.37	2.10	4.34	2.04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학교 통폐합보다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가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교직원 4.68점, 학부모 4.77점). 학부모가 교직원보다 약간 더 긍정적이었다.

‘소규모학교의 거점학교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직원(4.37점), 학부모(4.34점) 모두 보통(4점)보다 높게 나타나 통폐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두 집단 모두 공동 운영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통폐합에는 신중하거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생

1) 응답자 일반 현황

<표 46> 응답자 일반 현황 (조사 대상, 공통, 학생)

문항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674	49.7
	여성	682	50.3
학교급	초등학교	251	18.5
	중학교	904	66.7
	고등학교	201	14.8
학교 소재지	도시 지역	388	28.6
	읍면 지역(농산어촌 포함)	917	67.6
	기타	51	3.8

전체 학생 응답자의 성별, 학교급, 학교 소재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49.7%(674명), 여성이 50.3%(682명)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학교급은 중학교가 66.7%(904명)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가 18.5%(251명), 고등학교가 14.8%(20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는 읍면 지역(농산어촌 포함)이 67.6%(9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 지역이 28.6%(388명), 기타가 3.8%(51명)로 조사되었다.

2) 교육 여건 및 학교 환경

<표 47> 교육 여건 및 학교 환경 (조사 , 공통, 학생)

문항		사례수	비율(%)
전체 학급 수	3학급 이하	246	18.1
	4~6학급	345	25.4
	7~12학급	213	15.7
	13~24학급	389	28.7
	25학급 이상	163	12.0
전체 학생 수	15명 이하	36	2.7
	16~60명	205	15.1
	61~120명	184	13.6
	121~240명	187	13.8
	241명 이상	744	54.9

전체 학생 응답자의 교육 여건 및 학교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학급 수는 13~24학급이 28.7%(38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6학급이 25.4%(345명), 3학급 이하가 18.1%(246명), 7~12학급이 15.7%(213명), 25학급 이상 12.0%(1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수는 241명 이상이 54.9%(74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6~60명이 15.1%(205명), 121~240명이 13.8%(187명), 61~120명이 13.6%(184명), 15명 이하가 2.7%(3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인식

<표 48>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기술통계표 (조사 , 공통, 학생)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2.67	1.74

전체 학생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은 2.67점(표준편차 1.74)으로 나타났다. 이는 7점 척도에서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보통(4점)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편차가 1.74로 나타나, 학생들 간의 인지도 수준 차이가 크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교직원은 평균이 4.03점으로 보통 수준에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2.57점)와 학생(2.67점)은 보통보다 훨씬 낮아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임이 드러난다.

<표 4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인지도 및 참여도 (조사 대상, 공통, 학생)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알고 있는 행사 수	0개	220	16.2
	1~2개	377	27.8
	3~4개	438	32.3
	5~6개	214	15.8
	7개 모두	107	7.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참여한 행사 수	0개	310	22.9
	1~2개	466	34.4
	3~4개	396	29.2
	5~6개	115	8.5
	7개 모두	69	5.1

전체 학생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에 관한 인지도 및 참여도’를 빈도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합 스포츠 한마당(체육대회)
- 연합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축제)
- 연합 영어 캠프
- 연합 스포츠 체험활동(야구 관람 등)
- 연합 진로 체험학습(부산국립과학관 관람, 딸기농장 체험 등)
- 연합 예술 문화 체험활동(대구 간송미술관, 숲속 작은 음악회, 오페라 관람 등)
- 교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교과 연계 백일장 등)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알고 있는 행사 수는 3~4개가 32.3%(43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개가 27.8%(377명), 0개가 16.2%(220명), 5~6개가 15.8%(214명), 7개 모두가 7.9%(107명)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학생들은 대체로 1~4개 정도의 행사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학생도 16.2%에 달했다.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참여한 행사 수는 1~2개가 34.4%(46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4개 29.2%(396명), 0개 22.9%(310명), 5~6개 8.5%(115명), 7개 모두 5.1%(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일부 행사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지만,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도 약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표 5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기술통계표 (조사 대상, 공통, 학생)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4.87	1.65

전체 학생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은 4.87점(표준편차 1.65)으로 나타났다. 이는 7점 척도에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보통(4점)보다 분명히 높은 수준에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표준편차가 1.65로 나타나,

학생들 사이에 교육적 실효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51>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비교 (교직원-학부모-학생, 공통)

구분	교직원		학부모		학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	4.56	1.72	4.70	1.88	4.87	1.65
	긍정적, 의견 차이 있음		교직원보다 긍정적, 의견 차이 가장 큼		가장 긍정적, 의견 차이 가장 작음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세 집단 모두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있다는 데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긍정성 수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순서로 긍정적이었다. 의견 차이는 학생이 가장 작았으며, 학부모는 긍정적인 응답임에도 의견 차이가 가장 컸다.

<표 52>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 (교직원, 공통, 학생)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	772	56.9
	학생 교류망의 확대	253	18.7
	교사 상치,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137	10.1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근거리 통학 보장 등)	134	9.9
	기타 의견	60	4.4

전체 학생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이 56.9%(7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 교류망의 확대’가 18.7%(253명), ‘교사 상치,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이 10.1%(137명),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9.9%(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4.4%(60명)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모르겠음(18명), 장점이 없음(14명), 여러 가지 체험학습(5명), 재미 있음(5명),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음(1명) 등이 있었다.

<표 5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 비교 (교직원-학부모-학생, 공통)

구분	교직원 (공통)	학부모 (공통)	학생 (공통)
1순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30.1%)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 (49.4%)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 (56.9%)
2순위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 (28.5%)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23.8%)	학생 교류망의 확대 (18.7%)
3순위	학생 교류망의 확대 (27.1%)	학생 교류망의 확대 (18.4%)	교사 상치,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10.1%)
4순위	교사 상치,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12.3%)	교사 상치,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5.7%)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9.9%)
5순위	기타 의견 (2.1%)	기타 의견 (2.6%)	기타 의견 (4.4%)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교직원은 제도적·지역적 효과(통폐합 방지·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부분에서, 학부모는 교육적·학습 효과(수업 방법 다양화·학습 효과 증진) 부분에서, 학생은 교육적·학생 교류 효과(수업 방법 다양화·학생 교류망 확대) 부분에서 가장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4)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표 54>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 또는 진학 예정 여부 (표 1, 공통, 학생)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 또는 진학 예정 여부	예	625	46.1
	아니오	731	53.9

전체 학생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 또는 진학 예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이 53.9%(731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46.1%(62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생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이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이나 진학 예정이 없다고 응답했음을 보여준다.

<표 55>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기술통계표 (표 1,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진학 예정자, 학생)

문항	평균	표준편차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4.95	1.69

소규모학교에 재학 경험이 있거나 진학 예정이라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은 4.95점(표준편차 1.69)으로 나타났다. 이는 7점 척도에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보통(4점)보다 분명히 높은 수준에서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을 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표준편차가 1.69로 나타나, 학생들 사이에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일정 부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56>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비교 (교직원-학부모-학생, 소규모)

구분	교직원(소규모)		학부모(소규모)		학생(소규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4.44	1.73	4.83	1.72	4.95	1.69
	보통보다 만족, 의견 차이 있음		교직원보다 만족, 의견 차이 있음		가장 만족, 의견 차이 가장 작음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세 집단 모두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긍정성 정도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순서로 긍정적이었다.

세 집단 모두 표준편차는 1.7 안팎이었으며, 의견 차이는 학생이 가장 작았다.

<표 57>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불만족스러운 부분(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진학 예정자, 학생)

문항		사례수	비율(%)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 체험활동	397	63.5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과 수업	70	11.2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생활 지도	41	6.6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학생별 실습, 실험 기회 최대 제공	60	9.6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49	7.8
	기타 의견	8	1.3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108	17.3
	한정된 수업 방법	101	16.2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한정된 교우 관계	88	14.1
	불균등한 교육 기회 (장거리 통학 등)	56	9.0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242	38.7
	기타 의견	30	4.8

소규모학교 재학생 및 진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만족·불만족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 요인으로는 ‘다양한 현장체험 및 진로활동’이 63.5%(39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 맞춤형 개별 수업’ 11.2%(70명), ‘소인수 학급으로 인한 실습·실험 기회 확대’ 9.6%(60명), ‘만족 없음’ 7.8%(49명), ‘심리상담 및 생활지도’ 6.6%(41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은 1.3%(8명)으로, “학생 수가 적어 교사와 관계가 돈독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불만 없음’이 38.7%(242명)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한정성’ 17.3%(108명), ‘단조로운 수업 방법’ 16.2%(101명), ‘좁은 교우 관계’ 14.1%(88명), ‘불균등한 교육 기회’ 9.0%(56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은 4.8%(30명)으로, “학교 행사가 단조롭다”, “강당이 없다”, “겸임 교사가 많다” 등이 포함되었다. 종합하면 학생들은 체험 중심 수업과 개별 지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활동 프로그램의 제한과 교우 관계 협소 등 환경적 제약을 주요 불만으로 꼽았다.

<표 58>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비교 (교직원-학부모-학생, 소규모)

구분	교직원 (소규모학교)	학부모 (소규모학교)	학생 (소규모학교)
만족 1순위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학생별 실습, 실험 기회 최대 제공 (30.8%)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 체험활동 (50.5%)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 체험활동 (63.5%)
만족 2순위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 체험활동 (28.5%)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학생별 실습, 실험 기회 최대 제공 (20.0%)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과 수업 (11.2%)
만족 3순위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과 수업 (22.2%)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10.6%)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학생별 실습, 실험 기회 최대 제공 (9.6%)
만족 4순위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생활지도 (11.1%)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과 수업 (9.9%)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7.8%)
만족 5순위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6.1%)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생활지도 (7.0%)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생활지도 (6.6%)
만족 6순위	기타 의견 (1.3%)	기타 의견 (2.1%)	기타 의견 (1.3%)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교직원은 소인수 학급 운영에 따른 학생별 실습, 실험 기회 최대 제공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비슷하게 중시했으며, 학부모와 학생은 다양한 체험학습(학부모 50.5%, 학생 63.5%)이 압도적으로 1순위를 차지했다.

<표 5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 비교 (교직원-학부모-학생, 소규모)

구분	교직원 (소규모학교)	학부모 (소규모학교)	학생 (소규모학교)
불만족 1순위	교사의 겸임(순회) 시수 증가 및 담당 업무의 종류와 양 부담 (45.7%)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한정된 교우 관계 (30.5%)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38.7%)
불만족 2순위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한정된 교우 관계 (23.7%)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동아리 등 선택 불가) (24.2%)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동아리 등 선택 불가) (17.3%)
불만족 3순위	한정된 수업 방법 (토의·토론 수업, 체육 단체 종목, 밴드 합주 수업 등 운영 불가) (14.0%)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23.7%)	한정된 수업 방법 (토의·토론 수업, 체육 단체 종목, 밴드 합주 수업 등 운영 불가) (16.2%)
불만족 4순위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동아리 등 선택 불가) (7.1%)	한정된 수업 방법 (토의토론 수업, 체육 단체 종목, 밴드 합주 수업 등 운영 불가) (12.7%)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한정된 교우 관계 (14.1%)
불만족 5순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4.6%)	불균등한 교육 기회 (장거리 통학 등) (6.3%)	불균등한 교육 기회 (장거리 통학 등) (9.0%)
불만족 6순위	불균등한 교육 기회 (장거리 통학 등) (2.7%)	기타 의견 (2.6%)	기타 의견 (4.8%)
불만족 7순위	기타 의견 (2.3%)	.	.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교직원은 교사 업무 과중(45.7%)을, 학부모는 한정된 교우 관계(30.5%), 학생은 불만족 없음(38.7%)이 1순위를 차지했다.

즉 소규모학교에 재학 경험이 있거나 진학 예정인 학생 중 상당수는 현 교육과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한 불만족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 (표 ' ',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진학 예정자 중 불만족 응답자, 학생)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한 불만족 개선	4.49	1.64

소규모학교 재학생 또는 진학 예정 학생 중 ‘불만족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가 불만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평균은 4.49점(표준편차 1.64)으로, 7점 척도 기준 보통(4점)보다 높아 학생들이 공동 운영 확대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다만 표준편차가 1.64로 인식 차이는 일부 존재했다.

교직원(평균 4.14점, 표준편차 1.81), 학부모(4.49점, 1.81), 학생(4.49점, 1.64) 모두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인식은 학생·학부모(4.49점) > 교직원(4.14점) 순이며, 학생의 의견 분산이 가장 적었다.

5)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

<표 61>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 (표 ' ',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진학 예정자, 학생)

문항	평균	표준편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에 대한 인식	4.93	1.60

소규모학교 재학생 및 진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4.93점(표준편차 1.60)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 기준 보통(4점)보다 높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확대 필요성에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표준편차가 1.60으로 의견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교직원(평균 4.61점, 표준편차 1.70), 학부모(5.38점, 1.68), 학생(4.93점, 1.60) 모두 보통 이상으로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긍정 인식은 학부모 > 학생 > 교직원 순으로, 학부모가 가장 높았다. 표준편차는 교직원이 가장 커 의견이 다양했고, 학생은 비교적 일관된 응답을 보였다.

<표 62>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확대 방향 및 확대 과목 (조사 대상, 소규모학교 재학 경험·진학 예정자, 학생)

문항		사례수	비율(%)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	학교 간 공동 교과 교육과정 운영	116	18.6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341	54.6
	지역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85	13.6
	마을교사 활용 교육과정 공동 운영	42	6.7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41	6.6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과목	국어	20	3.2
	영어	35	5.6
	사회	14	2.2
	역사	13	2.1
	도덕	8	1.2
	수학	77	12.3
	과학	29	4.6
	기술·가정	13	2.1
	정보	5	0.8
	음악	43	6.9
	미술	43	6.9
	체육	223	35.7
	한문	7	1.1
	진로와 직업	80	12.8
기타 교양과목	15	2.4	

소규모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확대 방향과 과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확대 방향으로는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54.6%(3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동 교과 운영’ 18.6%(116명), ‘지역연계 운영’ 13.6%(85명), ‘마을교사 활용’ 6.7%(42명),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6.6%(41명) 순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며, 지역 인프라보다는 학교 간 협력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공동 운영 확대 과목으로는 ‘체육’이 35.7%(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와 직업’ 12.8%(80명), ‘수학’ 12.3%(77명), ‘음악’·‘미술’ 각 6.9%(43명), ‘영어’ 5.6%(35명), ‘과학’ 4.6%(29명), ‘국어’ 3.2%(20명) 순이었다. 그 외 ‘사회’ 2.2%, ‘역사’·‘기술·가정’ 각 2.1%, ‘도덕’ 1.2%, ‘한문’ 1.1%, ‘정보’ 0.8%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E-스포츠, 경제 교육 등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체육과 진로·직업 교육 확대를 가장 원했으며, 기초 교과(수학·영어·과학)의 강화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6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 비교 (교직원-학부모-학생, 소규모)

구분	교직원 (소규모학교)	학부모 (소규모학교)	학생 (소규모학교)
1순위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43.4%)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41.1%)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54.6%)
2순위	학교 간 공동 교과 교육과정 운영 (18.4%)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28.6%)	학교 간 공동 교과 교육과정 운영 (18.6%)
3순위	지역 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18.0%)	지역 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13.2%)	지역 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13.6%)
4순위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14.3%)	학교 간 공동 교과 교육과정 운영 (11.3%)	마을교사 활용 교육과정 공동 운영 (6.7%)
5순위	마을교사 활용 교육과정 공동 운영 (5.9%)	마을교사 활용 교육과정 공동 운영 (5.9%)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6.6%)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으로 세 집단 모두 ‘창의적 체험활동 공동 운영’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학부모는 공동학습센터 운영을,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공동 운영을 특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4>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과목 비교 (교직원-학부모-학생, 소규모)

구분	교직원 (소규모학교)	학부모 (소규모학교)	학생 (소규모학교)
1순위	체육 (31.7%)	영어 (26.8%)	체육 (35.7%)
2순위	진로와 직업 (16.1%)	진로와 직업 (26.3%)	진로와 직업 (12.8%)
3순위	국어 (8.8%)	체육 (9.1%)	수학 (12.3%)
4순위	영어 (7.1%)	수학 (8.5%)	음악·미술 (각 6.9%)
5순위	수학 (6.5%)	기타 교양과목 (5.9%)	영어 (5.6%)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과목으로 교직원과 학생은 체육을 압도적으로 1순위로 꼽은 반면, 학부모는 영어 (26.8%)와 진로와 직업(26.3%)을 거의 비슷하게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공통적으로 진로와 직업은 세 집단 모두에서 최상위권에 포함되었다.

6) 학교 통폐합에 대한 견해

<표 65>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문항		사례수	비율(%)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	관내 학생을 2~3개의 거점 학교에서 관리 가능	213	15.7
	학교급 확대 및 이에 따른 학습 효과 증진	234	17.3
	수업 규모 확대로 모둠, 협동, 토의·토론 수업 등 운영 가능	390	28.8
	폐교된 학교를 지역의 문화체육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운영 가능	291	21.5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102	7.5
	다 학년·상차복식 수업 등 해소 및 교사별 담당업무의 종류와 양 경감	63	4.6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단점	기타 의견	63	4.6
	지역사회 소멸 가속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박탈	421	31.0
	맞춤형 교육 기회 최소화	254	18.7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체험활동 횟수 감소	423	31.2
	체험활동 운영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180	13.3
	기타 의견	78	5.6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의 장단점’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점으로는 ‘수업 규모 확대에 따른 협동·토의 수업 가능’이 28.8%(3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교의 문화·체육·복지시설 활용’ 21.5%(291명), ‘학교급 확대 및 학습 효과 증진’ 17.3%(234명), ‘거점학교 운영으로 학생 관리 용이’ 15.7%(213명), ‘교육재정 효율화’ 7.5%(102명), ‘복식수업 해소 및 교사 업무 경감’ 4.6%(63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 4.6%(63명)에는 ‘장점이 없다’, ‘친구 관계가 넓어진다’ 등이 포함되었다.

단점으로는 ‘현장·진로체험 감소’가 31.2%(423명)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소멸 및 교육기회 불균등’이 31.0%(421명)로 비슷했다. 이어 ‘맞춤형 교육기회 축소’ 18.7%(254명), ‘학부모 부담 증가’ 13.3%(180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 5.6%(78명)에는 ‘학교폭력 증가’, ‘통학 부담’, ‘적응 어려움’ 등이 있었다.

종합하면, 학생들은 통폐합의 긍정적 효과로 학습 환경 개선과 자원 효율화를 인식했지만, 체험활동 축소·교육 불균등·지역 공동체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이는 통폐합 정책이 교육의 질뿐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와 학생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66>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 비교 (교직원-학부모-학생, 공통)

구분	교직원 (공통)	학부모 (공통)	학생 (공통)
장점 1순위	다 학년·상치·복식 수업 등 해소 및 교사별 담당업무의 종류와 양 경감 (22.3%)	수업 규모 확대로 모둠, 협동, 토의·토론 수업 등 운영 가능 (24.4%)	수업 규모 확대로 모둠, 협동, 토의·토론 수업 등 운영 가능 (28.8%)
장점 2순위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20.0%)	학교급 확대 및 이에 따른 학습 효과 증진 (19.9%)	폐교된 학교를 지역의 문화체육·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운영 가능 (21.5%)
장점 3순위	학교급 확대 및 이에 따른 학습 효과 증진 (16.2%)	폐교된 학교를 지역의 문화체육·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운영 가능 (19.2%)	학교급 확대 및 이에 따른 학습 효과 증진 (17.3%)
장점 4순위	관내 학생을 2~3개의 거점학교에서 관리 가능 (15.6%)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16.8%)	관내 학생을 2~3개의 거점학교에서 관리 가능 (15.7%)
장점 5순위	수업 규모 확대로 모둠, 협동, 토의·토론 수업 등 운영 가능 (14.6%)	관내 학생을 2~3개의 거점학교에서 관리 가능 (10.2%)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7.5%)
장점 6순위	기타 의견 (5.8%)	교사 상치,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6.0%)	교사 상치, 수업 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4.6%)
장점 7순위	폐교된 학교를 지역 문화·체육·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운영 가능 (5.5%)	기타 의견 (3.5%)	기타 의견 (4.6%)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직원은 ‘교사 업무 경감’을, 학부모와 학생은 ‘수업 규모 확대’를 꼽았다.

학부모와 학생은 지역 자원 활용(폐교 활용)을 높게 평가했으나 교직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표 67>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단점 비교 (교직원-학부모-학생, 공통)

구분	교직원 (공통)	학부모 (공통)	학생 (공통)
단점 1순위	지역사회 소멸 가속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박탈 (77.4%)	지역사회 소멸 가속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박탈 (63.5%)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체험학습 횟수 감소 (31.2%)
단점 2순위	교사의 인사이동 및 교육공무원 고용 불안 (11.3%)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최소화 (14.2%)	지역사회 소멸 가속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박탈 (31.0%)
단점 3순위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최소화 (5.6%)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체험학습 횟수 감소 (12.6%)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최소화 (18.7%)
단점 4순위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체험활동 횟수 감소 (2.4%)	체험학습 운영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7.5%)	체험학습 운영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13.3%)
단점 5순위	체험활동 운영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1.7%)	기타 의견 (2.2%)	기타 의견 (5.6%)
단점 6순위	기타 의견 (1.5%)	.	.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단점으로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지역사회 소멸과 교육 기회 불균등’을 압도적인 1순위로 꼽았으며, 학생 또한 1순위인 ‘체험학습 횟수 감소(31.2%)’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소멸과 교육 기회 불균등(31.0%)’을 단점으로 꼽았다. 학부모와 학생은 경제적 부담을 단점으로 제시했으나(학부모 7.5%, 학생 13.3%) 교직원은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교직원 1.7%) 교직원, 학부모, 학생 모두 학교 통폐합의 장점은 다양하게 인정하지만, 단점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교육 기회와 지역사회 소멸에 대한 우려가 세 집단 모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표 68>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기술통계표 (조사 대상, 공통, 학생)

문항	평균	표준편차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중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4.52	1.60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한 소규모학교의 거점 학교로의 통폐합 필요성	4.22	1.60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중 어느 방향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4.52점(표준편차 1.60)으로 나타났다. 7점 척도 기준 보통(4점)보다 높아,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가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 다만 표준편차가 커 의견 차이도 존재했다.

또한 ‘소규모학교의 거점학교 통폐합 필요성’에 대한 평균은 4.22점(표준편차 1.60)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웃도는 결과였다. 이는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생들은 교육적으로는 공동 운영 확대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평균 4.52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거나 의견이 엇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4.22점)

<표 69>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식 비교 (교직원-학부모-학생, 공통)

구분	교직원		학부모		학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중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4.68	2.03	4.77	1.97	4.52	1.60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한 소규모학교의 거점 학교로의 통폐합 필요성	4.37	2.10	4.34	2.04	4.22	1.60

교직원, 학부모, 학생 응답을 비교한 결과,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중 어떤 방향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교직원(4.68점), 학부모(4.77점), 학생(4.52점) 모두 공동 운영 확대가 더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긍정 응답은 학부모(4.77점) > 교직원(4.68점) > 학생(4.52점) 순이었다.

‘소규모학교의 거점학교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직원(4.37점), 학부모(4.34점), 학생(4.22점) 모두 보통(4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통폐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즉, 세 집단 모두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지지했으나,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설문조사 응답 전체에 대한 종합 분석

소규모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가 학교 통폐합보다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직원(평균 4.44점), 학부모(평균 4.83점), 학생(평균 4.95점) 모두 보통(4점)보다 높은 수준에서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을 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교직원이 가장 낮았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 학습 경험 측면에서 만족감을 더 크게 느끼는 반면, 교직원은 근무 여건의 부담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육적 실효성에 대해서도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이었다. 교직원은 평균 4.56점, 학부모는 4.70점, 학생은 4.87점으로,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가했다. 다만 학부모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커, 학부모 집단 내 의견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중 불만족스러운 부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직원 4.14점, 학부모 4.49점, 학생 4.49점으로 나타나, 교직원보다 학부모·학생이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한 개선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학생은 표준편차가 가장 낮아, 집단 내 인식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평균 5.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은 4.93점, 교직원은 4.61점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이었으나, 학부모의 기대치가 가장 높았다.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방향에서는 교직원·학부모·학생 모두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1순위로 꼽았다. 다만 교직원은 교과 운영과 행정 효율성, 학부모는 공동학습센터 같은 인프라적 접근, 학생은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했다.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과목에서는 차이가 뚜렷했다. 교직원과 학생은 ‘체육’을 1순위 과목으로 꼽았으며, 학부모는 ‘영어’와 ‘진로와 직업’을 중시했다. 다만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진로와 직업’ 과목의 확대 필요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학교 통폐합의 장점·단점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교직원은 장점으로 ‘교사 업무 경감’, 학부모와 학생은 ‘수업 규모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단점에 대한 인식은 모두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소멸과 교육 기회 불균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 학생은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체험학습 감소’를 가장 큰 단점으로 인식했다. 특히 소규모학교 학부모와 학생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응답 비율도 상당히 높아, 일부는 현 교육과정에 만족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에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학교 통폐합 추진에는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응답이 나타났다.

교직원은 교사의 근무 여건과 행정 효율성을, 학부모는 학습 효과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학생은 각종 체험활동과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세 집단의 요구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소규모학교 환경 여건 분석

1. 농산어촌 소규모 중학교의 일반 현황

농어촌 중학교는 학생 수 급감으로 교육 환경이 크게 변했다. 한때 수백 명이던 학생 수는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급격히 줄었다. 예를 들어 경북 영덕군 병곡중은 1981년 716명(12학급)에서 1999년 86명(3학급)으로, 축산중은 769명에서 122명으로, 지품중은 697명에서 47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현재 영덕군에는 중학교 8개교만 남았고, 다수가 전교생 4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과 통폐합 압력은 농산어촌 중학교의 공통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농촌 소규모 중학교는 학생 개별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학습 환경 제약이라는 한계도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영덕군의 지품중, 축산중, 병곡중, 남정중 등 4개 중학교를 사례로 주요 교육 환경을 비교·분석한다.

가. 학생 수 및 교원 수 추이

영덕군 4개 중학교의 학생 수는 35년간 지속 감소했다. 지품중은 2021년 15명에서 2025년 13명, 남정중은 10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축산중은 9명 수준을 유지하고, 병곡중은 13명에서 19명으로 일시 증가했다. 신입생 유입과 졸업생 변동에 따라 매년 학생 수가 한 자릿수 단위로 오르내리지만, 대부분 20명 미만의 소규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표 70> 영덕군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변화 추이

구분	1981년	1999년	2025년	1981→1999 증감	1999→2025 증감
지품중	697명	47명	13명	-93.3%	-72.3%
축산중	769명	122명	9명	-84.1%	-93.4%
병곡중	716명	86명	19명	-88.0%	-77.9%
남정중	504명	74명	9명	-85.3%	-87.8%

이들 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교원이 많아 1인당 학생 수가 매우 낮다. 지품중은 교직원 13명, 남정중 10명, 축산중 9명, 병곡중 13명으로, 대부분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비슷하다. 2025년 현재 지품중과 남정중은 각각 교직원 11명, 10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명 수준이다. 이는 세심한 지도가 가능한 장점이지만, 행정상 비효율성 문제도 남아 있다.

나. 학급 수 및 복식학급 운영 여부

분석 대상 4개교는 모두 3학년제 중학교 본교로, 학년당 1개 학급씩 총 3학급을 운영한다. 복식학급 없이 학년별 독립 학급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품중은 2021년 학년별 1개 학급이 개설되어 학급당 평균 5명 수준이며, 남정중·축산중도 각 학년 1개 반으로 3~8명에 불과하다. 학생 수는 적지만 중등 교육과정상 복식학급이 일반적이지 않아 한 학년이 한 반을 구성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경우 도움반을 두며, 병곡중은 2020년 특수학급을 신설해 장애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학년 혼합 수업은 없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 개별화 학습과 학년 간 연계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지품중과 남정중은 1999년 인근 초등학교와 통합된 초·중 통합학교로, 행정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되 학급 편성은 독립적으로 유지한다. 초·중 복합학급 운영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법령상 분리 운영된다. 요약하면 네 학교 모두 3학급 체제를 유지하며, 학생 수가 매우 적지만 복식학급 없이 학년별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다.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 및 특이점

학생 수가 극히 적은 소규모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많다. 교과 교사 수급과 과목 개설에 제약이 생기며, 지품중의 경우 교사 9명이 전교생 15명을 가르쳐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고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된다. 또래 부족으로 협동학습이나 토론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도 어렵다. 영덕 지역 학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중심의 학교 간 연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심화 교과나 특별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는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로 이어진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지품중·남정중은 초·중 통합학교로, 초중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2009년과 2021년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남정중은 2010년부터 해양교육 시범학교로, 지품중은 녹색성장·환경교육을 특화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했다. 경북교육청도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5학년도에는 도내 12개 지역, 37개 중학교가 참여하는 「따로 또 같이 학교」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어, 2~4개 소규모학교가 교과·자유학기·창체활동을 공동 편성·운영한다. 기존의 공동 체험활동이나 진로탐색, 축제에 더해 정규 교과수업까지 확대하고, 블록타임제 합동수업이나 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소규모학교들은 자체 특색 교육과정과 학교 간 협력형 공동운영을 병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기회와 교육의 질을 확장하고 있다.

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수준

농촌 소규모학교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된다. 학생 수가 적어 학부모, 주민, 단체가 학교 행사에 참여하며 가족 같은 공동체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지품초·중은 매년 초·중 통합 졸업식을 열어, 졸업생이 몇 명 안 돼도 기관장과 주민이 참석해 격려한다. 2018년 졸업식에는 초 7명, 중 4명의 졸업생을 위해 지역에서 상장·장학금을 수여하고, 재학생과 내빈이 함께 축하했다. 이런 행사는 마을 잔치처럼 이어져, 동문회와 마을회가 경품과 다과를 준비하는 전통도 남아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도 활발하다. 남정중은 해양수산 단체와 협력해 해양 체험을, 지품중은 복사꽃마을 등과 연계한 생태체험을 운영했다. 또한 관공서와 기관의 지원으로 통일안보 현장학습, 진로탐방, 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은 방과후 강사나 멘토로 참여하며, 마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생 성장을 돕는다. 이처럼 지역사회는 작은 학교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마. 교육 인프라 (시설 및 교육기자재)

소규모 중학교는 대부분 과거 학생 수가 많던 시절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어, 교지와 특별실 등 기본 인프라는 양호하다. 병곡중은 부지 21,058㎡ 규모로 운동장, 실습지, 교직원 사택까지 갖추고 있으며 과학실·음악실·컴퓨터실·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부속실을 보유한다. 학생 수가 적어 시설 활용이 넉넉하지만, 유지관리 부담이 크다. 컴퓨터실 PC 수가 학생보다 많거나 실습지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예산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배정되어 개선비 확보가 어렵지만, 경북교육청의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으로 과학실 현대화, 영어체험실 설치, 도서관 개관 등이 추진됐다. 모든 학교에 CCTV와 정보 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시설은 풍부하나 활용 효율이 낮은 딜레마가 있다.

바. 교통 및 통학 환경

영덕군 중학교들은 면 지역에 흩어져 통학거리가 길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통학 버스를 지원하며, 축산중·영해초처럼 초·중이 공동운행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공차율을 줄이고 효율을 높인다. 남정중·지품중은 초·중 통합학교로 학생이 같은 차량을 이용한다. 원거리 학생에게는 교통비 지원이나 택시비 보조가 제공된다. 농촌 특성상 폭설·농번기 등 안전 문제가 많아, 학부모 교통봉사와 안전점검도 병행된다. 통학 여건은 열악하지만 지원으로 일정 수준의 편의가 확보되고 있다.

사. 외부 지원 현황(지자체·교육청 등) 및 형태

교육청과 지자체는 소규모학교에 재정·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08년부터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해 매년 초·중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유학구제를 도입해 도농 간 학생 이동을 유도했다. 영덕교육지원청은 전입 장려금과 정착 지원으로 학생 유치를 돕고 있다. 또한 「따로 또 같이 학교」 사업을 통해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에 예산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원어민교사·예체능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한다. 영덕군청도 방과후 운영비·급식비·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 귀촌 연계 홍보와 기숙사 운영으로 학생 유치를 돕는다. 이처럼 외부 지원이 학교 유지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아. 소규모 학교별 운영 특성과 한계 및 정책적 시사점

위 사례 분석을 통해 각 학교가 공유하는 운영 특성과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 추세 속 통합운영(초중 통합학교: 지품중·남정중) 또는 단설 유지(축산중·병곡중)라는 형태적 차이는 있으나, 전교생 10여 명 규모의 극소형 학교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긍정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낮아 개별화 교육과 생활지도가 가능하고, 지역의 관심과 지원을 집중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으로는 또래 집단 형성의 어려움, 교과 선택 다양성 부족, 학교 운영의 비경제성 등이 뚜렷한 한계이다. 예를 들어 남정중학교는 2024년도 졸업생이 단 1명에 불과해 해당 학년 학생이 학업과 학교생활을 외롭게 이어가야 했던 상황으로, 이러한 교육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이다. 축산중학교와 병곡중학교도 한때 학생 수가 수백 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 명으로 줄어들면서, 예전 규모에 맞춘 학교시설과 인력을 축소하거나 재편하지 못해 교육자원 활용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현실은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각 학교 단독으로는 정규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심화를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학교 간 연대와 통합 운영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영덕군 4개 중학교의 사례에서 보듯 학교별 학생 수는 적지만 4교를 합치면 약 50명 내외의 규모가 되어 작은 하나의 학교 수준이 된다.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해 이 학생들을 가상적으로 한데 모은다면 학습 집단의 규모를 키워 정상적인 협동·경쟁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북교육청의 「따로 또 같이 학교」 모델은 이러한 발상에서 출발하여, 영덕지역 작은 중학교들이 팀을 이루어 합동 수업과 공동 활동을 해오고 있다.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세부 방안—예를 들어 학교 간 시간표 조정,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 학생 이동을 위한 교통지원, 교원인사 교류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와의 통합운영 경험(지품·남정중 사례)도 참고하여, 지역 내 초중고 연계를 강화하는 거점형 통합학교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촌학교를 단순히 통폐합의 대상이 아닌 지역 교육의 거점으로 재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활용하는 평생교육센터,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한다면 학교 존속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영덕군 등의 농어촌 지자체가 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역을 유지하는 전략과도 맞물린 중요한 과제이다. 작은 학교 학생들의 성장발달 권리를 보장하면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영덕군 소규모 중학교들의 사례 분석이 현장의 기초자료가 되어 향후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과정 정책을 수립·보완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

2.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가. 추진 배경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전교생이 수십 명에 불과한 경우가 늘고 있다. 학생 수가 줄면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선택과목 개설이나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에도 한계가 생긴다. 경북 영덕군의 지품중·축산중·병곡중·남정중 등은 모두 전교생 20명 이하로, 일부 교과목은 전담 교사 확보나 개설 인원 충족이 힘들어 정상 운영이 어렵다. 또래 집단이 적어 사회적 학습 기회가 부족하고, 이는 도농 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인근 학교들이 협력해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를 완화하고 교육자원을 공유해 농어촌 학생에게 도시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다. 경북교육청은 2010년대부터 이 모델을 실험했으며, 2015년 영덕교육지원청 산하 남정중·병곡중·지품중·축산중이 연합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공동 운영했다. 당시 학생들은 아이스스케이팅 등 체험활동을 함께하며 또래 교류를 확대하고 운영비를 절감했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 간 협력이 소규모학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후 체계적인 공동교육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나. 추진의 필요성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교육 기회 형평성과 질 보장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첫째, 학생 수 감소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인근 학교와 공동 개설해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심화·예체능 과목을 함께 운영하면 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공동수업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 다양성 확대에 효과적이다.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 수업받으면 토론과 협동학습이 활성화되어 학습의 질이 높아진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방식이 농어촌-도시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셋째, 교육자원 효율화를 위해서도 공동 운영이 필요하다.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중심으로 시설과 인력을 공유하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실, 예술공연장, 우수 교사를 공동 활용하면 각 학교가 별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영덕의 4개 중학교가 연합 예술행사를 공동 개최해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 운영은 작은 학교의 존립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협력을 통해 교육 품질과 학생 만족도를 높이면 ‘찾아오는 작은 학교’로 변화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사회 신뢰를 높이고 학생 유출을 막아 소규모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된다.

다. 공동운영 모델의 구조

「함께자람 교육허브」 기반 협력 운영체제는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핵심 구조로서, 여러 학교를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묶어주는 거점 역할을 한다. 이 모델에서는 참여 학교 중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학교(허브 학교)와 그와 협력하는 위성 학교들이 존재한다. 거점학교는 물적·인적 자원을 공유하는 중심지로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계획 수립과 운영 조율을 맡는다. 협력학교들은 거점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각 학교의 학생들을 공동 프로그램에 파견하거나 받아들이는 형태로 참여한다. 예를 들어 영덕군 소규모중학교 연합 모델에서 4개교 중 한 학교가 중심학교로 지정되어 전체 학사일정 조정, 교사 인력 운영 계획 등을 총괄하고 나머지 3개 협력학교와의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이 학교 간 공동 수업 연구협의체를 통해 교육과정 편성, 수업 방법, 평가 기준 등을 사전에 함께 논의하여 통일된 하나의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이 이 구조의 특징이다. 또한 거점학교에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 전담교사나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여러 학교의 학생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업 일정 및 장소 조율, 버스 등 학생 이동 지원체계까지 아우르는 운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허브 기반 운영체제는 마치 하나의 작은 교육구역 학습공동체처럼 여러 학교를 묶어주며,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각 구성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돕는다.

공동운영 모델은 크게 교과 공동운영 모델과 창의적 체험활동 공동운영 모델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이는 정규 교과 수업 부분과 비교과 활동 부분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 맞는 협력 방식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1) 교과 공동운영 모델의 구조

교과 공동운영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교과목이나 전문 교과목을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공동 학급 편성을 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영덕의 4개 중학교는 학년별로 학생들을 합쳐서 하나의 통합 학급을 구성하고, 해당 학급의 교과 수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 때 수업은 보통 각 학교의 일정에 맞춰 정규 수업시간 중 공동 시간대를 배정하거나, 혹은 모듈식 시간표(블록타임제)를 활용하여 여러 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긴 수업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공동학급 수업은 주로 거점학교로 학생들이 모여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담당할 교사는 각 학교에서 순환하거나 별도로 지정된 교과 겸임 교사가 맡는다. 교과 겸임 교사는 한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협력학교 학생들까지 교과 지도하도록 배정된 교사로, 예를 들어 특정 교과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가 2~3개 학교의 학생들을 아울러 가르치는 형태다. 이렇게 하면 교사 1명이 소수 학생을 따로따로 가르칠 때보다 한 번에 통합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수업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높아진다.

원격 화상수업을 통한 학교 간 공동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쌍방향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공동 교과수업의 운영 방식은 참여 학교들의 지리적 거리와 교통 여건에 따라 대면 집합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인접한 학교들은 주 1~2회 정해진 요일에 학생들이 거점학교로 모여 대면 공동수업을 듣도록 하되, 학교 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최신 ICT 인프라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활용한다. 예컨대 영덕 지역 학교들은 상호 간 차량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서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되, 약천후나 거리 제약이 있는 경우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미래형 교육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지정, 다양한 원격 공동수업 방식을 실험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5년에는 경북 영천 신녕중학교를 원격 공동수업 시범학교로 삼아 노트북과 대형 스크린을 통한 온라인 합반 수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과 공동운영 모델은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융합하여,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 속해 있어도 동일한 배움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과 공동운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동 운영할 교육과정의 편제를 짜는 작업이 중요하다. 참여 학교들은 연초에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운영할 교육과정 편성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교과를 어떤 학교들과 합동으로 실시할지, 수

업 담당 교사는 누구로 할지, 수업 장소는 어디로 할지 등이 명시된다. 또한 학생들의 평가 방식도 협의하여 통일하거나 상호 인증되도록 정해야 한다. 예컨대 공동교과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성적은 해당 교과 담당 교사가 일괄 평가하여 각 학교에 성적을 통보하고, 각 학교는 이를 자신의 학생에 대한 성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을 위해 거점학교의 교무부장이 평가관리도 총괄하며, 공동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따라 성적 산출과 석차 처리 등 기술적인 사항을 표준화한다. 이러한 구조적 장치를 통해 교과 공동운영 모델이 각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원활히 녹아들도록 하고 있다.

2) 창의적 체험활동 공동운영 모델의 구조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 영역은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예술·체육활동 등을 포함하는 비교과 분야로서, 공동운영 모델에서 유연하고 다채로운 협력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공동운영 모델에서는 인근 학교 간에 공동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연합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의 공동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영덕 지역 4개 중학교는 연합 예술동아리를 조직하여 밴드부를 함께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합동 연습을 거쳐 큰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영덕교육지원청 “소규모학교 연합 예술교육 한마당” 축제에서는 지품중, 축산중, 병곡중, 남정중 학생들이 한데 모여 학교별 밴드팀 공연과 합창 등을 선보였는데, 이처럼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고 무대를 공유하는 경험은 작은 학교 단위로는 얻기 어려운 성취감을 제공하였다.

창체 공동운영 모델에서는 체험학습, 진로교육, 봉사활동도 공동 기획된다. 앞서 2015년 사례처럼 여러 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함께 지역사회 체험학습(예: 인근 도시 탐방,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가 등)을 가는 식으로 연합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학교 간에 공동 봉사활동의 날을 정하여 특정 일에 각 학교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공동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또래 간 경쟁과 화합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러한 창체 영역의 공동운영은 비교적 정규 교과에 비해 시간표 편성의 융통성이 크므로, 학기 중 자유학기제 기간이나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도 용이하다. 예컨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한 학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를 학교 연합 프로젝트 활동 시간으로 지정하고, 그 시간에 2~4개 학교 학생들이 섞인 팀을 이루어 공동 연구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각 학교의 담당 교사들이 멘토로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산출물에 대해서는 공동 발표회를 여는 방식으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도 단위 학교의 한계를 넘어 학교 간 교류와 협력 속에서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성, 창의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한편, 창체 공동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참여 학교들은 연합 동아리 편성표와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어떤 동아리를 어느 학교 학생들이 함께 꾸릴 것인지, 지도교사는 누구인지, 모임 장소는 순회할 것인지 등이 이 계획에 포함된다. 필요에 따라 거점 학교에 공동 창체활동 거점공간(예: 메이커스페이스, 공동과학실, 합주실 등)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모임 장소로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거점 마을교육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등을 공동활동 거점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러한 유연한 거점 활용을 통해, 창체 활동 분야에서도 「함께자람 교육허브」의 기능이 발휘된다.

라. 실행 전략 및 운영 방식

교육과정 공동 운영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연차별 확대 전략, 교과 및 창체 공동운영의 구체적 실행 방안, 교육허브 운영체계 및 인력, 평가 및 환류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1) 단계별 확대 전략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보다, 단계적으로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학교 협력사업을 초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 활동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교과 수업까지 공동 운영 영역을 넓혀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확대 전략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도입기): 협력 기반 구축 및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첫해에는 참여 학교 간 신뢰 구축과 협력 문화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소규모 학교 교원들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운영의 필요성을 공유한다. 이 단계에서는 부담이 적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공동 체험학습 한두 차례, 연합 예술공연 또는 스포츠 교류전 등을 개최하여 작게나마 협력의 성과를 체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 공동 교육과정의 가치를 직접 느끼도록 하고, 향후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준다.

▶ 2단계(확산기):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정규화 및 교과 분야로의 확장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 운영을 보다 정규 교육과정 속에 편성한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공동 자유학기 활동을 정례화하고, 일부 선정된 교과목에 대해 시범 공동 수업을 실시한다. 예컨대 영어 과목을 2개교 합동으로 블록수업 형태로 진행하거나, 예

술·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23개 학교 학생들이 함께 받는 공동 수업을 도입한다. 이 시기에는 교과 공동수업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교사 연수와 컨설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2024년에 중학교 43개교 관리자·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 운영 워크숍을 열어 사례를 공유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 속에 2단계에서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 팀(팀별로 24개교로 구성)을 늘리고, 운영 교과목과 활동 프로그램의 수를 확대하여 모델의 일반화를 추진한다.

▶ 3단계(안착기): 교과 중심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본격화 및 모델 고도화

셋째 해 이후로는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핵심 교과수업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 단계에서는 거점학교 체제를 완비하고, 국영수 등의 주요 교과에서도 공동학급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표 통합과 교원 배치 조정을 이루어낸다. 동시에 원격수업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지리적 한계를 초월한 협력 모델로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경북에서는 2025년에 도내 12개 지역, 37개 중학교를 13개 교육과정 공동 운영 운영팀으로 구성하여 교과 중심의 공동수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지역 단위의 협력팀 모델이 안착하면 이후로는 권역 내 모든 소규모학교에 교육과정 공동 운영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더 나아가 타 지역과의 교류(예: 경북-전남 간 온라인 합동수업 확대 등)까지 모색하는 고도화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모델을 정책으로 상시화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규나 제도를 정비하여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공식적인 학교 운영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 교과 공동운영의 실행 방안

교과 공동운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시간표 및 학사일정 조정이 핵심 과제다. 참여 학교들은 공동수업에 해당하는 시간대를 동일하게 비워두거나(예: 매주 화요일 5~6교시를 공동수업 시간으로 지정) 각 학교의 시간표를 부분 통합하여 교육과정 공동 운영용 시간블록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의 리더십과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조율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생 통학 및 안전 대책을 실행한다. 공동수업이 거점학교에서 열리는 경우, 협력학교의 학생들이 해당 시간에 거점학교로 이동해야 하므로 전세버스 운영이나 순환 차량제 등을 통해 학생 이동을 지원한다. 영덕군 사례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지원하여 4개교 학생들을 태워주는 셔틀 버스를 운행하였고, 이동 시간도 학습경험이 되도록 버스 안에서 간단한 사전학습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등의 아이디어도 활용되었다. 원격수업의 경우에도 각 학교 ICT 환경을 표준화하고 화상 수업 프로토콜을 만들

어 사전에 테스트를 거치는 등 기술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교원 인력 운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 공동수업을 담당할 교사를 배정할 때, 해당 교사가 공동수업을 위해 여러 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에 대한 업무 경감 조치나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시에 참여 교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교과별 공동계획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 공동수업을 운영한다면, 각 학교 수학 교사들이 월 1회 모여 공동 진도계획, 교재 준비, 평가문항 개발 등을 분담하고 조율한다. 이를 통해 공동수업의 내용과 진행이 어느 한 학교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효과를 줄 수 있도록 담보한다.

평가 방식에서는 공동 평가와 학교별 성적 처리를 병행한다. 공동수업 교과에 대해서는 중간·기말고사 또는 수행평가를 참여 학교가 동일한 난이도와 범위로 공동 출제하고 동시에 시행한다. 이후 채점은 담당 교사가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학교별로 분담하되 공동 성적 기준표를 적용하여 공정성을 유지한다. 성적 통지 시에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 수강생이라는 표기를 하여 학생의 기록을 남기며, 석차 산출 등의 문제는 공동으로 수강한 과목의 경우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등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이러한 실행 방안들은 궁극적으로 교과 공동운영이 단위 학교의 벽을 넘어 하나의 학급처럼 기능하도록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3) 창의적 체험활동 공동운영의 실행 방안

창체 영역의 공동운영은 교과에 비해 비교적 유연하나,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하므로 세밀한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 먼저 공동 프로그램의 분담 운영 원칙을 정한다. 참여 학교가 여러 개일 경우 특정 학교에만 부담이 치우치지 않도록 프로그램별로 주관 학교를 교대로 맡는 방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1학기에는 A학교가 주관하여 연합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2학기에는 B학교가 주관하여 공동 진로캠프를 준비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교가 고르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게 된다.

연간 공동행사 계획 수립도 중요하다. 학년 초에 당해 연도에 실시할 주요 공동 행사를 달력에 배치하여 학생들과 학부모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4월에 연합 체육대회, 7월에 공동 진로체험캠프, 10월에 연합 예술발표회, 12월에 합동 봉사활동 결과발표회를 열겠다는 식으로 연간 계획을 공유한다. 행사마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참여 인원, 장소, 예산, 안전대책, 역할분담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산 지원을 받고, 지역 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예를 들면 연합 예술발표회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하고 지역 예술가를 멘토로 초빙하는 등의 협력을 계획에 포함시킨다.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의 공동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모집 및 운영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다. 연합 동아리를 개설할 때 각 학교에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온라인 공동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동아리 공지와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한다. 예를 들어 메신저나 SNS 그룹을 만들어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소통하거나, 공동활동 기록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희망자가 적은 학교는 인근 학교 프로그램에 크로스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하여 함께 수강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 학교에 없는 동아리나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이웃 학교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안전 및 책무성 확보 측면에서는, 공동 창체활동 시 인솔교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행사별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한데 모이는 활동에서는 응급 상황 대처나 보험 가입 등 안전망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각 학교장은 자기 학교 학생들의 참가와 관련한 책임을 지되, 행사 주관 학교장이 총괄 책임을 지는 형태로 이중 관리체계를 둔다. 활동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차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한다. 이렇듯 철저한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할 때 창의적 체험활동 공동운영이 지속성과 내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4) 「함께자람 교육허브」의 운영과 인력 구성

「함께자람 교육허브」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교감 또는 교무부장, 협력학교 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구성된 지원팀을 둔다. 이 팀은 정기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코디네이터교사가 예산·일정 조율과 자료 관리, 학교 간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영덕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분기별로 학교를 방문해 운영을 지원한다.

허브는 개방과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거점학교의 도서관, 과학실, 컴퓨터실 등은 협력학교 학생에게 개방되며, 우수 교사는 순회수업이나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대로 협력학교 학생이 거점학교로 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학교 간 교류를 위해 화상회의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교사 공동교재 개발, 학생 온라인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허브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가상 협력의 중심이 된다.

운영은 계획-실행-평가-환류의 주기로 진행된다. 학년 초 교장단 협의회에서 연간 계획을 확정하고, 학기 중에는 월·분기별 협의회를 통해 출결, 성취도, 참여율을 점검한다. 2학기 말에는 성과보고회를 열어 사례 발표와 만족도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 개선 사항을 반영해 다음 해 계획을 수정한다. 이러한 주기적 관리로 공동운영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발전형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다.

5) 운영성과의 평가 및 환류

교육과정 공동 운영 평가는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함께 활용한다. 정량적 지표로는 학생 참여율, 개설 교과목 수, 공동 프로그램 횟수, 학업성취도 변화 등이 있으며, 설문과 성적자료를 통해 학력 신장과 진로 만족도를 측정한다. 정성적 지표는 학생·교사·학부모 만족도, 공동체 의식, 학교 분위기 변화를 중심으로 한다.

경북교육청은 공동 운영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참여자들의 긍정적 인식과 지역사회의 지지에 기반한다. 평가 결과는 언론 보도나 연구보고서로 공유해 성과를 확산하고, 우수 사례는 벤치마킹 자료로 제작해 타 지역 학교에 전파한다. 또한 학교 간 거리, 참여 격차 등 문제점은 운영 매뉴얼 보완과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6) 소규모학교 교육 혁신의 파급효과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71>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효과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 학생들도 도시 학생과 동일하게 다양한 과목 선택 가능 ■ 이웃 학교와 협력해 희망 과목 개설. 	교육 소외감 해소,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교육 복지 증진
학습 질 향상과 자기주도성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수업으로 학습 공동체 확대 → 활기·경쟁·협력 강화 ■ 공동프로젝트·발표활동 참여.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형성, 문제해결력·의사소통 능력 향상, 전인적 성장 촉진
사회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간 교류, 공동 동아리·행사 운영 ■ 또래관계망 확대, 다양한 배경의 학생 교류. 	사회성·협동심·리더십·책임감 발달, 정서적 안정, 포용력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간 공동 수업 기획·운영, 교수법 공유·피드백 ■ 공동연구협의체 참여. 	교사 전문성 강화, 교원 학습공동체 형성, 교육과정 리더 양성, 수업 질 개선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도 도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희망 과목을 이웃 학교와 함께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고, 교육 소외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복지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학습 질 향상과 자기주도성 신장: 공동수업을 통해 더 큰 규모의 학습 공동체가 형성되면 수업의 활기가 증가하고 경쟁과 협력이 촉진된다.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기를 수 있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공동프로젝트나 발표활동 등을 함께 수행하면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되는 등 전인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사회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여러 학교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이 발달한다. 공동 동아리, 연합 행사 등을 준비하며 협동심, 리더십,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사춘기 시기의 학생들에게 또래관계망을 넓혀주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섞여 활동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깊어져, 편협한 교우관계를 극복하고 포용력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 문화 조성: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 학교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교수법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학교 간 교원 학습공동체 문화가 형성된다. 아울러 공동연구협의체 활동을 통해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 교사 문화는 학교 전체의 수업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교육자원 효율화와 지역사회 활성화: 학교 간 자원 공유로 실험실·특별실 등 시설 활용률이 높아지고, 중복 투자 감소로 교육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또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의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활용이 활발해진다. 이는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학교가 지역의 학습 허브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예컨대 공동축제를 지역 공개 행사로 확대하면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어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소규모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자라며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혁신적 정책 모델이다. 경북 영덕의 모델학교 사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이러한 협력적 운영체제가 확산된다면, 교육의 질 제고와 형평성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구성원의 끊임없는 협의와 지원을 통해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작은 학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하길 전망한다.

V.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1.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철학과 구성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의 학생 주도 교육”을 표방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함양과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조한다. 총론에서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간상을 자기주도성, 창의·혁신, 포용과 시민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와 역량을 제시한다. 특히 디지털 소양과 생태 시민의식을 모든 교과에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교육목표 역시 개인의 성장과 사회 지속가능성, 생태 감수성을 반영하여 개선되었다.

핵심역량: 기존 교육과정의 6대 핵심역량(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심미적 감성, 공동체 역량)을 계승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생태 시민성을 전 교과에 강화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디지털 시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세대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의 내용에 반영하여 공동체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초 소양으로 언어, 수리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양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목 구성과 중점: 중학교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기술·가정, 영어, 예술(음악/미술), 체육 등으로 편성되며, 교과별 성격과 중점이 핵심역량과 연계되도록 재구조화되었다. 예를 들어, 국어과는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수학과 과학은 문제해결 및 탐구 역량을, 사회과는 비판적 사고와 시민 역량을 특히 기르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총론에 명시된다. 각 교과의 교육목표와 내용은 해당 교과의 고유한 역할(교과의 성격)을 살리면서도 융합적 소양을 기를 수 있게 조정되었다. 특히 디지털 기초 및 정보활용 능력은 기술·가정 교과와 정보 교과를 통해 강화하고(중학교 정보 수업시수 34시간→68시간 확대), 모든 교과에서 데이터 활용이나 정보윤리 등을 다루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구조와 이수 방식: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선택권과 맞춤형 학습을 확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핵심이나, 중학교 단계에서도 학생의 과목 선택 경험을 넓히기 위해 특정 교과 내에서 선택학습 요소를 마련하거나 자유학년제 운영 방안을 개선하였다. 예컨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학년 한 학기에서 벗어나 여러 학년·학기로 분산 운영할 수 있게 하여(예: 1학년 1학기+2학기, 3학

년 2학기 등), 모든 학년에 걸쳐 진로 탐색과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20% 범위 내 조정하여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편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교사에게도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되었다.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삶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과 전반에 미래 핵심역량을 녹여내며, 학교와 지역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지향한 결과이다.

2. 창의적 체험활동 · 교과융합 · 학생참여형 수업 등의 핵심 요소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여 작은 학교에서도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융합(통합), 학생 참여형 · 프로젝트형 수업은 소규모학교 공동운영에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요소들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역할: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은 교과 이외 영역에서 전인적 역량과 인성을 기르는 필수 요소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창체의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강화되었으며, 교과와의 상호 보완 및 연계가 특히 강조된다. 실제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통합을 지향하도록 설계되어 총론의 6가지 핵심역량 함양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의 환경 프로젝트를 창체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지역 환경정화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국어 교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과 창체 동아리활동(신문 동아리 등)을 접목하는 식으로 교과-창체 연계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통합적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 적용력과 협업능력, 공동체 의식을 실제 상황에서 길러낼 수 있다.

교과 융합 및 통합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수업을 장려한다. 모든 교과에 공통 주제(예: 생태, 인권, 진로 등)를 반영하고, 주제 중심의 블록타임 운영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종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 통합형 학습은 특히 작은 학교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데, 교사 수나 수강 인원이 적은 대신 유연한 소규모 수업을 활용해 한꺼번에 여러 교과 내용을 묶은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학문 간 경계를 넘는 주제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4C 능력(비판적 사고, 소통, 협업,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함이 드러난다. Ye & Xu(2023)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중학교 융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가 촉진되고 소통과 협업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비판적 사고력 또한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융합교육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와 협동학습을 이끌어냄으로써 핵심역량을 종합적으로 함양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학생 참여형 · 프로젝트 수업: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토의/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 개선과도 맞물리는데, 자유학기에는 강의식 암기식 수업을 줄이고 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형 수업 문화는 일반 학기에도 확산되어, 교사들은 발문과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 설계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단편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통해 학생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도 학습량 적정화 및 탐구 중심 구조로 개편되어, 학생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그 결과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며 함께 과제를 해결해가는 능동적 학습자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김상곤 등(2013)도 이러한 학생 참여형 수업 철학을 바탕으로 “교사는 가르치는 자에서 안내자로, 교과서는 절대적인 지침서에서 참고자료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 실제로 김상곤 前교육부장관은 혁신학교 수업 참관 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활발히 참여하는 생동감 넘치는 교실을 보며 그동안 꿈꿔왔던 공교육의 모습이 실현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학생 중심의 수업은 작은 학교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규모학교에서의 의의: 창체, 융합수업, 참여형 수업은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특히 유용하다.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관심과 참여기회를 줄 수 있어 교육 만족도가 높고, 학년 간 통합수업이나 교과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중등교육에서 교과통합 수업이 드물지만(교사 준비부담 등으로) 작은 학교일수록 융통성 있게 통합실천을 할 여지가 크다고 한다. Termaat(2023)은 소규모 중등학교가 오히려 대규모 학교보다 통합교육의 복잡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융합 수업을 위해 추가 협의시간 확보, 교시간표 조정, 교사들 공간적 협업, 교원회의 유연한 참여 보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소규모학교들이 협력을 통해 교사 전문성 공유와 교육과정 공동 개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2022 교육과정의 철학을 살릴 때, 학생 수는 적지

만 밀도 높은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작지만 강한 학교」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치이다.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를 마련하여 초·중학교에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연계형 선택과목 개설, 융합프로젝트, 보충·심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율적 교육활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높여 현장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려는 취지이다.

성격과 목적: 학교자율시간은 정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수의 일부를 유연하게 조정(최대 20%)하여 학교 재량으로 활용하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학교별로 고유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예컨대, 농촌 지역 학교는 지역 농업자원을 활용한 융합수업(예: 농촌체험 프로젝트)을 자율시간에 운영할 수 있고, 도시 학교는 인근 대학이나 기관과 연계한 심화과정 등을 개설할 수 있다. 목표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각 학교와 지역의 상황에 맞는 다양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배움의 동기를 높이는 데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지역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학교자율시간이 지역 단위 교육과정 공동 운영으로도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학교를 위한 활용 방안: 학교자율시간은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들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인근에 있는 여러 작은 중학교가 시간표를 조정하여 매주 특정 요일/교시에 공통의 학교자율시간을 확보한 뒤, 연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수업 형태는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공동 선택과목: 개별 학교에서는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예: 제2외국어, 코딩 심화 등)을 거점학교 한 곳에서 오프라인 개설하고 인근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여 듣도록 한다.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개설하여 각 학교 학생들이 원격 협업수업에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실제 경북교육청은 지역 내 두 학교 이상 학생이 함께 수강하는 교육과정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농촌 학교 1:1 매칭이나 예술·체육 분야 거점학교 운영과 같은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 프로젝트: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 프로젝트 학습을 공동으로 기획한다. 예를 들어 인근 3~4개의 소규모 중학교가 모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쓰레기 문제, 지역 관광자원 알리기 등)를 선정하고, 학교별로 맡은 역할을 나누어 협력한다. 학생들은

온라인 공동플랫폼을 통해 수시로 교류하고, 정기적으로 한 학교에 모여 워크숍이나 현장탐방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학교 간 공동 PBL은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팀원과 아이디어 교류 기회를 주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풍부한 자료와 전문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과정 상 필수 학습내용도 이러한 프로젝트 속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학습 결손 예방 및 보충: 소규모학교의 경우 특정 교과 교사가 부족하거나, 한두 명밖에 없는 과목이 있을 수 있다. 학교자율시간을 주변 학교와 공동 보충수업 시간으로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교사 공동수업을 열어 과목 간 교사 인력 공유가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실제 지침에서도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등에서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활용 및 지역 내 교육자원 공유를 활성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자율시간을 통한 공동 온라인 수업은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 시간표 협의와 운영 협약이 필요하다. 다행히 2022 개정안은 교과 및 창체 시수 조정의 탄력성을 허용하므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인근 학교들을 조율하여 공동의 자율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지원체제도 중요한데, 예산 지원이나 이동수업을 위한 교통편,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행정적 인정(성적 처리 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미 “다양한 학교자율시간 활용 모형 안내와 교원 역량 강화 등 현장 자율 혁신 지원”을 추진 중이어서, 이러한 소규모학교 공동운영도 하나의 모델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4.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모델 제안

(영덕교육지원청 지품중 · 축산중 · 병곡중 · 남정중 사례)

이 부분에서는 경상북도 내 지품중, 축산중, 병곡중, 남정중과 같은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들을 염두에 두고,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교과-창체 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들 학교는 각각 학생 수가 매우 적고 교원 수도 제한적이므로,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우리의 모델은 “작은 학교 교육공동체” 형태로, 네 학교가 하나의 캠퍼스처럼 연대하는 구상이다.

먼저 해당 학교들 간에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위한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여기에는 각 교 교감 또는 교무부장, 담당 교사 등이 참여하여 정기 협의회를 열고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계획, 실천, 평가를 함께 논의한다. 경북에서는 이미 인근 소규모학교끼리 권역별 공동교육협의회를 구성한 사례들이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협의체는

공동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역할 분담(주관 학교 지정 등), 세부 일정 조율 등을 맡는다.

네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각 학교의 특색 분야를 살린 프로그램 4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표 72> 교육과정 프로그램 설계 예시

학교	프로젝트명	주도 교사/교과	주요 활동
지품중 축산중	인문사회 프로젝트	사회·국어 교사	지역 역사문화 탐방, 유적지 답사, 마을 어르신 구술사 인터뷰
축산중 병곡중	과학환경 프로젝트	과학 교사	해안가 쓰레기 조사·정화, 해양생물 관찰, 축산항 100주년 기념사업, 가을밤愛 달빛 관찰(천체관측)
병곡중 남정중	예술체육 프로젝트	음악·미술 교사	미술제작, 전통예술 공연, 체육 놀이마당, 작은학교 예술제 개최
남정중	진로연계 프로젝트	담당 교사	진로체험 캠프, 직업현장 견학, 멘토링, 특강, 지역연계 마을 교사참여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교과 수업시간과 학교자율시간, 방과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진행한다. 각 학교가 1인 1역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분담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가 자신의 강점을 살린 교육활동을 제공하면서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생 구조가 된다. 청주 지역의 ‘이음 공동교육과정’ 사례에서도 작은 학교들을 2~3개 팀으로 묶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공동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했는데, 이처럼 팀별 분담 운영이 효과적이다.

교육과정 공동 운영 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예컨대 정규수업 시간에는 각 학교 교사가 자교 학생들에게 관련 기초수업을 하고, 주 1회 학교자율시간이나 격주 토요일 등을 활용해 학생들 합동 수업 또는 현장체험을 실시한다. 합동 수업은 돌아가며 네 학교가 거점학교가 되어 개최하는데, 이를테면 1학기에는 축산중에서 4개 학교 학생들이 모여 프로젝트 OT를 하고 팀을 편성한 뒤, 이후 온라인 협업을 거쳐 중간발표는 남정중에서, 최종 결과 발표 및 축제는 병곡중에서 여는 식이다. 실제 충북 청주에서는 작은 학교 간 “다 같이 돌아, 학교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들이 번갈아 가며 공동체험 활동을 주최하도록 했는데, 이는 작은학교들의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와 상호 교류를 통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 경북의 해당 4개교도 이와 유사하게 순환형 교류 학습을 하면 학교간 유대감도 높아지고 지역사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먼저 경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예: 학교 간 이동 버스 교통비, 체험활동 재료비 등)과 행정 지원(성적 처리 가이드, 안전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 공공기관, 마을교육활동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군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프로젝트 주제와 연계된 마을교육공동체 인프라를 연계해줄 수 있다면, 학생들의 배움이 교실을 넘어 마을현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소규모학교 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학교를 개방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조금주(2022)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적 논리로 작은 학교를 없애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작은학교 살리기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작은 학교들은 통폐합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네 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그 실현 모델이 될 것이다.

제안된 공동운영 모델을 통해 지품중, 축산중, 병곡중, 남정중의 학생들은 대도시 학교 못지않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교과 지식은 서로 다른 맥락의 프로젝트에서 심화·응용되며, 또래 학생이 적어 자칫 동기부여가 낮아질 수 있는 환경에서 타학교 친구들과의 협업과 경쟁을 통해 학습 활력이 생긴다. 교사들에게도 전문성 신장과 집단지성 형성의 장이 된다. 공동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사들은 교과를 넘나드는 팀티칭을 경험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배우며 작은학교 교사의 고립감도 해소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모델은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따뜻한 경북교육,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비전과도 부합하여, 향후 다른 권역의 작은학교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을 바탕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모델을 구현하면, 비록 학교 규모는 작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양한 배움의 경로를 경험하고 지역과 세계를 잇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작은 학교들의 큰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제안이 지품중, 축산중, 병곡중, 남정중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작은 학교 현장에 희망의 시나리오가 되기를 기대한다.

Ⅵ. 영덕군의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사례

1.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영덕군의 남정중학교, 병곡중학교, 지품중학교, 축산중학교 등 네 개 소규모학교가 2025학년도에 공동으로 추진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에는 국어과 글쓰기 프로젝트인 ‘숲바다 백일장’, 과학·사회 연계의 발명체험교실과 경제교육, 한동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영어 공동캠프, 영덕도서관 공동학습센터를 활용한 교과중심 공동수업, 지역 공연장을 활용한 ‘숲속학교 작은 음악회’, 장사상륙작전 전승 기념관을 연계한 역사 프로젝트 ‘아! 문산호, 호국의 길’이 포함된다. 각 프로그램은 학교 간 연합을 통해 교과 성취기준과 지역 교육자원을 치밀하게 결합함으로써 공동 설계와 공동 수업, 그리고 수행평가 중심의 공동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를 갖추었다. 이러한 구조는 수업 혁신의 시너지 창출, 학생 간 유대감 강화, 그리고 문해력·과학 탐구력·경제이해·글로벌 소통·예술 감수성·지역 시민성 등 핵심 역량의 증진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위한 교과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성과의 체계적 자료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와 교원 수의 제약으로 인해 개별학교 차원에서 심화·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구현하기 어렵다. 영덕군의 네 학교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간 공동운영을 선택하였으며, 지역의 자연·문화·대학·공공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와 창체의 다양성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프로그램이 어떠한 목표-활동-성과의 논리를 지니는지, 교과 성취기준과 지역 자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정합을 이루는지, 그리고 공동운영의 성공 요인과 한계 및 지속가능성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기술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계획 문서와 시간표, 활동 구성안을 일차 자료로 제시하였다. 분석에서는 목표, 성취기준, 활동 내용, 시간과 장소, 준비물, 기대효과를 체계적으로 대응시키고, 공동 설계-공동 수업-공동 평가의 연계 정도를 운영 강도로 해석하였다. 또한 투입-활동-산출-성가로 이어지는 로직 모델을 도출하여 프로그램의 교육적 기제를 설명하였다. 윤리적 측면에서 학생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되었으며, 이동과 안전관리 및 사진·영상 활용 동의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전제한다.

2. 영덕군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표 73> 영덕군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프로그램명	교과/영역	대상 학교	일시	장소	핵심 활동
숲바다 백일장	국어·창체	남정·병곡·지품·축산	2025. 5.9.(금)	영해 별영리 메타쉐콰리아 숲(우천 시 영덕도서관)	개회·글제 발표·백일장, 숲 산책·친교
발명체험교실 & 경제교육	과학·사회	남정·축산	2025. 6.10.(화)	경북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발명·메이커 체험, 경제교육(황리단길 사례)
한동대 글로벌 체험학습(영어캠프)	영어	축산·남정	2025. 7.7.(월)	한동대 글로벌 체험학습센터	생활영어·여행영어·캠퍼스 투어·문화이해
공동학습센터 기반 교과중심 공동수업	과학·수학·영어·기술·가정·창체	남정·병곡·지품·축산	2025. 7.16.(수)	함께자람교육허브(영덕도서관)	학년군별 프로젝트·Co-teaching·동아리 독서
숲속학교 작은 음악회	음악·창체	남정·병곡·지품·축산	2025. 9.9.(화)	영덕무형문화제 전승관 소극장	포펜즈·양상블·크로스오버·퀴즈·감상지
『아! 문산호, 호국의 길』	역사·창체	남정·병곡·지품·축산	2025. 9.17.(수)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문산호), 남정중 강당	지역사 퀴즈, 태극기 제작, 기념관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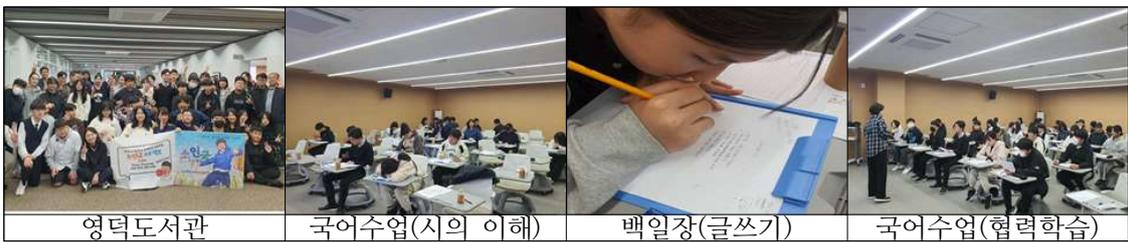
가. 국어과 글쓰기 프로젝트 ‘숲바다 백일장’

숲바다 백일장 운영 개요	
▶ 대상:	남정중·병곡중·지품중·축산중
▶ 일시:	2025.5.9.(금) 09:00 - 12:00
▶ 장소:	영해 별영리 메타쉐콰리아 숲(우천 시 영덕도서관)
▶ 준비물:	필기구(개인), 돗자리(학교별), 원고지는 현장 배부
▶ 운영 일정	
	08:30~ 학교→현장 이동 09:20~11:20 개회 및 글제 발표, 백일장
	11:20~11:30 시상 및 폐회 11:30~ 학교 복귀

‘숲바다 백일장’은 네 개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영해 별영리 메타쉐콰리아 숲에서 운영되었고, 우천 시에는 영덕도서관으로 대체하도록 계획되었다. 학생들은 개인 필기구를 지참하고, 각 학교는 돗자리를 준비하였으며, 원고지는 현장에서 배부되었다. 행사는 오전 8시 30분경 각 학교에서 출발하여 현장에 도착한 뒤 개회와 글제 발표를 거쳐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백일장을 진행하고, 11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상과 폐회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국어과 성취기준은 학년별로 달리 적용되었는데, 1학년은 ‘마음을 표현하는 법’ 단원과 관련된 [9국03-05]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 쓰기를 수행하였고, 2학년은 ‘문학작품의 관점’에 해당하는 [9국05-04]에 따라 화자와 시점 등 관점의식에 주목하며 작품을 수용하였다. 3학년은 ‘문학과 소통’ 관련 [9국05-01]을 적용하여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학 활동을 시도하였다. 숲이라는 자연 환경은 심미적 체험을 강화하고, 그 체험을 글로 구체화하도록 돕는 학습 맥락으로 작동하였다.

<그림 1> 국어과 글쓰기 프로젝트 ‘숲바다 백일장’



나. 과학·사회 연계 ‘발명체험교실 & 경제교육’

발명체험교실 & 경제교육 운영 개요	
▶ 대상:	남정중·축산중
▶ 일시:	2025.6.10.(화) 08:00 - 16:30
▶ 장소:	경북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 운영 일정	
08:30~ 이동	10:00~12:00 과학발명 체험관 수업(채움관/미래키움관/도전혜움관)
12:00~13:00 점심	13:00~15:30 황리단길 경제교육·체험 15:30~ 학교 복귀

남정중과 축산중이 참여한 과학·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2025년 6월 10일에 운영되었으며, 실제 요일은 화요일이다. 학생들은 오전 8시에 출발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발명 체험교육관에 도착한 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채움관, 미래 키움관, 도전혜움관을 순차적으로 체험하였다. 채움관에서는 발명가와 발명품, 아이디어 중심의 전시를 통해 발명의 개념을 익혔고, 미래 키움관에서는 다양한 로봇을 직접 다루며 첨단산업 기술의 원리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도전 혜움관에서는 오토마타 제작과 조작 등 놀이 중심의 메이커 활동을 통해 공학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을 경험하였다. 점심 후 학생들은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로 이동하여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지역 상권의 구조와 특성, 관광과 소비 패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경제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은 과학탐구와 공학설계 경험을 실제 지역경제의 분석으로 연결함으로써, 이공계적 사고와 사회과적 의사결정을 통합하는 STEAM

학습의 성격을 보였다. 프로그램은 오후 3시 30분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가) <그림 2> 과학·사회 연계 ‘발명체험교실 & 경제교육’



발명체험교실(과학)

메타버스 체험관

경제교육(사회)

에듀버스

다. 영어 공동캠프 ‘한동대학교 글로벌 체험학습’

한동대학교 글로벌 체험학습 운영 개요

- ▶ 대상: 축산중·남정중
 - ▶ 일시: 2025.7.7.(월) 08:30 - 16:30
 - ▶ 장소: 한동대 글로벌 체험학습센터
 - ▶ 운영 일정
- 09:30 - 10:00 입교식 10:00 - 11:00 영어 수업
 11:00 - 11:30 여행 영어(Passport Making) 12:30 - 13:00 캠퍼스 투어
 13:00 - 14:00 여행 영어(Travel Around) 14:00 - 15:00 국제교류(Welcome to Malaysia)
 15:00 - 15:30 수료식

영어 공동캠프는 축산중·남정중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7일(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한동대학교 글로벌 체험학습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이동 후 입교식을 통해 일정과 목적을 안내받고, 생활영어 수업에서 자기소개와 기본 의사소통을 연습했다. 이어 여권 만들기, 출입국 심사, 교통수단 이용, 식당 주문 등 여행 상황에서 필요한 영어를 실습했다.

점심 후에는 캠퍼스 투어로 대학 문화를 체험하고, ‘Travel Around’와 ‘Welcome to Malaysia’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별 문화와 국제 에티켓을 배웠다. 수료식으로 학습을 마무리하고 오후 3시 30분에 귀교하였다. 실제 캠퍼스 환경은 학생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그림 3> 영어 공동캠프 ‘한동대학교 글로벌 체험학습’



공동 영어캠프

영어부스 회화

세계시민 교육

수료식

라. 「함께자람 교육허브」 기반 교과중심 공동수업

「함께자람 교육허브」 기반 교과중심 공동수업 운영 개요

- ▶ 대상: 남정중·병곡중·지품중·축산중 ▶ 일시: 2025.7.16.(수) 08:30 - 12:10,
- ▶ 장소: 영덕도서관(공동학습센터) ▶ 준비물: 필기구, 교과서, 공책 등
- ▶ 학년별 운영 일정
 - 1학년: 과학(방향제 확산) → 수학(시계 만들기·유리수 연산) → 동아리(꿈 찾는 독서)
 - 2학년: 영어(Co-teaching, 환경포스터 제작) 2차시 → 동아리(행복 찾는 독서)
 - 3학년: 기술·가정(수송기술·신재생에너지 공작실습) 2차시 → 동아리(진로 찾는 독서)

영덕도서관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거점으로 한 교과 중심 공동수업은 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필기구와 교과서를 지참하고 학년별로 다른 교과 블록에 참여했다. 1학년은 과학 시간에 방향제로 확산 현상을 관찰하고, 수학 시간에는 시계 만들기를 통해 유리수 연산을 생활 맥락에 적용했다. 2학년은 영어 수업에서 ‘Earth, Our Only Home’을 주제로 환경 포스터를 제작하며 어휘·표현·시각화의 융합을 경험했다. 3학년은 기술·가정 수업에서 ‘수송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공작 활동을 하며 설계-실행-피드백 과정을 체험했다. 마지막 차시에는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꿈, 행복, 진로 등을 책과 연결해 성찰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간과 자원을 공유해 교과 간 연계와 학교 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공동학습 모델이다.

<그림 4> 「함께자람 교육허브」 기반 교과중심 공동수업



마. ‘숲속학교 작은 음악회’

숲속 작은 음악회 운영 개요

- ▶ 대상: 남정·병곡·지품·축산 ▶ 일시: 2025.9.9.(화) 13:00 - 15:30
- ▶ 장소: 영덕무형문화제 전수관 소극장 ▶ 준비물: 필기구, 음악 감상지(구들 시트)
- ▶ 운영 일정
 - 13:10 - 13:45 친교(간식) 14:00 - 15:00 공연(포핸즈·크로스오버·성악·드림)
 - 15:00~ 음악 상식 퀴즈, 소감지 발표 15:30~ 학교별 계획

‘숲속학교 작은 음악회’는 네 학교 학생이 함께 2025년 9월 9일(화)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영덕무형문화제 전수관 소극장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학교별로 이동해

필기구와 음악 감상지를 준비하고, 공연 후 소감을 작성했다. 프로그램은 친교의 시간으로 시작해 피아노 포핸즈, 성악 앙상블, 클래식 크로스오버, 드럼 공연을 차례로 감상했다. 이후 음악 해설 수업과 상식 퀴즈로 학습을 정리하고, 감상 발표를 통해 감상-지식-표현이 연결되는 학습을 완성했다. 이 경험은 문화예술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정서적 풍요와 표현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그림 5> 숲속학교 작은 음악회



공연 관람 / 작은음악회

바. 역사 프로젝트 ‘아! 문산호, 호국의 길’

아! 문산호, 호국의 길 운영 개요

- ▶ 대상: 남정·병곡·지품·축산
- ▶ 일시: 2025.9.17.(수) 09:00 - 11:30
- ▶ 장소: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문산호), 남정중 강당
- ▶ 운영 일정
 - 09:00-09:30 친교(간식) 09:30-10:00 역사 퀴즈(근현대사 바로 알기)
 - 10:00-10:30 따로 또 같이 태극기 제작 10:30-11:30 문산호 견학
 - 11:30~ 학교별 자체 운영

역사 프로젝트는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문산호)과 남정중학교 강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간단한 친교 이후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지역 역사 퀴즈대회를 치렀고, 이어서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로 태극기를 제작하며 공동체 상징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탐구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문산호를 견학하면서 전시물을 통해 전쟁의 기억과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현장에서 학습하였다. 프로그램은 학교별 후속 활동 계획에 따라 마무리되었으며, 역사적 장소가 지닌 기억의 힘이 시민성 교육의 토대로 작용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림 6> 역사 프로젝트 ‘아! 문산호, 호국의 길’



역사 수업

태극기 만들기 실습

애국 캠페인

문산호 관람

3. 시사점

소규모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다양한 수업 방법을 실제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수업의 신선도와 밀도를 높였고, 학생 간 교류의 폭을 넓혀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진시켰다.

아울러 숲, 도서관, 대학, 공연장, 기념관 등 지역의 교육자원 생태계를 교육과정의 일부로 통합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지닌 학습 경험을 축적하였다. 성과 평가는 각 교과 의 산출물을 중심으로 한 수행평가가 타당하다. 예컨대 백일장 작품은 내용의 충실성, 표현의 정밀성, 관점 의식, 소통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고, 과학·사회 연계 활동 은 메이킹 결과물과 경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문제 해결과 추론, 의사결정의 질을 가늠 할 수 있다. 영어 공동캠프는 역할극과 상황별 과업을 통해 유창성과 정확성, 상호작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수학·과학 활동은 설계-실행-피드백의 공학적 순환을 반영한 제작물 평가가 적합하다. 음악회에서는 감상지와 퀴즈 결과가 지식과 감성의 균형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역사 프로젝트에서는 퀴즈 성과와 제작물, 견학 후 성찰 글이 사료 기반 사고와 시민성의 성장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이러한 교과별 평가에 더하여 참여도와 협력 지수, 학생·교사 만족도, 그리고 활동 포트폴리오를 종합하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영덕군 소규모학교의 공동운영 사례는 교과 성취기준, 지역 자원, 학교 네트워크를 삼각 축으로 결합하여 소규모학교가 직면한 제약을 협력과 연합으로 돌파하는 실행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장성에 기반한 프로젝트형 수업과 수행평가 중심의 검증은 학생 역량을 맥락 속에서 성장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향후에는 공통 루브릭을 활용한 성과의 데이터화, 학습효과의 종단적 추적, 그리고 지역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정·거버넌스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때, 본 사례는 농 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과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모델로서 충분한 확장 가능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VII.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1.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와 작은 학교 증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과목 개설과 학습 경험 제공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어렵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도시 이동이 늘며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인근 학교 간 공동수업, 도시-농촌 연계, 원격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함께자람 교육허브」는 이러한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여러 학교 학생이 모여 수업하거나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공간이다. 작은 학교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농산어촌 학생도 도시 학생처럼 다양한 교과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교육 수준 향상과 학생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허브의 설치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제안한다.

가. 설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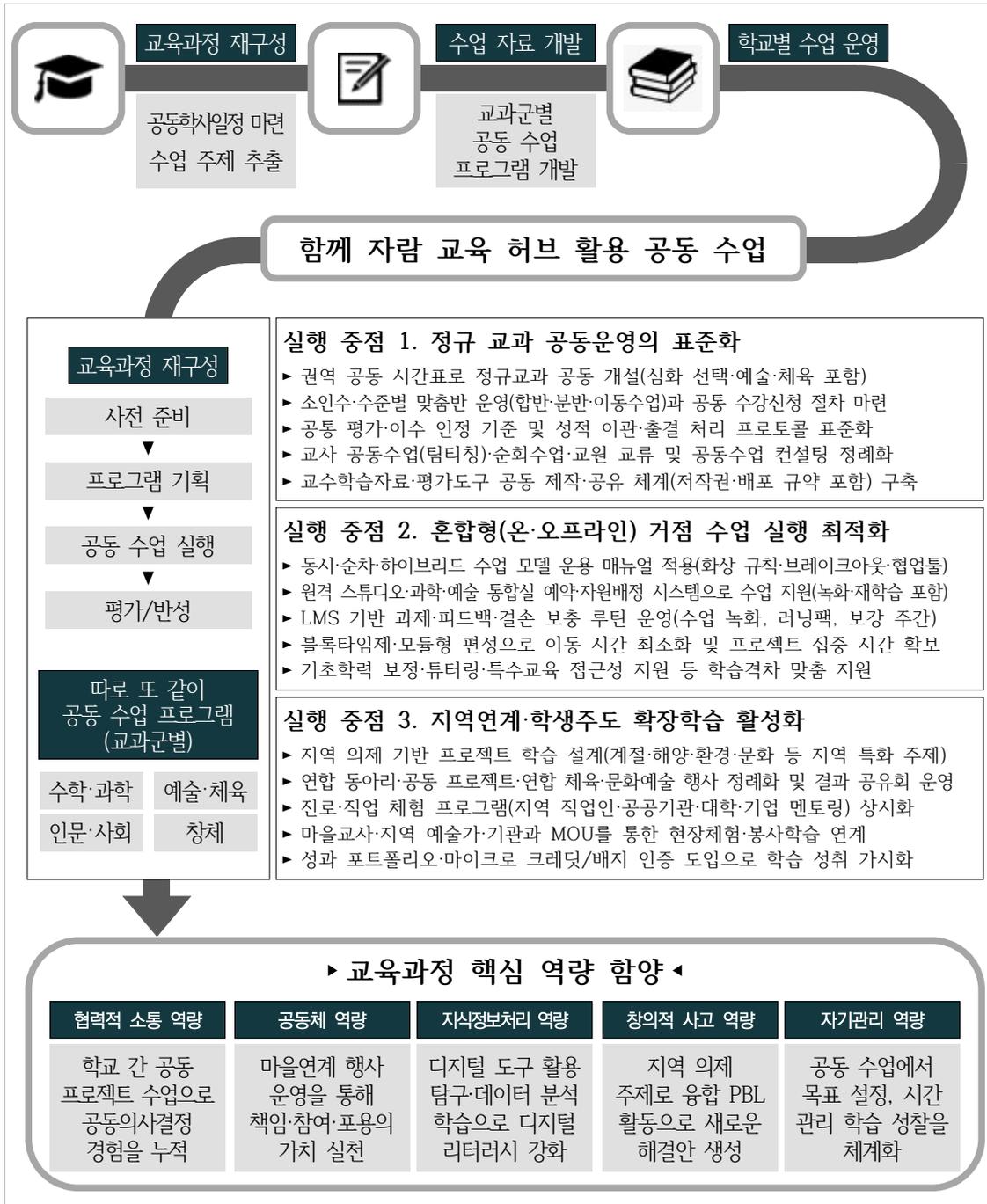
작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운영 기반이 필요하다. 학생 수 감소로 단독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인근 학교와 함께 운영하려면 학생들이 모일 거점이 중요하다. 교육허브가 있으면 공동수업, 프로젝트 학습, 원격수업이 가능하며, 우수 교원이나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지역 전체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브는 학습공간을 넘어 지역 교육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한다.

나. 운영 기본 방향

「함께자람 교육허브」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습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낮에는 중학생 대상 공동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습이, 저녁이나 주말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복합 공간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시설을 구축·운영하고, 학교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원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예산과 행정,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품질 향상, 지역사회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함께 실현하는 방향으로 교육허브를 운영해야 한다.

다. 「함께자람 교육허브」 활용 공동 수업 흐름

<그림 7> 「함께자람 교육허브」 활용 공동 수업의 흐름



라. 설치 방식 비교 및 제안

「함께자람 교육허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각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 실현 가능성을 경상북도 농산어촌 지역 여건에 맞춰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표 74> 「함께자람 교육허브」 유형별 장단점 비교

유형	주요 내용	장점	단점	실현 가능성
지자체 협력형	군청·도서관·청소년수련관 등 지자체 시설을 교육허브로 활용 또는 공동 설치·운영	초기 투자비용 낮음, 행정 협력 용이, 접근성 높음, 방과후·청소년 프로그램 연계 용이	교육 전용 공간 아님 → 최적화 한계, 특수 설비 부족, 주민 이용과 시간 충돌 우려	학생 수 적은 읍·면 지역 적합, 지자체 교육 협력 의지 높을 때 유리, 실제 도서관 리모델링 활용 사례 있음
교육청 유휴시설 리모델링형	폐교·연수원·실습소 등 유휴 교육시설을 개조	교실·특별실 등 인프라 확보 용이, 부지 매입 불필요, 비용 절감, 지역 자산 재활용 효과	노후 건물 개보수 비용 부담, 외진성 위치일 경우 접근성 낮음, ICT 최신 설비 구축 제약	경북 폐교 부지 활용 여지 큼, 중심지 입지 조건 중요, 주민 의견수렴 필요, 타 지역 청소년센터 전환 선례 있음
독립 건물 신축형	전용 교육허브 신축, 맞춤형 설계·최신 시설 구축	공간 최적 설계 가능, 최신 설비·다양한 학습공간 확보, 지역 교육혁신 상징성, 신뢰·기대 제고	초기 비용·시간 많이 소요, 예산 확보 어려움, 운영 인력·프로그램 뒷받침 필요	교육열·주민 요구 높고 재정 지원 가능 지역에 적합, 교육부 공모사업 활용 가능, 지자체 협력·운영계획 필수

▶ **지자체 협력형**: 기존의 지자체 시설과 협력하여 교육허브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군청 산하 문화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일부 공간을 교육허브로 활용하거나,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이 교육공간을 설치하여 공동 운영하는 모델이다. 장점은 비교적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행정 협력이 수월하다. 이미 있는 시설을 활용하므로 빠른 시일 내 운영이 가능하고, 주민들도 익숙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접근성이 높다. 또한 지자체 시설과 연계해 방과후 돌봄, 청소년 프로그램 등 부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에 유리하다. 그러나 교육 전용 공간이 아니다 보니 학교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설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방음이나 실험실 설치 등 특수 설비가 부족하거나, 주민 이용과 시간대가 겹칠 경우 공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학생 수가 극히 적어 단독 시설 투자 효율이 낮은 읍·면 지역에 적합하며, 지자체의 교육 협력 의지가 높을 때 실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인근 A군에서는 군립도서관의 유휴 강좌실을 리모델링하여 교육허브 겸 방과후학교 거점으로 활용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 **교육청 유휴시설 리모델링형**: 교육청 소관의 유휴 교육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학생 감소로 폐교된 학교 건물이나, 사용률이 낮은 교육연수원, 과학실습소 등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교육허브로 만든다. 장점은 학교 용도로 지어진 공간을 활용하므로 교실, 특별실 등 기본 인프라를 비교적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부지 매입이 불필요하고, 비교적 경제적인 비용으로 거점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폐교 활용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 메시지를 주어 지역 자산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호응을 얻는다. 그

러나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다면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위치가 지리적으로 외진 곳일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이 접근하기 불편하면 허브로서 기능이 저하된다. 또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최신 ICT 인프라나 설비를 구축하는 데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경북 지역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생긴 폐교 부지가 많아 선택지가 있으나, 입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상적인 것은 여러 학교가 모이기 편한 중심지에 가까운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며, 해당 건물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교육활동에 적합하게 고치는 작업이 뒤따른다. 교육청 내부 절차와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군에서 폐교를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로 탈바꿈한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 **독립 건물 신축형:** 새로운 전용 교육허브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이다. 부지를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맞춤형 시설을 처음부터 설계하여 짓다면 장점은 뚜렷하다. 지역 여건과 요구에 맞게 공간을 최적 설계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필요한 최신 설비와 다양한 학습공간을 모두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격수업 스튜디오, 과학·예술 통합실, 다목적 강당 등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상징성 있는 건물로 지역 교육 혁신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의 신뢰와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도 크다. 다만 초기 건립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실현이 지연될 수 있고, 부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까지 절차가 길다. 또 시설이 과도하게 훌륭해도 운영 인력이나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도 있다.

이는 교육열과 주민 요구가 높고, 지방재정이나 특별교부금 지원이 가능한 곳에서 추진할 수 있다. 경북 농산어촌 일반의 경우 단독 신축은 쉽지 않으나,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신축 시에는 반드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향후 운영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지 설치 방안을 비교한 결과, 지역 규모와 여건에 따라 혼용 전략이 필요하다. 학생 밀집 지역(예: 군청 소재지)은 신축형 또는 리모델링형 거점센터를 두고, 면 단위에는 지자체 협력형 소규모 허브를 둘 수 있다. 경북 농촌 지역은 중심거점-위성거점 구조로 허브망을 구축해 협력적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기보다 권역별로 적정 규모의 허브를 분산해 학생 이동거리를 줄이고 지역 밀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 「함께자람 교육허브」의 인력 구성 및 협업 체계

교육허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전담 행정·교육 인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안

하는 기본 인력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75> 「함께자람 교육허브」 구성 및 협업 체계

구분	주요 역할	담당 업무	적합 인력/배치
교육과정 기획·운영 담당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교무·기획 핵심 인력	시간표 편성, 강사 수급, 수업 품질 관리, 교과 개설·학생 선발·성적평가 공동 운영 지침 마련	교육청 파견 장학사·교 육전문직, 경력 교원
허브 시설 운영 관리자	교육허브 건물·설비 행정 관리	시설 예약·안전 점검·예산 집행·비품 관리, 학생 이동·급식 지원, 지역 행정 기관·경찰과 안전망 구축, 시설 대관 조정	지자체 평생교육 부서 공무원, 교육청 행정 직, 상근 1~2명 배치
지역연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프로그램 기획	진로체험·동아리·방과후·봉사학습 기 획, 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 영	지자체 평생교육사, 주 민자치센터 담당자, 계 약직 전문가

▶ **교육과정 기획·운영 담당자:** 교육허브의 교무 역할을 하는 핵심 인력이다. 지역 학교들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공동 운영 시간표를 편성하고, 강사 수급과 수업 품질 관리를 담당한다. 보통 교육청에서 파견된 장학사나 교육전문직, 혹은 교육경력이 풍부한 교원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들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담당 교사들과 협의체를 이루어, 교과 개설, 학생 선발 및 이동, 성적 평가 등에 대해 공동 운영 지침을 만든다.

▶ **허브 시설 운영 관리자:** 교육허브 건물 및 설비의 행정관리를 책임지는 인력이다. 일종의 관리자(매니저)로서 시설 예약 관리, 안전 점검, 예산 집행, 비품 관리 등을 수행한다. 학생들의 등하원(이동) 조율, 급식이나 간식 제공 같은 실무도 이 부서에서 챙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평생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이나, 교육청 행정직원 중 전담 배치가 가능하며, 규모에 따라 1~2명 상근이 필요하다. 이들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과 연계해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설 대관 시 지역 단체와의 조정 역할도 맡는다.

▶ **지역연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교육허브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인력이다. 지역의 예술가, 직업인,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진로체험, 동아리, 방과후활동, 봉사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주민 대상 저녁 강좌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도 함께 맡아, 허브가 지역 평생학습 센터로도 기능하도록 한다. 이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사나 주민자치센터 담당자가 겸임하거나, 별도로 계약직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력들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업 체계 하에 움직인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자는 관내 중학교·고등학교와 정례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공동 운영 사항을 결정하고 피드백을 나눈다. 각 학교 교장단 회의에서도 교육허브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한다. 교육지원청은 허브 운영을 총괄 조정하며, 필요 시 예산 지원과 행정 처리를 담당한다. 또한 교육청 단위에서 원격수업 지원센터 역할

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 도내 다른 지역과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연계도 가능하다. 지자체도 협업 체계에 포함되어,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 간 3자 협의회를 통해 시설 운영 시간, 주민 프로그램 일정 등을 조율한다. 요컨대, 「함께자람 교육허브」 인력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수직적 협력과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수평적 협력을 동시에 수행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바. 「함께자람 교육허브」의 공간 구성안

「함께자람 교육허브」는 다양한 학습 활동과 복합 활용을 고려하여 다목적 학습공간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주요 공간과 그 기능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일반 교실 공간: 기본 강의실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여러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수의 강의실을 확보한다. 각 교실은 20~30명 규모 학급을 수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벽을 열어 합반 수업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쓸 수 있게 가변형 칸막이 등을 도입한다. 이 공간에서는 일반교과 수업이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공동 수업 학교 프로그램이 주로 이뤄진다.

<표 76> 「함께자람 교육허브」 공간 구성

구분	주요 기능	활용 사례 및 특징
원격수업실	ICT 기반 온라인 스튜디오형 교실	대형 스크린·카메라·음향·단말기 구비, 원격지 강사 강의, 타지역 교류 수업 (코딩·제2외국어 등)
프로젝트 학습실	창의적 문제해결·팀 프로젝트 공간	이동식 책상, 메이커스페이스형 실험실, 동아리·R&E 실습, STEAM 프로그램 운영
예체능실	예술·체육 활동 공간	음악실(방음), 미술실(제작·전시), 다목적 체육홀, 방과후 예술·전통문화 프로그램, 주민 개방형 활용
진로상담실 및 교수학습 지원실	상담 및 행정 지원 공간	전문 상담, 진학·직업 정보 제공, 학부모 상담, 상주 교원·강사 업무 및 협의 공간, 허브 운영 컨트롤타워
자율학습실 및 휴게 공간	자습·휴식·교류 공간	열람실·인터넷 강의존, 학습카페형 라운지, 학생 교류·토론 공간, 주민 개방 가능
다목적 강당	대규모 행사·커뮤니티 공간	입학·수료식, 학부모 연수, 설명회, 발표회, 주민 문화행사(강좌·영화 상영), 가변 좌석으로 강의실 겸용

▶ 원격수업실: ICT 인프라를 갖춘 온라인 스튜디오형 교실이다. 대형 스크린, 고성능 카메라, 음향장비, 그리고 학생들이 개별 단말을 사용할 수 있는 좌석으로 구성한다. 이 방에서는 다른 학교와 화상 연결 수업을 하거나, 원격지 강사가 실시간 강의할 때 활용한다. 예를 들어, 인근에 교사가 없는 전문 과목(코딩, 제2외국어 등)을 개설하거나, 경북-전남 간 온라인 공동수업처럼 지역 간 교류 수업을 진행할 때 이 공간이 사용된다.

▶ 프로젝트 학습실: 창의적 문제해결과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열린 학습 공간이다. 이동식 책상과 토의 공간, 실험 및 제작 도구를 갖춘 메이커스페이스 성격의 실험

실로 꾸민다. 학생들이 공동과제를 수행하거나 동아리 활동, R&E(Research & Education) 형태의 실습을 할 때 활용된다. 예를 들어, 과학·발명 동아리의 공동 프로젝트나, 초·중 연계 STEAM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운영해볼 수 있다. 충분한 바닥 면적과 유연한 가구 배치를 통해 협동학습과 탐구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한다.

▶ 예체능실: 예술·체육 활동 공간으로, 농산어촌 학교에서 부족하기 쉬운 음악·미술·체육 시설을 허브에 마련한다. 방음시설을 갖춘 음악실(합주실), 작품 전시와 제작이 가능한 미술실, 그리고 실내 체육이나 무용 수업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을 고려한다. 특히 체육관의 경우 지역 주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체육관으로 설계하면 학생들은 양질의 체육 수업을, 주민들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 예체능실은 학생들의 소질 계발을 돕고 다양한 예술·문화 체험 프로그램(예: 방과후 연극교실, 전통예술 교실 등)이 열리는 공간이 될 것이다.

▶ 진로상담실 및 교수학습 지원실: 학생들의 진로 지도와 개별 상담, 그리고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위한 공간이다. 진로상담실에서는 전문 상담교사나 진로진학 담당자가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대학 입시 정보 자료, 직업세계 정보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 상담도 할 수 있게 한다. 교무실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지원 공간도 필요한데, 이는 허브 상주 교원 및 강사들의 업무 공간이자 협의실로 활용된다. 학교에서 파견은 교사들이 이곳에 자리하여 교재 준비나 회의를 할 수 있고, 허브 운영진과 실시간 소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 자율학습실 및 휴게 공간: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습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공학습 공간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넓은 열람실 형태의 자율학습실을 두어 방과후나 주말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며, 인터넷 강의 수강 존(zones)도 마련한다. 편안한 소파와 잡지, 도서를 비치한 라운지 공간도 운영하여 학생들 간 교류와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공간은 학습 카페처럼 디자인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주민들도 일정 시간 이후에는 와서 책을 보거나 할 수 있게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 다목적 강당: 비교적 큰 규모의 강연 및 행사 공간으로, 허브의 중심 커뮤니티 홀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입학식/수료식, 학부모 연수, 진학설명회, 각종 발표회가 개최된다. 지역 주민 대상 문화행사(예: 인문학 강좌, 영화 상영)도 열 수 있게 음향·영상 장비를 완비한다. 강당은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가변 좌석으로 필요 시 공간을 분할하여 강의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평소에는 2개 반이 동시에 수업하는 큰 강의실로 쓰다가, 행사가 있을 때는 통합하여 강당으로 쓰는 형태다.

공간들을 하나의 허브 내에 배치할 때는 동선과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

끄러운 체육/예술 활동 구역과 조용한 자율학습 구역을 층이나 동(棟)을 달리하여 배치하고, 교실과 실험실은 인접시켜 통합 프로젝트 수업에 용이하도록 한다. 교무실과 운영실은 중앙에 두어 모든 공간을 모니터링하기 쉽도록, 학생 동선의 중간에 배치한다. 가능하면 건물 입구 근처에 라운지와 전시홀을 두어 허브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프로젝트 산출물이나 작품을 전시하고, 방문자와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교육성과를 공유하도록 개방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사. 지자체 협력에 따른 복합 활용 및 기대 효과

「함께자람 교육허브」는 교육 전용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 복지·문화 공간으로 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낮 시간에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방과 후 저녁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시설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활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학생 교육측면: 농산어촌 학생들은 교육허브를 통해 도시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교육과정 공동 운영 참여로 사회성 및 협업능력이 향상되고, 여러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며 경쟁력도 높아진다. 우수 강사진의 수업과 풍부한 설비를 활용한 실습으로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어, 지역학생도 수도권 학생 못지않은 진학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경북의 일부 군에서는 공립 학원(인재양성원)을 통해 서울대 등 명문대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고,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된 사례가 있다. 이는 학생·학부모에게 “지역 학교를 다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고, 지역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지역사회 측면: 교육허브가 커뮤니티 센터로 기능함으로써 주민들의 평생교육, 문화 생활 수요를 충족시킨다. 예컨대 저녁에는 성인 대상 외국어강좌, 컴퓨터교실, 독서토론 모임,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함께 누리도록 한다. 세대간 교류도 촉진되어 낮에는 학생들이 쓰던 공간에서 밤에는 어르신들이 강좌를 듣는 등 세대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학교에 대한 이해와 지원도 커진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경계를 허물고 협력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 행정 및 경제 측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별도의 주민복지시설을 새로 짓는 대신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므로 투자 효율이 높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을 공유하면 서로의 재정 부담을 덜고,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젊은 층의 지역 정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떠나는” 사례를 줄여 지방 인구유출을 막는 효과가 크다. 지역

에 좋은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면 오히려 도시에서 역으로 귀촌하여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유도할 수 있어, 지역 활성화와 지방 소멸 대응에도 기여한다.

미래 인재 육성 측면: 「함께자람 교육허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과정 경험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 다른 학교 친구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하거나, 지역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수업 등을 통해 창의력, 공동체 의식, 문제해결능력이 증진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인재가 지역에 애착을 갖고 돌아와 기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허브가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면, 지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 인적자원이 배출되고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요컨대, 「함께자람 교육허브」의 복합 활용은 “학교시설을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평생교육·문화 복지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win-win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부와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밀착형 생활SOC로서 학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교육허브의 복합 활용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 시키면, 경북 농산어촌은 “작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 영덕군 함께 자람 교육 허브 구축 구상 : 공립학원을 활용한 교육 허브 구축

경상북도 영덕군은 「함께자람 교육허브」 구상의 선도 사례로 주목된다. 2010년대 이후 교육투자를 확대해 지역 학생의 학력 향상과 유출 방지를 추진했으며, 그 핵심이 공립학원인 영덕군 인재양성원이다.

2009년 인재양성원(영덕교육발전협의회)을 설립하고 2011년 100억 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 공립학원 건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중·고생에게 무료 보충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인근 의성군·고령군의 공립학원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이후 영덕군은 2025년 미래인재양성관을 완공했다. 지상 3층 규모의 이 시설은 강의실, 자율학습실, 대강당, 상담실 등을 갖춘 공립 기숙형 학습관으로, 외부로 나가던 교육 수요를 지역 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게 했다. 도시 학원으로 월정 가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서도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인재 양성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설을 주간 교육허브로 활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이다. 평일 주간에는 공간이 여유로워 여러 중학교 학생이 모여 공동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선택 과목을 군 단위로 운영하고, 군청이 이동을 지원하며 교육지원청이 교육과정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촌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습 기회 보장을 돕는 방안이다.

미래인재양성관은 강의실, 자습실, 대강당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 중이다.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재단이 운영을 맡아 학교와 지역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영덕군 사례는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재정 지원의 중요성, 둘째, 교육청-지자체 협력 모델 구축, 셋째, 시설의 다목적 활용 가능성이다.

결국 영덕군의 공립학원과 주간 활용 방안은 「함께자람 교육허브」의 실증적 모델이다. 이 시설이 “낮에는 공동교육, 밤에는 학원”으로 정착한다면 농산어촌 교육혁신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향후 효과를 분석해 경북 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마을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영덕군의 지품중·축산중·병곡중·남정중 등 4개 소규모 중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공교육을 새롭게 재구조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마을공동체 기반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있으며, 영덕군은 2024년 경북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이를 추진 중이다.

영덕군수는 “군과 교육기관, 마을이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고는 영덕군 소규모 중학교를 사례로, 지역 전문가·직업인·체험시설 등 마을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역 자원 탐색,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협력 체계, 기대 효과를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가.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필요성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시골 학교의 교육 품질을 높이려면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통해 학교와 주민·기관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지역체험활동, 농촌마을 협력, 지역자원 활용 프로젝트, 세대 간 평생학습 등을 통해 학

생은 실제적 배움을 얻고, 지역은 활력을 되찾는다. “적막했던 시골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돌아왔다”는 평가처럼 지역 만족도도 높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행복교육지구’와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며, 정규 교과와 자유학기제, 방과후, 돌봄까지 아우르는 지역 연계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요컨대,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전략이다.

나. 영덕군 마을공동체 교육 자원 분석

영덕군은 동해안의 해양자원과 풍부한 농산물, 특색있는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으로,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마을공동체 자원이 있다. 해당 지역에서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활용 가능한 주요 자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7> 영덕군 마을공동체 교육자원 분석

구분	주요 자원/인력	활용 방안	기대 효과
문화예술인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향토 예술가, 지역 문화단체	예술 수업·동아리 강사 참여,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유산 체험, 예술적 영감 전달, 향토문화 이해 증진
해양직업인	어부, 수산업 전문가, 해양센터 강사, 해양경찰	해양환경 진로체험, 어촌 직업 체험, 해양생물 실습·동아리 활동	과학·진로 연계 학습, 해양환경 의식 고양, 지역 수산업 이해
농업인 및 농촌체험 자원	농부, 산촌 해설가, 농촌체험마을(속곡산촌 생태마을 등)	농촌체험(수확·가공), 숲 생태체험, 학교 텃밭·농업 직업 체험	먹거리·농촌 가치 이해, 공동체 의식 함양, 진로 탐색 기회
환경단체 및 생태자원	영덕국유림관리소, 해양환경단체, 풍력발전 기업 등	숲·바다 생태체험, 플로깅, 환경·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생태환경 보전 의식 강화,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이해 증진
향토사 전문가	향토사 연구자, 문화해설사, 향교 유림	지역 역사 강의·답사, 역사 체험 행사, 향토사 동아리 운영	역사 의식·지역 정체성 강화, 세대 통합 학습, 자긍심 제고
지역 공공기관 및 체험시설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광재단, 자원봉사센터	기관 견학, 전문가 강연, 직업탐방, 동아리 협력, 방과후·토요 프로그램	실습·체험학습 기회 확대, 봉사·진로활동 지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 문화예술인: 지역 예술가와 전통문화 보유자는 학교 예술수업과 동아리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영덕 월월이청청’ 전승 활동이나 전통민요춤 체험은 학생들에게 향토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좋은 사례다.

▶ 해양 직업인: 영덕은 어업과 수산업이 활발하며,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생태·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생들은 바다 생태 조사나 어업 체험을 통해 과학·진로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농업인 및 농촌체험 자원: 지품면 속곡산촌생태마을은 폐교를 활용한 체험마을로, 숲 해설·두부 만들기 등 농촌체험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기술·가정 교과나 진로체험의 현장교사로 참여할 수 있다.

▶ 환경단체 및 생태자원: 숲 해설, 해양정화 활동 등 환경단체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동아리나 봉사활동으로 연결 가능하다. 풍력발전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체험도 가능하다.

▶ 향토사 전문가 및 역사자원: 영덕은 항일의병과 향교문화 등 풍부한 향토사를 지닌 지역이다. 향토사 연구가, 문화해설사, 유림 등은 역사수업과 현장체험의 인적 자원이 된다. 학생들은 향토사 동아리나 지역 인물 연구를 통해 정체성을 기를 수 있다.

▶ 공공기관 및 체험시설: 도서관, 문화관광재단, 해양청소년센터 등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탐색, 봉사활동의 협력 파트너다. 2024년부터는 도교육청과 군의 지원으로 ‘마을학교’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요약하면, 영덕군의 문화·예술·해양·농업·환경·역사·공공 분야 자원은 모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중요한 교육 자산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교과,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로 구체화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다. 마을공동체 연계 교육과정 프로그램 제안

영덕군의 마을공동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과정,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전 영역에 걸쳐 입체적인 연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각 교육과정 영역별로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표 78> 교과 영역별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 예시

교과	지역 연계 자원	활용 방안	기대 효과
국어/사회	지역 인물·향토사 전문가, 독립운동 유적지	신돌석 장군 일대기 읽기·토론, 독립운동 유적지 조사·발표, 전문가 해설	교과 지식과 지역 현실 연결, 학습동기 향상, 지역 이해·애향심 고취
역사	향교·서원·전통마을, 문화해설사·유림	문화유산 답사 학습, 현장 해설 수업	지역사 직접 체험, 역사적 사고력 함양, 정체성 강화
과학	해안 지질·기후, 산림·연안 생태, 국유림관리소, 해양환경체험센터	지질·기후 관측, 숲·연안 생태 조사, 전문가와 공동 탐구 활동	탐구과정 체험, 현장 적용력 강화, STEAM 교육 실현
수학	수산시장 자료, 대계 포획량 데이터, 풍력발전기	통계 분석(수산물 데이터), 수학적 모델링(풍력발전)	수학의 실용성 체감, 지역 경제·산업과 연계된 학습, 학습흥미 증진
기술·가정	농산물·전통식품, 농업인·장인, 목재문화체험장	지역 농산물 가공(잼, 두부), 발효 체험, 목공 제작 프로젝트	생활·산업 밀착형 실습, 문제해결 학습, 진로·생활 역량 함양

1) 교과 교육과정과 지역자원 연계

▶ 국어/사회 교과: 지역의 향토사 이야기와 지역 인물을 국어의 읽기 자료나 사회과 탐구과제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영덕 출신 인물인 신돌석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글을 국어 시간에 읽고 토론하거나, 사회 시간에 영덕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조사·발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향토사 전문가가 수업에 참여하여 배경설명을 보충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과 지식을 지역 현실과 연결지음으로써 학습동기가 향상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郷심을 키울 수 있다.

▶ 역사 교과: 교실에서 배우는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역사로 확장한다. 예를 들어 영덕의 문화유산 답사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덕읍 내의 향교, 서원, 전통마을 등을 역사 시간에 답사한다. 사전에 역사 교사가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현장답사 당일에는 지역 문화해설사나 향교의 유림 어른신이 해설을 맡아 학생들에게 깊이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생들은 지역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들으며, 교과서의 국가사적 맥락 속에서 자기 고장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 연계 역사수업은 학생들에게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 과학 교과: 지역의 자연환경과 과학기술 자원을 과학 수업의 산교재로 삼는다. 예를 들어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영덕 해안의 지질, 기후를 관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생물 분야에서는 인근 산림이나 연안에서 생태계 조사 실습을 할 수 있다. 영덕군은 산과 바다를 모두 지닌 지역이므로, 산림청 산하 영덕국유림관리소의 협조를 얻어 산림 생태탐사 수업을 하거나, 국립해양환경체험센터의 협조로 해양 생물 관찰 수업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숲 해설가와 함께 숲속 식생을 조사하거나, 바다생물 전문가와 함께 갯벌 생물을 채집·분류하면서 과학의 탐구과정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 연계 과학수업은 STEAM 교육의 한 형태로서, 과학 개념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생활 문제와 연결지어 보는 통합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 수학 교과: 수학은 지역자원과 연계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생활 속 수학을 주제로 지역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덕의 특산물인 대게의 포획량 자료나 수산시장 경매 데이터를 활용해 통계 단원의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영덕 어촌계나 수협에서 제공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표를 그리고 평균이나 확률을 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지역 풍력발전기의 날개 회전수와 발전량 등을 수학적 모델링 과제로 삼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지역의 기술 전문가(예: 풍력발전 관련 엔지니어)를 초청하면 실무적인 설명을 들으며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에게 수학이 지역경제와 산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수학 학습의 실용성을 체감하게 하고 학습흥미를 높일 수 있다.

▶ 기술·가정 교과: 영덕군의 농수산 자원을 활용하여 실습 중심 수업을 설계한다. 기술·가정 시간에 지역 농산물(예: 사과, 복숭아)로 잼이나 음식을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하거나, 전통 장류(메주, 된장) 발효과정을 배우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농업인 또는 전통식품 장인을 마을교사로 초빙하여 지도를 받는다. 예컨대 속곡산 촌생태마을에서 두부 만들기 체험을 지도하는 주민이 학교로 와서 학생들과 함께 콩을 불리고 멧돌로 가는 작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은 식품 가공의 과학과 전통방식을 함께 배우게 된다. 또한 목공 기술 단원에서는 영덕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간이 의자나 도마 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장에서 목공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진행되는 이 수업은 제품 설계부터 완성까지의 공정을 체험하게 하여 기술 교과의 문제해결 학습을 실현한다. 이러한 지역 연계 기술·가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생활과 지역산업에 밀접한 기술·가사 문제를 접하고, 진로 및 생활 역량을 기르게 된다.

예시들처럼 정규 교과수업 단계부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면, 교실 수업의 내용이 지역 맥락 속에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재구성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해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2) 자유학기제와 마을공동체 연계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는 시험 부담이 없는 대신 진로탐색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강조되므로, 이 시기를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영덕군 소규모 중학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와 마을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79> 자유학기제와 마을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예시

구분	주요 내용	활용 방안	기대 효과
진로 특강 및 멘토링	지역 인사 초청 강연, 1:1 멘토링	문화예술인·해양경찰·농업인·공무원 등 릴레이 특강, 학생-멘토 매칭	현장감 있는 진로 정보 제공, 진로 동기·방향성 확보, 지역사회와 세대 연계
체험 중심 진로탐색 캠프	교과 융합형 진로캠프	메이커·미디어 체험, 바다 진로·농어촌 융합 캠프, 지역 기관 협력	다양한 분야 체험, 적성·흥미 발견, 자기주도적 학습 동기 촉진
동아리 및 프로젝트 활동	지역연계 학생 자율동아리	문화유산 탐험, 농어업 체험, 바다환경 지킴이 등 프로젝트 운영	협업·리더십 향상, 지역사회 공헌 경험, 지속가능한 동아리 운영
지역사회 탐방 활동	현장 견학 및 체험	소방서·농업기술센터·노인복지관 등 방문, 맞춤형 코스 운영	직업세계 이해 심화, 맞춤형 진로탐색, 학교-지역 관계 강화

▶ 진로 특강 및 멘토링: 자유학기제 동안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진로교육 특강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인, 해양경찰관, 농업인, 환경운동가, 지

역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의 지역 인사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릴레이 강연을 연다. 학생들은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실무자들로부터 직업 세계 이야기를 듣고 직접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진로 정보를 얻는다. 또한 관심 분야별로 학생과 지역 멘토를 연결해주는 1대1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영덕 교육지원청이 관내 전문인력을 구축해 학교와 연계하면, 예컨대 어업에 관심있는 학생은 어촌계 청년어부를 멘토로, 예술에 흥미있는 학생은 지역 미술작가를 멘토로 만나 정기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멘토링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동기와 방향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며, 지역 어른들에게는 청소년 지원을 통한 보람을 제공한다.

▶ 체험 중심 진로탐색 캠프: 여러 교과와 경계를 넘어 종합적으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지역 연계 진로캠프를 기획한다. 실제로 영덕 지품중학교의 경우 초등·중학생을 합쳐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메이커 교실 및 영상미디어 체험 캠프를 운영한 바 있다. 이 행사에서는 영덕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팀이 학교를 방문해 레고 로봇 코딩, 목공예 제작 등을 가르치고, 인근 강구정보고등학교의 크리에이터 팩토리센터로 학생들을 초청하여 스톱모션 영상제작, 유튜브 알고리즘 체험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농산어촌의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최첨단 메이커·미디어 분야를 경험하고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꿈과 끼를 찾고 미래 삶의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자유학기제에 지역 기관과 협력한 진로캠프를 운영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몸으로 느끼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영덕군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예컨대 “영덕 바다진로 캠프”, “농어촌 융합 직업 체험캠프” 등을 기획해볼 수 있다. 바다진로캠프에서는 해양환경센터에서 수중 생물 조사, 보트 승선 체험, 수산물 요리 등을 하고, 농어촌직업캠프에서는 오전에 농장에서 사과 수확 체험, 오후에 어촌에서 전통 어망체험을 하는 식으로 다분야 직업체험을 통합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캠프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고, 자기주도적 학습동기를 촉진한다.

▶ 동아리 및 프로젝트 활동: 자유학기제에는 정규 수업 이외에 동아리활동 시간이 확대되므로, 이 기간에 지역연계 학생 자율동아리를 운영하면 좋다. 예를 들어 “영덕 문화유산 탐험 동아리”, “청소년 농어업 체험동아리”, “바다환경 지킴이 동아리” 등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문화유산 동아리는 향토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역 유적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안내책자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농어업 동아리는 학교 인근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주말마다 농촌 봉사활동 일지를 쓰는 활동을, 바다환경 동아리는 해변 정화활동과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제보하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에는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문화원, 농민회, 환경단체 등)가 후원 및 자문으로 참여하여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연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협업과 리더십을 기르고, 자신들이 사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공헌 경험을 쌓게 된다.

▶ 지역사회 탐방 활동: 자유학기제의 특징을 살려 교실 밖 지역사회를 배움터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영덕 마을 탐방의 날’을 정해 한 학기에 1~2회 시행한다. 학생들은 조를 나누어 소방서, 농업기술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 직업과 사회 현장을 체험한다. 조별 선택 코스로 운영하면 진로맞춤형 체험이 가능하다.

영덕군청, 경찰서, 지역 기업 등과 협력해 현장 멘토를 두고 간단한 업무체험을 제공하면 학생들에게 생생한 학습이 된다. 이러한 탐방은 지역사회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학교와 마을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자유학기제 기간 지역 연계를 강화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도시 못지않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여 장기적으로 인재 유출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3)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특히 용이한 영역이다. 영덕군의 자원을 활용하여 창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영역별로 살펴본다.

<표 80> 영덕군 자원 활용 창체 프로그램 운영 방안

영역	주요 내용	활용 방안	기대 효과
자율활동	학교·마을 공동 행사, 조사 프로젝트	합동 체육대회·전통문화 한마당, 마을 명소 조사·홍보 프로젝트	세대 간 화합, 책임감·주도성 향상, 학교-마을 유대 강화
동아리활동	취미·적성 개발, 지역 자원 연계	전통무용·봉사·진로탐구 동아리, 지역 전문가 지도, 공공기관·기업 협력 프로젝트	협업·의사소통·문제해결력 강화, 지역사회 공헌 경험, 지속가능한 동아리 운영
봉사활동	지역사회 기여 봉사 프로그램	벽화 그리기, 환경정화, 농번기 일손돕기, 독거노인 지원, 주민과 함께 봉사의 날 운영	나눔·배려 가치 체득, 세대 교류, 소속감·책임감 강화
진로활동	지역 기반 진로교육	월별 직업인 초청 강연, 직업 현장 탐방(풍력단지, 위판장, 보건소 등)	다양한 직업세계 이해, 현실적 진로 설계 지원,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

▶ 자율활동: 학교 단위로 테마가 있는 교내 행사나 프로젝트 활동을 지역 협력형으로 기획한다. 예를 들어 학교-마을 합동 체육대회나 전통문화 한마당을 개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영덕의 한 중학교에서

는 전교생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연날리기 대회 및 제기차기·윷놀이 등 전통놀이 한 마당을 연례 행사로 열어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한 사례가 있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지역 어른들로부터 전통놀이 방법도 배우고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게 되었다. 또한 마을 조사 프로젝트를 자율활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 예컨대 “우리 마을 명소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마을의 숨은 명소나 인물을 조사하고 홍보 자료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이때 마을 이장님이나 문화관광해설사가 멘토로 참여하여 자료 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콘텐츠 제작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자율활동은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주도성을 부여하고, 성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학교-마을 간 유대감을 강화시킨다.

▶ 동아리활동: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동아리 활동을 확장한다. 예를 들어 ‘월월이청청’ 전통무용 동아리가 지역 예능인 지도를 받고 축제 공연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플로깅·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기자단’은 지역 신문사와 협력해 마을 소식을 취재·기사화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의 협업능력과 시민의식을 키운다.

▶ 봉사활동: 학교의 창체 봉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예를 들어 “마을과 함께하는 봉사의 날”을 지정해 연 1~2회 전교생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학생들은 마을별로 흩어져 벽화 그리기, 환경정화, 농번기 일손돕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봉사를 수행한다. 영덕군 내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봉사처를 매칭하고, 마을 주민들도 학생들과 짝을 이루어 활동하도록 하면 세대 간 교류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체득하게 한다. 또한 봉사활동 후에는 마을회관에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서로의 느낀 점을 나누게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주민들은 아이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키우게 된다.

▶ 진로활동: 창체의 진로활동 시간은 자유학기제 외에도 정규적으로 편성되므로, 이 시간에 지역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 가지 방안은 “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월 1회씩 정례화하여 지역의 다양한 직업군 종사자를 학교에 초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월은 지역 소방관, 4월은 해양경찰, 5월은 문화재청 발굴조사원(영덕출토 문화재 관련), 6월은 농업인 이런 식으로 월별 직업인을 정해 강연 및 질의응답을 한다. 학생들은 매월 새로운 분야를 접하며 폭넓은 직업 세계 이해를 도모하게 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 현장 진로체험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자유학기제 탐방활동과 유사하게 창체 진로활동 시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직업 현장 견학을 가는 것이다. 예컨

대 희망 학생을 모집하여 방과후나 주말에 영덕풍력발전단지 견학, 대게 위판장 견학, 지역 병원 및 보건소 견학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역시 지역 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다행히도 영덕군은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해 관내 진로체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학교당 연간 2회 이상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굳이 먼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현실적인 진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방안들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규 교과 외 영역을 지역사회 학습장으로 확대함으로써 배움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영덕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작은 학교, 작은 마을’의 한계를 넘는 넓은 세상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

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을공동체와 학교의 협력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덕군의 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표 81>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실행 방안	기대 효과
교육청-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정책적 협약 (MOU) 체결, 공동 프로그램·예산 지원	정기협의회 운영, 인적·물적 자원 매칭, 재정 협력	교육자치·지방자치 결합, 사업 성과 창출, 지역 참여 확대
마을교사 인력풀 및 교육활동가 양성	지역 인적 자원 체계적 관리·양성	마을교사 연수·자격관리, 교육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주민·퇴직전문인 참여	전문성·신뢰성 확보, 학교 지원 인력 기반 확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소규모학교 연합형 교육과정 운영	교환수업·연합캠프·연합 예술제·진로박람회 공동 개최	작은 학교 한계 극복, 다양한 프로그램 가능, 교육공동체 의식 고양
지속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지원단 구성, 현장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개선책 반영, 우수사례 홍보	사업 지속성 강화, 참여자 만족도 제고, 지역사회 지지 확보

▶ 교육청-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우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정책적 협약(MOU)을 맺어 공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실제로 영덕군과 경북도교육청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부터 4년간 매년 각 2억원씩 투입하는 재정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행정력·재정력과 교육청의 학교 지원체제를 결합하면, 인적·물적 자원 매칭, 예산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정기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관계

자, 교육지원청 장학사, 학교 교장단, 학부모대표, 지역단체 대표 등이 모여 지역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한다. 경상남도의 한 사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어우러져 만족도 90%에 이르는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교육청-지자체의 협력 거버넌스는 성과 창출의 핵심 토대가 된다.

▶ 마을교사 인력풀 및 교육활동가 양성: 학교와 연계할 지역 인적 자원 풀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 영덕군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마을공동체 인사를 강사은행 형태로 관리하며 학교 수요에 맞게 연계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들을 위한 연수와 자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마을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강사 자격을 엄격히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였는데, 경북 지역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세워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을교사 인력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잠재적 인적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 영덕군평생교육협의회 등이 연계하여 지역 주민, 학부모, 퇴직 전문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및 코칭 기법 등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이를 수료한 주민들을 학교 교육활동에 보조인력이나 동아리지도 등으로 참여시키면, 마을 전체가 학교를 지원하는 인적 기반이 확대될 것이다.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영덕군처럼 소규모학교가 여러 개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 간 연합형 교육과정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인근 중학교 4개교가 서로 학생을 섞어 공동 수업이나 교환 수업을 실시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영덕 관내에서는 본교-분교 공동교육과정, 초중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있었고, 이를 확장하여 중학교 연합 캠프, 동아리 연합발표회 등을 정례화할 수 있다. 이때 지역사회 자원 연계도 공동으로 이루어지면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4개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영덕 진로박람회를 열어 지역 직업인 부스를 풍성하게 꾸린다든지, 연합예술제를 개최해 지역 예술인들을 초청함과 동시에 학생들도 연합 공연을 선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연합 네트워크는 작은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능케 하며, 동시에 지역 차원의 교육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지속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협력 체계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 발전하려면, 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학교 현장을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마을 멘토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책을 마련한다. 예컨대 학생들이 “특정 체험이 재미있었지만 시간 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면 다음번에는 시간을 늘린다든지, 학부모가 “안전이 걱정된다”는 피드백을 주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식이다. 또한 우수 사례는 지역 언론과 교육청 보

도자료를 통해 널리 공유하여 지역사회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 경남지역의 경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정치적 논란으로 폐지 위기를 겪었으나, 학부모와 시민들이 “오류와 문제는 개선하되 장점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여 지속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처럼 지역 연계 교육과정의 성과와 가치를 객관적 자료로 축적·홍보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마.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성장의 변화상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 정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교육적·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장과 학업 향상: 다양한 지역 연계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배움의 동기와 흥미가 높아지고, 교과 지식을 실제 맥락에서 적용해봄으로써 이해도와 창의성이 향상된다. 또한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협동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게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도시 못지않은 폭넓은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 결과 작은 학교 학생들이라도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임하게 되어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와 진학률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혁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은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지역자원을 연구하고 외부 인사들과 협업하면서 교수학습방법을 혁신하게 된다. 폐쇄적 교실을 벗어나 마을 전체를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학습, 체험학습 등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된다. 학교 차원에서는 열린 교육문화가 조성되고, 교직원-학부모-지역민 간 소통이 활발해져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창의성이 높아진다. 이는 곧 지역기반 혁신학교 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며, 영덕군의 작은 학교들이 특색있는 교육브랜드를 갖게 되어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활성화와 인구 유입 간접 효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은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우선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청소년 활동이 늘어나면서 침체되었던 마을에 생기가 돌고, 세대간 교류가 증가하여 지역 공동체 결속력이 강화된다. 프로그램 운영을 계기로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식·재능을 지역 아이들에게 환원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학교는 지역사회에 각종 행정적·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상호 의존 관계가 깊어진다. 이러한 선순환 속에서 지역사회 교육력이 상승하면, 젊은 학부모 세대가 “이 지역에 살아도 아이 교육이 잘 되

겠다”는 신뢰를 갖게 되어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도시의 귀농·귀촌 희망자들도 교육여건이 갖춰진 농어촌 지역을 선호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경남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평가에서 “지역 소도시와 군지역에서 각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보고가 있듯이, 교육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는 충분히 실증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복지 및 평등 증진: 지역 연계 교육과정은 모든 아이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교육복지 측면의 성과도 있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체험격차를 겪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지역사회가 나서서 풍부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평등을 실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학생도 마을교사나 또래의 도움을 받아 현장학습에 참여하고, 사교육 받기 어려운 학생도 지역 예술인에게 무료로 레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동시에, 출신 환경에 따른 교육적 격차를 줄여주는 공공선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포용적 교육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공동체와 타인을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마을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영덕군 소규모학교들의 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전략이다. 교육청·지자체의 협력 거버넌스 아래 학교와 지역이 경계를 허물고 자원을 공유할 때, “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은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앞으로도 영덕군을 비롯한 지방의 많은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지역 연계 교육 혁신이 확산된다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VIII. 결론

1. 결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상북도 영덕군의 지품중·축산중·병곡중·남정중 역시 전교생 수가 매우 적어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양질의 학습 제공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으로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지역특색 교육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단일 학교 차원에서 이를 충실히 구현하기에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영덕군 내 소규모 중학교들의 교육과정을 학교 간에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분석과 현황 조사를 통해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육의 특성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사항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유사 사례의 사례연구를 통해 학교 간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이 갖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교원과 학생들은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였다. 소규모학교 단독으로는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활동을 인근 학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확장하고 또래 간 교류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났다. 다만 학교 간 이동의 불편, 시간표 조정 및 추가 인력 확보 등 운영상의 현실적 애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한편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학생들의 학업 몰입도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 교육자원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인접 학교들이 정규 교과에서 공동 수업을 개설하여 교과 전문 인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 기간에는 연합 동아리, 공동 프로젝트 학습, 연합 체육대회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을 정례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 연계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배울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덕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함께자람 교육허브」 모델을 구

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함께자람 교육허브」는 대상 4개 중학교 간 교육과정 협의체와 지역 교육자원 센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서, 학교 간 시간표 조정, 교원 교류·공동연수, 지역 인적·물적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지역 교육거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해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간 공동 운영 모델은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및 지역 교육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행·재정적 지원과 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덕군 「함께자람 교육허브」 기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방안은 영덕군뿐 아니라 유사한 여건의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들에도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혁신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가 직면한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탐구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속가능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지역 교육지원청의 주도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교육지원청은 소규모학교 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교 간 시간표 조정, 교육과정 연계 및 전문 인력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전담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하여 현장 교원들이 부담 없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영덕군과 같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는 학교 밖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군청, 도서관, 문화회관과 같은 지역 공공시설과 지역 내 전문가, 직업인과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정기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교육자원 연계 사업을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규모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자율성, 다양성을 반영

하여, 인근 학교 간의 학습 요구 및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 공동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급해야 한다.

넷째, 교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원 연수와 인사교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학교 간 인사교류 제도를 도입하여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 공유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다섯째, 「함께자람 교육허브」와 같은 지역교육 거점을 통해 소규모학교 간 연계협력 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소규모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지역의 중심 거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함께자람 교육허브」 모델과 같이 지역 내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점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한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거점학교는 학교 간 수업 시간표 연계, 교과 운영 조정, 학생 관리 지원 등 교육과정 공동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질적·양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지역 교육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영덕군을 넘어 경상북도 전역의 소규모학교들이 처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급증하면서 현재의 통폐합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전교생 60명 이하인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일부 교과는 순회교사를 통해 겨우 수업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또래 학생 부족은 사회성 함양과 협동심 교육에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 재정 효율화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해 왔으나, 이러한 획일적 통폐합 정책은 몇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우선 언제 폐교될지 모른다는 전제 때문에 시설 투자와 교육환경 개선이 지연되어 노후 학교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거센 반발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나타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으며,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지역 공동체 유지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요컨대, 소규모학교 문제를 단순히 학교 수 감축의 관점에서 다뤄온 현재 정책은 교육적 품질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앞으로는 학교 규모 축소에 대응하여 학교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함께자람 교육허브」 모델의 핵심으로, 인근 학교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 작은 중학교가 거점 학교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동 수업을 개설하면, 학생들은 비록 소규모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인근 학교 친구들과 함께 심화 학습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유연화 정책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학교 자율시간 도입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확대 등이 명시되어 있어,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시·도 교육청 단위의 지역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동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 이동을 위해 통학 교통비나 원격수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단체(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역시 관내 학교들이 마을 자원과 연계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인, 대학,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마련한 진로체험, 예술·체육 클럽, 공동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지역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은 결과적으로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원 인사 및 수급 측면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교원 확보와 전문성 보장이 핵심 과제다. 현재 작은 학교에서는 교사 수 부족으로 일부 과목을 전공이 아닌 교사가 가르치거나 복수 학년을 혼합 편성하는 일이 불가피한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원 배치 기준의 탄력적 적용과 특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 수와 관계없이 예체능 및 전문 과목 교사를 추가로 배정하거나, 복수전공·다과목 지도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여 작은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순회교사 제도를 내실화해 인접 학교들이 교과 전문 교원을 공유하도록 하고, 학교 간 교사 교류나 공동 연수를 활성화하여 교원들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팀티칭을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들을 하나의 교육협력 권역으로 묶어, 권역 내 교원들이 일정 비율씩 순환 근무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함

으로써 교원 인사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젊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교원 주거 지원 확대,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이러한 교원 지원책을 시행한다면, 작은 학교에서도 다양한 전공의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산·재정 운영 및 공간 인프라 측면에서는 규모 기준에 따른 획일적 예산 배정을 지양하고, 작은 학교의 실질적 교육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재정 지원과 공동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소규모학교 지원이 개별 학교에 교사나 시설을 직접 보충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앙정부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1인당 기준이 아닌 기본운영비 보전, 특별교부금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 작은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비 가중치를 두어 행정직원 배치나 교육활동 경비를 추가 지원하면, 학생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통폐합 대상 학교에는 시설 투자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지방교육청 차원에서는 인근 학교들이 함께 활용할 거점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이 구상하는 「함께자람 교육허브」는 이러한 거점 학교 모델의 예로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공동수업을 받을 수 있는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기숙사를 마련하는 구상이다. 실제로 영덕교육지원청은 지품중·남정중·병곡중·축산중 등 4개 중학교를 대등한 지위로 통합하여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지역 사회와 협의 중인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공동 캠퍼스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권역별 교육허브 캠퍼스는 첨단 교실, 과학·예술 실험실, 체육관 등을 공유 인프라로 제공하여 작은 학교 학생들도 큰 학교에 준하는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기숙형 시설을 통해 원거리 통학의 부담을 덜고, 방과후활동이나 기숙사 생활을 통한 공동체 경험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많은 예산과 지역 주민 동의가 필요하므로, 경북도와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존 학교 시설 활용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장 폐교 예정인 학교 건물을 지역 복합문화공간이나 마을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여 학생 교육활동과 주민 평생학습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활용하면, 학교 폐쇄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자치)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거시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지원할 법·제도 정비에 힘써야 한다. 예컨대 2022

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계획에 학교규모 및 학생 감축 대응 전략을 포함하고,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과 관계 부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지원청 간의 연계·협력을 공식화하여, 지역 단위에서 학생 배치와 학교 지원에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요구된다. 지방 수준에서는 도교육청과 시·군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작은 학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맞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도청 및 해당 시·군(예를 들면 영덕군 등)과 정례 협의 채널을 만들고, 교육지원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복지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통폐합, 학생 귀촌 유도, 마을교육 활성화 정책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교 운영 형태에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학생 수 급감 지역에서는 초·중 통합운영학교나 한 군데서 여러 학교 공동운영과 같은 새로운 형태를 도입할 수 있다. 실제로 소규모 초등과 중학교를 통합해 K-9 일관학교로 운영하거나, 하나의 교장이 여러 분교형 학교를 묶어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편은 학교별 경쟁이 아닌 지역 전체의 교육력 제고를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단계별 추진 전략으로, 이상의 정책 방향은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우선순위와 이행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법령 및 제도의 유연화와 기존 자원의 재구성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과제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시행 중인 학교 자율시간과 공동학구제 등을 활용해 바로 학교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마을 교사 인력풀을 구축해 방과후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일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실행 가능하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에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교원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 내 학교들이 자발적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초기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중기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 투입과 행정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지역 거점 교육허브의 부분적 구축(예컨대 권역별 공동 활용이 가능한 특별실과 기숙형 시설 시범 운영),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광역 통학버스 운영, 그리고 통합운영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은 학교 개선의 필요성과 비전을 공유하여 지역적 합의 형성에 힘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생 수 급감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불가피한 학교 구조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충분한 단계별 준비와 지역 동의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거점학교 설립이나 학교 통합을 순차적으로 실현하는 단계다. 예를 들어 학생 규모가 극소수에 이른 학교는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거나 통합 캠퍼스로 전환하고, 대신 폐교 시설은 지역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에도 일반화 가능한 모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중학교였지만, 농어촌의 소규모 초등학교

교 역시 유사한 문제와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과 중등을 연계한 통합 운영이나 공동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유치원-초등-중등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교육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결국 향후 정책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창의적 실행이 맞물려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우선순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소규모학교 문제를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의 기회 요인으로 전환한다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포용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Termaat, Annie. (2023). Nurturing interdisciplinary practice in small secondary schools.
- Ye, Peiqi & Xu, Xionghu. (2023). A case study of interdisciplinary thematic learning curriculum to cultivate “4C skills”
- Mammadova, Aida. (2021). Integrating Japanese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ies into the Educational Curriculum on Regional Sustainability inside UNESCO Biosphere Reserves and Geoparks.
- Bjork, Christopher. (2009). Local Implementation of Japan's Integrated Studies Reform: A Preliminary Analysis of Efforts to Decentralise the Curriculum.
- Smith, Gregory A. & Sobel, David. (2010). Place- and Community-Based Education in Schools.
- 교육부. (2021, November 2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 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교육부.
- 교육부. (2022, December 22).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 조금주. (2022). 마을과 교사가 함께 만든 작은 학교 생존법.
- 황혜정. (2015). 장소기반교육(PBE)의 사회과교육적 의의 및 효과 탐색. - 서울교대 학술지
- 김상곤 외. (2013).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방안」
- 김지원. (2023). 시골을 살리는 작은 학교.
- 작은학교교육연대. (2016). 작은 학교, 학교의 길을 묻다.
- 작은학교교육연대. (2009). 작은 학교 행복한 아이들.
- 장홍영. (2024). 평동! 작은 학교입니다.
- 김래연. (2020). 작은 학교 다모임.
- 지경준. (2016). 작은 학교 아이들.
- 남궁윤. (2019). 농어촌 작은 학교의 현실과 가능성.
- 이동성 (편). (2018). 작은 학교가 희망이다.
- 앤더슨, 미셸; 데이비스, 미셸; 더글라스, 피터 등. (저역). (2025). 공동체의 힘, 작은학교 만들기 (권순형, 문영빛, 문영진, 안병훈 역).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편). (2023). 미래 관찰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
- 심재영. (2025). 찾기의 즐거움.
- 미래 교육 집필팀. (2024). 2025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 김성천, 임재일, 홍섭근, 신창기, 교육자치, 김인엽, 서용선, 금나래, 정영현. (2024).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미래 교육 시나리오.
- 남미자, 김경미, 김지원, 김영미, 박은주, 박진아, 이해정. (공저). (2021). 학습자 주도성,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
- 박제원. (2021). 미래교육의 불편한 진실.
- 지미정. (2023). “OECD 교육 2030” &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 교육 나침반.
- 함영기. (2023).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
- 융합교육연구소. (2023). 융합교육으로 미래교육의 길을 찾다.
- 한송이. (2024).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 김나운, 강유경. (2020). 국제 바칼로레아 IB가 답이다.
- 김은미. (2024). 미래형 교육 혁신, 국제바칼로레아 IB.
- 후쿠타 세이지. (2019). 국제바칼로레아의 모든 것.

부록 (설문조사 교직원용, 학부모용, 학생용)

경상북도 소규모 중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안 연구를 위한 인식조사 (교직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경상북도 소규모 중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안 연구'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합니다.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 및 교육청의 정책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I. 응답자 일반 현황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 남성
 여성

2.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 소속 학교급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근무 학교는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도시 지역 읍면 지역(농산어촌 포함) 기타

5. 교직 경력은 몇 년입니까? (2025년 7월 1일 기준)

-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Ⅱ. 교육 여건 및 업무 환경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소속 학교의 전체 학급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특수학급 제외, 전학년 총 학급수)

- 3학급 이하 4~6학급 7~12학급
 13~24학급 25학급 이상

7. 소속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 15명 이하 16~60명 61~120명
 121~240명 241명 이상

8. 귀하의 직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 관리직 교과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교육행정직 기타

[9~13] 교과 교사만 활성화됩니다. 해당 없으실 경우 14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9. 담임을 맡고 계십니까? (교과 교사만 응답)

- 예 아니오

10. 겸임(순회)를 나가고 계십니까? (교과 교사만 응답)

- 예 아니오

11. 주당 겸임(순회) 일수는 며칠입니까? (10.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

- 주 1일 주 2일
 주 3일 주 4일 이상

12. 주당 겸임(순회) 시수는 몇 시간입니까? (10.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

- 주 1~2시간 주 3~4시간
 주 5~6시간 주 7시간 이상

13. 몇 개 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교과 교사만 응답, 겸임(순회) 수업 포함)

- 체험활동 운영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현재는 학교 예산으로 운영)
- 교사의 인사이동 지역 협소화 및 교육공무직원 고용 불안
- 기타 의견 ()

30.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 중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학교 통폐합	<input type="checkbox"/>	공동 운영 확대						

31.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해 소규모학교를 거점 학교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통폐합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통폐합하지 말아야 한다.						

32.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의견이 없을 경우 생략)

경상북도 소규모 중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안 연구를 위한 인식조사 (학부모)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경상북도 소규모 중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안 연구'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합니다.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 및 교육청의 정책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I. 응답자 일반 현황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 남성 여성

2.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급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도시 지역 읍면 지역 (농산어촌 포함) 기타

II. 교육 여건 및 학교 환경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체 학급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학년 총 학급수)

- 3학급 이하 4~6학급 7~12학급
 13~24학급 25학급 이상

5.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전학년 총 학생수)

- 15명 이하 16~60명 61~120명
 121~240명 241명 이상

III.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인식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 1 2 3 4 5 6 7 알고 있다.

7. 다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몇 가지를 알고 계신가요?

- 연합 스포츠 한마당(체육대회)
- 연합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축제)
- 연합 영어 캠프
- 연합 스포츠 체험활동(야구 관람 등)
- 연합 진로 체험학습(부산국립과학관 관람, 딸기농장 체험 등)
- 연합 예술 문화 체험활동(대구 간송미술관, 숲속 작은 음악회, 오페라 관람 등)
- 교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교과 연계 백일장 등)

0개 1~2개 3~4개

5~6개 7개 모두

8. 다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몇 가지에 참여하셨나요?

- 연합 스포츠 한마당(체육대회)
- 연합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축제)
- 연합 영어 캠프
- 연합 스포츠 체험활동(야구 관람 등)
- 연합 진로 체험학습(부산국립과학관 관람, 딸기농장 체험 등)
- 연합 예술 문화 체험활동(대구 간송미술관, 숲속 작은 음악회, 오페라 관람 등)
- 교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교과 연계 백일장 등)

0개 1~2개 3~4개

5~6개 7개 모두

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규모학교 2~4교가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교과 수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다. 1 2 3 4 5 6 7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1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 (토론 수업, 체육 단체 종목 가능 등)
- 학생 교류망의 확대 (타 학교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함양 등)

- 교사 상치, 수업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근거리 통학 보장 등)
- 기타 의견 ()

IV.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자녀가 소규모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또는 소규모학교 진학 예정자입니까?
- 예 아니오

[12~18] 자녀가 소규모학교 재학·졸업자 또는 진학 예정자일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해당 없으실 경우 19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2.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불만족스럽다. 1 2 3 4 5 6 7 만족스럽다.

13.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 체험활동
-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과 수업
-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생활 지도
-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학생별 실습, 실험 기회 최대 제공
-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 기타 의견 ()

14.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동아리 등 선택 불가)
- 한정된 수업 방법 (토의·토론 수업, 체육 단체 종목, 밴드 합주 수업 등 운영 불가)
-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한정된 교우 관계
- 불균등한 교육 기회 (장거리 통학 등)
-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 기타 의견 ()

15. 위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 내용 : 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방법 다양화, 학생 교류망 확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 14번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만 응답)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개선할 수 없다. | <input type="checkbox"/> | 개선할 수 있다. |

V.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8] 자녀가 소규모학교 재학·졸업자 또는 진학 예정자일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다. 해당 없으실 경우 19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6.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축소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확대해야 한다. |

17. 확대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간 공동 교과 교육과정 운영 (이웃 학교에 가서 교과 수업 등)
-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연합 행사, 현장체험학습 등)
- 지역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영덕문화관광재단, 예주문화예술회관, 영덕도서관 등 활용)
- 마을교사 활용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학교 밖 인력풀을 마을교사로 활용)
-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공립형 학원, 미래교육 허브 센터 구축 등)

18. 교과 교육을 확대한다면 어떤 과목을 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어 영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22.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해 소규모학교를 거점 학교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폐합해야 한다. 1 2 3 4 5 6 7
 통폐합하지 말아야 한다.

2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의견이 없을 경우 생략)

경상북도 소규모 중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안 연구를 위한 인식조사 (학생)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경상북도 소규모 중학교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안 연구'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합니다.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 및 교육청의 정책 참고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I. 응답자 일반 현황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 남성 여성

2. 다니는 학교의 학교급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다니는 학교는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도시 지역 읍면 지역 (농산어촌 포함) 기타

II. 교육 여건 및 학교 환경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니는 학교의 전체 학급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학년 총 학급수)

- 3학급 이하 4~6학급 7~12학급
 13~24학급 25학급 이상

5. 다니는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전학년 총 학생수)

- 15명 이하 16~60명 61~120명
 121~240명 241명 이상

III.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인식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 1 2 3 4 5 6 7 알고 있다.

7. 다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몇 가지를 알고 계신가요?

- 연합 스포츠 한마당(체육대회)
- 연합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축제)
- 연합 영어 캠프
- 연합 스포츠 체험활동(야구 관람 등)
- 연합 진로 체험학습(부산국립과학관 관람, 딸기농장 체험 등)
- 연합 예술 문화 체험활동(대구 간송미술관, 숲속 작은 음악회, 오페라 관람 등)
- 교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교과 연계 백일장 등)

0개 1~2개 3~4개
 5~6개 7개 모두

8. 다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사 중 몇 가지에 참여하셨나요?

- 연합 스포츠 한마당(체육대회)
- 연합 예술교육 한마당 대축제(축제)
- 연합 영어 캠프
- 연합 스포츠 체험활동(야구 관람 등)
- 연합 진로 체험학습(부산국립과학관 관람, 딸기농장 체험 등)
- 연합 예술 문화 체험활동(대구 간송미술관, 숲속 작은 음악회, 오페라 관람 등)
- 교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교과 연계 백일장 등)

0개 1~2개 3~4개
 5~6개 7개 모두

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규모학교 2~4교가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교과 수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다. 1 2 3 4 5 6 7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10.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

(토론 수업, 체육 단체 종목 가능 등)

- 학생 교류망의 확대 (타 학교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함양 등)
- 교사 상치, 수업시수 경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근거리 통학 보장 등)
- 기타 의견 ()

IV.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소규모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또는 소규모학교 진학 예정자입니까?

- 예 아니오

[12~18] 소규모학교 재학·졸업자 또는 진학 예정자일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해당 없으실 경우 19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2.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불만족스럽다. | <input type="checkbox"/> | 만족스럽다. |

13.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및 진로 체험활동
-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과 수업
-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생활 지도
- 소인수 학급 운영으로 학생별 실습, 실험 기회 최대 제공
- 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 기타 의견 ()

14. 현재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한정된 교육 활동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동아리 등 선택 불가)
- 한정된 수업 방법 (토의·토론 수업, 체육 단체 종목, 밴드 합주 수업 등 운영 불가)
- 적은 학생 수로 인한 한정된 교우 관계
- 불균등한 교육 기회 (장거리 통학 등)
-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음
- 기타 의견 ()

15. 위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선 내용 : 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 방법 다양화, 학생 교류망 확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 14번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만 응답)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개선할 수 없다. | <input type="checkbox"/> | 개선할 수 있다. |

V.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8] 소규모학교 재학·졸업자 또는 진학 예정자일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해당 없으실 경우 19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6.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축소해야 한다. | <input type="checkbox"/> | 확대해야 한다. |

17. 확대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간 공동 교과 교육과정 운영 (이웃 학교에 가서 교과 수업 등)
- 학교 간 공동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연합 행사, 현장체험학습 등)
- 지역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영덕문화관광재단, 예주문화예술회관, 영덕도서관 등 활용)
- 마을교사 활용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학교 밖 인력풀을 마을교사로 활용)
- 경북형 미래 공동학습센터 운영 (공립형 학원, 미래교육 허브 센터 구축 등)

18. 교과 교육을 확대한다면 어떤 과목을 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해 소규모학교를 거점 학교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폐합해야 한다. 1 2 3 4 5 6 7
 통폐합하지 말아야 한다.

23.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의견이 없을 경우 생략)

2025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발행일: 2025년 11월 28일

발행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이상진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36746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054-840-2278)

보고서탑재: <http://shool.gyo6.net/gber>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홈페이지/정책연구/정책연구담당/정책연구보고서)

-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안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